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22)호 12월호

평양 勞動新聞사발행 1948.

근로자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2호 (22)

1948년12월호

내용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三차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 성 수 상 의 연 설……………………………………(一)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에서의
북조선민주건설의 성과와 그에있어서의
위대한쏘련의 원조에대한보고……………………김 두 봉…(一三)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결정서……………………(二五)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하였는가……………………김 막 심…(二八)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체계와
그 경제법칙들의 특질……………………느 • 실 린…(四四)
사회주의적계획화와 가치법칙……………………끄 • 오스뜨로윋짜노브…(五七)
독립채산제문제와 유일관리제……………………김 찬…(八〇)
남조선을 분할예속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책……………………석 국…(九四)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연구자료
「일보전진이보퇴각」에대하여……………………므 • 스 쩨 빠 노 브…(一一一)
一九四八년도「근로자」내용……………………(一三〇)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三차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만장 총기립 오래계속되는 우뢰와같은 박수속에 등단)

친애하는 청년동무들!

나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三차대회를 통하여 해방후 三년동안에 민주주의독립국가 건설을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거대한업적을 남겨놓은 북조선민주청년들과 본대회에 모인 대표여러동무들에게 전인민적감사를 충심으로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이와동시에 해방후三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국내국외의 반동세력과 영웅적투쟁을 꾸준히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애국청년들에게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전인민적축하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따라서 나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또는 전세계민주청년들의 권리와 자유를위하여 전후 반동세력과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전세계민주청년들과 그 선봉대인 쏘련공산청년들과 쏘련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보냅니다。(박수)

친애하는 대표여러분!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三차대회는 우리민족발전력사에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장엄한 시기에 소집되었습

니다 그것은 우선 이 대회가 우리조국에 조성된 복잡한 국제국내 정세하에서와 우리민족의 해방투쟁에있어서 가장 장엄하고 영예스러운 시기인 즉 우리민족이 일일 천추같이 고대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되고 쏘련을 수위로한 파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몽고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등 제민주국가들이 우리공화국을 시인하고 우리나라와 외교적관계와 경제적관계를 설정하기로한 영예스러운 시기에 소집된 까닭입니다。(박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본대회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와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자립적민족경제로대를 구축하며 민족문화를발전시키며 동맹의 조직적장성과 사상적통일을 보장하기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사업들을 전개하여왔습니다。(박수)

동무들!

나는 동무들이 해방후三년동안에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공헌한 업적과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동무들이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에 대하여 자세히 지적하려고 하지않습니다。

그것은 동무들이 공헌한 업적과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언제든지 잃어지지않고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력사에 길이 남아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박수)

나는 동무들의 대회에서 이기회를 리용하여 어떻게하면 우리가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더 잘 일하며 조국과 인민앞에 어떻게하면 우리의 정력과 기능을 유효하게 더 잘 공헌하며 또는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장래를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데대하여 말하려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하여놓은 업적과 성과들이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그것은 화려한 꽃이 피게될 꽃봉오리에서 불과하며 끝없는 우리의 사업에 첫걸음으로 될따름입니다 더 어렵고 더 엄중한 과업은 우리의앞에 있으며 우리조국과 우리인민의 장래는 우리에게 더 무겁고 더어려운짐을 지워 놓고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엄중한시기에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사는 우리는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조국의 운명과 우리후생의장래가 이 엄중한시기에사는 우리가 우리조국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함에 달린까닭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행복된 사람으로 되게되는것은 우리가 우리조국의 장래기초를 닦아놓는 사람들이며 우리조국의 장래운명을 타개하는 조국건설의 역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된 사람으로 되기위하여서는 난관과투쟁을 거쳐서 행복을 만들어야하며 행복을 쟁취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민족의 독립투쟁사의 엄숙한시기에 처하여있는 우리가 만일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운명을 옳게 해결하지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조국과 우리후생들에게 천추의 불행을 가져올것이며 그들의 원한과 저주를 받게될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엄숙한시기에 우리조국의 운명을 옳게 해결한다면 우리는 조국과 우리후생의 장래에 자유와 행복을 가져올것입니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 조국의 독립과 통일과 민주건설을위한 투쟁의 새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반드시 알아야하겠습니다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의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선거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 조건하에서 쏘련정부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요청에의하여 우리조국강토에서 자기군대를 금년말까지 철병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철거를 실시하고있습니다。(박수)

쏘련정부의 이결정은 약소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독립을 옹호하는 쏘련의 진정한 정책을 또한번 보이어 주었습니다。(박수)

오늘 우리조국에 절대다수의 남북조선인민의 지지를받는 법적중앙정부가 수립되고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하는 조건하에서 미국군대만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하등의 조건과 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지않고 계속주둔한다면 그것은 미국사람들이 우리내정을 간섭하는것이며 그의 심장에는 어떠한 야망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서 조선인민의 반감과 반항은 점점 더 높아지게될것입니다。(박수)

미국사람들은 흔히 조선사람들을 생각하는듯이 「내란」과 「무질서」에대하여 「걱정」하고있습니다。남북조선인민의 절대다수가 八월二十五일총선거에 참가하고 자기의 중앙정부를 수립한 사실은 외국군대가 우리강토에서 철거한 이후에도 아무러한 무질서나 혼란이 없으리라는데대한 가장 좋은 담보로됩니다。만일 미국사람들이 진정으로 「내란」과 「무질서」를 「걱정」한다면 하루바삐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하여야할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남조선의정세가 잘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일대에 무질서가 계속전개되며 소위 남조선국방군내에서 장엄한 반란이 일어난 사실들은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조건과 남조선반동괴뢰정부의 통치하에서는 언제든지 무질서와 「반란」을 면치못하리라는 가장좋은 실례로됩니다。(박수)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참혹한 혼란과 무질서에대한 전체책임은 남조선미주둔군과 남조선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조국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공화국중앙정부를 수립하였다고해서 우리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이 완성되었거나 국토의 완정이 실현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것은 우리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기위한 기초로 될따름입니다 우리조국의 남반부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결속된 반인민적 반동괴뢰정부가 아직 남아있어 조국과인민을 외래침략세력에 팔아먹고있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하겠습니다。

오늘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한 이후 우리에게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과업들이 제기되고있으며 우리는 더 어렵고 복잡한 조건들과 환경속에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을 계속하게되리라는것을 반드시 알아야하겠습니다。

동무들!

이러한 정세와 조건하에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긴장성이 요구됩니다。

동무들!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앞에 제기되는 기본과업은 첫째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킨다는것은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적 선진리론으로 무장시킬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동무들이 아시는바와같이 청년들은 우리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느민족을 물론 그 민족의 장래는 그민족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교양받고 준비되었는가함에 달리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에게대한 교양문제는 어느시대 어느민족의 력사를 물론하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은 새환경과 새조건하에서 살고있으니만큼 우리는 우리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조국을 사랑하며 인민을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바칠수있는 준비된인재로 교양할수있는 조건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장구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는 우리청년들에게 일제의 노예사상을 교양하였으며 침략통치계급에게 순종하며 복역할수있는 기형적 병신들로 우리의청년들을 「교양」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락후된 병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조국이 일제통치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우리조국의 주인으로된 현하의조건하에서 우리는 우리조국의 후진들을 백방으로 준비된 건전한 후진으로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맹단체들은 우선 우리청년들속에 남아있는 일제교육의 잔재와 일제사상의 잔재를 숙청하고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박수)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려는 교양은 어떤특권계급이나 통치계급에게 복무하며 봉사할수있는 노예적 사상교양인것이아니라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함에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교양은 청년들을 선진과학적 리론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입니다。

청년들을 선진과학리론으로 무장시키기위하여서는 청년들에게 인류사회발전법칙을 알게하며 인류력사의 브

정과 투쟁의력사를 알게하며 그들로하여금 세계문화의 보고에서 가장 우수한것들을 섭취케하며 선진 혁명당들의 우수한 경험을 연구케하며 우리조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케하여야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선진과학리론으로 무장시키는일은 선진과학리론서적들을 출파하여 다량으로 제공하며 학교에서 공부시키는것으로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서적이나 학교는 청년들에게 지식의토대를 주며 청년들로하여금 선진우주관을 가지게할수있는 조건을지어주며 청년들을 지식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을뿐입니다 서적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지생활과 련계되고 조국과 인민을위한 투쟁에서 단련된 이후에야 그지식은 강력한 무기로 되는것입니다。(박수)

그렇기때문에 사상교양방면에있어 동맹단체들앞에 제기되는 두번째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청년후진들을 건설과 로력에서 교양하며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하는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때에라야만 우리가 조국과 인민을위한 투쟁의 앞길에서 어떠한 난관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부닥친다하더라도 그를 능히 타승하고 전진할수있게 될것입니다。(박수)

동맹단체들은 청년들로하여금 조국을위한 경제건설에서 모범적 선진돌격부대로 되게하며 자기의 창발력과 헌신성으로서 전체로동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도록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청년들로하여금 로동을 사랑하며 일을 즐겨하는 근로정신으로 교양하며 일하기싫어하는일을 수치스러운일로 알게하며 로동을 영예스럽고 신성한일로 생각하며 각개청년들로하여금 그가하는 로동이 적고 또한 어렵고『어즈러운일』이라고하여도 그가 자기를 조국건설의 위대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기손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하며 자기조국을 재건하는 영예스러운 역군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오직 로력에서만이 진정한 건설자가되며 준비된인재가 형성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맹단체들은 일부청년들속에 남아있는 일하기싫어하며 남의 로력에 살려고하는 부화하고

락후된 사상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교양에있어서 셋째로 중요한문제는 청년들로하여금 원쑤들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발휘하며 적과 조금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합니다。(박수)

오늘 우리조국을 다시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갖은 음모와 발악을 다하고있으며 그들은 또한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제국주의를 재무장시키며 우리조국을 다시 식민지화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단독괴뢰정부 소굴에 모인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소위「일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과거의 우리민족을 어떻게 착취 압박하였으며 우리민족을 어떻게 멸종시키려는 야만적 비행에 대하여 광범히 폭로하여야하며 그들이 망한이후 다른 침략세력과 규결(糾結)하여 다시 우리나라를 엿보고있는데대한 경각성을 높여야합니다。

우리는 다시 망국노의 생활을 거듭하지않기위하여 국가를 보위하는사상과 국가와 민족의 리익에 일체를 다 복종시키는 정신을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박수)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들만이있는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내부에도 외부의 적들과 야합할수있고 또 야합하고있는 적들이 존재하고있는것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그것은 북조선의 위대한 민주개혁의 결과에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이며 과거에 인민을 착취하고 인밀의등에서 살던자들입니다 이들은 기회만있으면 외부침탁세력과 야합하여 우리의 인민정권과 우리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려고 엿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을 적에게대한 높은 경각성으로 교양하며 적을 가릴줄알며 적을 적발폭로하며 분쇄할줄 아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우리에게는 안일성과 자위성이 없어야하며 자만자족심이 없어야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동분자들과 가장 가혹한 조건가운데서 투쟁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하겠습니다。

해방후 二년동안에 북조선의 위대한 민주건설에서 우리가 쟁취한 빛나는 승리들은 일부 우리일꾼들로 하여금 승리에 도취하여「모든것이 다 원만히 되여간다」는 안일성과 자위성에 무젖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군들에게는 우리의 적들이 다 진멸되었으며 모든것이 다 결정서에 써 놓은대로 자연생장적으로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일꾼들 속에있는 특히 청년일꾼들 속에있는 이러한 안일성과 자만자족심은 대단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분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인민들의 눈을 가리우게하며 적을 주목함에대한 인민들의 경각성을 마비시키며 미약하게합니다。

오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一백三十여만명의 맹원을 가진 강력한 대중적 단체로 되었다고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인류력사는 강한 군대가 자기힘을 과대평가하고 적을 과소평가하는 자만심과 행운증에 걸리어 위험한 시기에 전투적 준비를 망각하고 불의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하는일은 대단히 위험한일이며 불의의 희생과 적의 앞에서 당황질주하는 무질서를 일으킬수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공격과 당황질주는 분렬과 패배와 멸망을 가져올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자기대렬을 일상적으로 결속시키며 적에대한 경각성을 시시각각으로 제고시키며 전체동맹원들을 긴장되고 동원된상태에서 교양하며 적의 일거일동을 시시각각으로 연구하며 적의 모략에대하여 미리 예방하며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적으로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지못하게하며 적을 분렬케하여 실패와 멸망에로 인도하는 조국방위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박수)

넷째로 청년들의 사상적 교양에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청년들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청년후진들을 자기조국을 사랑하며 자기조국의 혁명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착취자와 압

박자와 침략자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해방시키기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정신으로 교양하며 타민족의 동등권과 자유를 존중히 여기며 국제반동세력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위하여 전세계 자유애호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정신으로.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박수)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일관한 새로운 애국주의로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청년들을 우리조국의 독립과 자유을위하여 투쟁하며 우리조국의 민주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며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체정력을 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하겠습니다。(박수)

우리는 이투쟁이 오직 자유애호인민들과의 특히 쏘련을 위시로한 제민주국가인민들과의 긴밀한 친선과 협조에서만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청년후진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하겠습니다。(박수)

다섯째로 동맹단체들과 동맹원들앞에 제기되는 중요한과업은 청년후진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소유시키는 문제입니다。

동무들!

우리는 장구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결과에 남겨진 파산된 경제와 락후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조국을 재건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술을 소유하며 과학을 연마하는 문제는 청년후진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임무로 되는문제입니다。

기술과 인재의 기근을 퇴치함이 없이는 우리는 공업을 발전시킬수없으며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킬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위하여서는 급속한기간내에 우리의 청년들을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박수)

청년들을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키기위하여서는 동맹단체들이 광범한 사업을 전개하여야할것이며 청년들속에서「기술을배우라」「자기일하는 기계의 숙련공이되라」는등의 구호를들고 청년대중들속에서 광범한

기술전습사업들을 조직하여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청년후진들이 문화적으로 락후되고 과학을 소유한 발전된 인눌로 되지못하고 과학에 기초하여 경제에대한 관리를 할줄 모른다면 그들은 우리국가의 주인으로 되지못할것이며 또 락후한 후진을 가진 우리국가의 장래는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지못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며 조국을 건설하기위하여서는 기술을 알아야하며 과학을 소유하여야하겠습니다。

기술을 소유하고 과학을 소유하기위하여서는 꾸준하고 완강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박수

쓰딸린대원수는 청년후진들에게 과학을 소유할데대하여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과학을 소유하기위하여서는 완강하고 인내성있게 배워야한다。 우리들의앞에는 요색이있다 이 요색은 과학과 많은 령역의 지식을 말함이다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반드시 요색을 점령하여야한다。 청년들은 만일 그가 새생활의 건설자가 되려면 만일 그가 늙은 근위대의 실지적 교대자가되자면 이 요색을 전취하여야한다」

동무들!

우리조선청년들이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결과에서 남겨가진 무식과 암흑을 퇴치하기위하여서는 이 「과학의요색」을 반드시 점령하여야하겠습니다。

발전되는 우리의 금속공업 방직공업 철도운수업 해상운수 화학공업 광산업 전기업들은 날이갈쑤록 수천수만의 새 기술 간부들과 숙련공들과 과학을 소유한 새 인재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산업의 새 인재의 요구를 최소한도라도 보장시킴이없이는 우리의 경제건설은 급속한템포로 나아갈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맹단체들과 청년들은 청년들속에서 온갖 령역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며 「과학의요색」을

점령하는 해군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나는 마지막으로 동맹청년들이 우리의 경제 문화건설에있어서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겠는가 하는데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합니다 동무들이 보시는바와같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락후된 조저하에서 국제국내의 반동세력과의 가혹한투쟁을 전개하며 온갖 난관들과 투쟁하면서 우리조국을 재전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공화국정부정강을 실천하기위한 첫걸음으로 조국을재전하는 이위대한창업에는 전체인민의노력과 조국건설의 중심역군인 청년들의 막대한 영웅적노력과 투쟁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지금에 조국재전의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위하여서는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 전체맹원들을 총동원하여야할것이며 동맹청년들은 그가 인민경제의 어떤분야에서 일하든지를 물론하고 그분야에서 모범적 민주역군으로 되어야하며 자기가 맡은 책임량을 완수치못하는 청년들이 없어야하겠습니다。

인민경제발전의 二개년계획은 청년들에게 특별한과업과 임무를 제기하고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자기가 일하는 기계의 숙련공이되며 자기가 일하는 직업의 기술에 능통하며 물자를 절약하여 생산률을 제고시키며 로동창안의 선구자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청년들은 선진채탄법과 채광법을 소유하며 조국에 석탄과 광석을 더 많이 주는 모범적 광부로 되어야 하겠습니다。(박수)

철도운수와 해상운수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철도운수와 해상운수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기관사와 함장이되며 유능한 기사와 기수가되며 발전되는 인민경제가 운수업에 제기하는 광대한 요구들을 민첩히 수응하여 주어야하겠습니다。 (박수)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농학상지식을 습득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농촌에 주입시키며 농촌에 문화를 보급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식량과 원료를 더 많이 주는일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우문화건설방면에 있어서 동맹단체들은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 의하여 一九五〇년부터 실시되는 전반적 초동의무교육실시준비에 총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전반적 초동의무교육을 실시하기위하여서는 우리앞에는 一九四九년도에 장엄한 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一九五〇년도부터 전반적 초동의무교육을 실시하기위하여 一九四九년도에 광대한 학교망을 신설하며 전북조선지역을 통하여 학교들을 신축하는 광대한 전인민적운동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이운동의 선두에는 동맹청년들이 반드시 서야하겠습니다 동맹청년들은 농촌에 광범한 과학지식을 보급시키며 민주선전실 구락부들을 통하여 광범한 문화계몽운동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농촌의 문화풍습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이와같이 동맹청년들앞에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장엄한 거족적 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 — 우리동맹청년들은 영웅적 쏘련청년들이 자기조국을 재건하며 자기조국을 외래의 침략세력으로부터 방위하는 투쟁에서 어떻게 희생적으로 헌신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는가하는 그들의 모범을 반드시 섭취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오래계속)

나는 우리의 동맹청년들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웅적 노력과 희생적 투쟁으로써 온갖반동의 음모와 시도를 파괴분쇄하고 각종 난관과 장애를 극복돌파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박수오래계속)

나는 이투쟁에서 조국건설의 불요불굴의 민수역군들인 조선청년들에게 영광이 있으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렁찬박수 만장총기립 우뢰와같은 박수 계속하는 가운데 김일성수상만세의 환호소리 장내를 뒤흔든다)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四차회의에서의
북조선민주건설의성과와 그에 있어서의
위대한 쏘련의 원조에대한 보고

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위원장 김 두 봉

동무들!

오늘 우리당중앙위원회는 우리민족해방의 은인이며 조국의통일독립과 민주발전에있어서의 진정한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군대를 우리조국강토에서 전송하면서 그의주둔二년간의 북조선민주건설의 성과를 총화하게됩니다。

전세계피압박인민과 약소민족의 해방자인 쓰딸린대원수가 령도하는 영웅적쏘련군대는 인류력사상에있어서 가장 참담하고 류혈적인 제二차대전중에서 막대한인명과 재산을 소모하면서 전쟁에 온갖 중하를 짊머지고 서방에서 팟쇼독일과 동방에서 강도일본제국주의침략자를 소탕하였으며 전세계인류에게 해방과 평화의 새 서광을 비쳐주었습니다 영웅적 쏘련군대의 승리는 팟쇼강도배들의 야만적인 철쇄밑에서 신음하고있던 세계 많은 나라인민들과 피압박약소민족들을 해방시키어 그들에게 재생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팟쇼전쟁에있어서 가장 무거운 사명을 짊머졌던 쏘베트동맹은 동방에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동방제민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기위하여 一九四五년 八월九일 강도일본에게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쏘베르군대의 과죽지세의 공격은 강도일본제국주의가 호언장담하던 관동군을 단기간에 격파하고 전쟁을 선포한 一주일인 八월十五일에 일본제국주의로 하여금 무조건항복을 하게하였습니다。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하기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장기전쟁을 계속할것을 결의하고 무조건항복에 관한 미국 영국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여왔습니다。

오직 쏘련의 대일전쟁참가와 그의결정적역활만이 동방에서일제를 격멸하고 동방제민족들에게 평화와 해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강점자들을 신속히 또는 결정적으로 파멸시키고 아세아의 수백수천만의 약소민족들과함께 조선을 해방시킨것은 오직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결정적역활을 한때문입니다。

그것은 쏘련군의 공격에의하여 일본이 투항한후 근一개월후에야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한 사실한가지만가지고도 명백하게됩니다。

미군은 조선해방에 아무러한 큰역활도 하지못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해방자는 오직 쏘련군대뿐입니다。

만약 동맹국의 약속에 충실하며 인민들의 평화와 독립을 회복시키기위하여 싸우는 쏘련군대가 대일전쟁에 참여하여 결정적역활을 담당하지않았더라면 우리조선민족은 야수적 침략전쟁의 참화속에서 금도의 비운에 빠진채로 오늘에 이르렀을것입니다。

오직 영웅적쏘련군대의 결정적역활에의해서만이 조선민족은 억압과 착취 살륙과 박해의 식민지민족의 피어린 력사를 물리치고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광명이 약속된 해방의날 八·一五를 맞게되였던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해방적사명을 실천한 쏘련군대는 우리조국의해방자로 또는 진정한 원조자로서 이나라강토에 발을옮겼습니다。

그결과 우리민족의 가슴에 사무친 억압과 노예의 암흑력사는 종국되었으며 우리민족앞에는 양양하고

또 광활한 발전의 앞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옹호하는 위대한 레닌 쓰딸린당이 령도하는 쏘련군대는 우리조국에 진주하는 첫날부터 조선의자주독립과 민주주의발전을 위하여 백방의원조를 주었으며 우리조선인민에게 해방된 자기조국을 자기의 뜻대로 재건할수있는 온갖 가능성을 지어주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분야에서 조선인민으로하여금 자기조국의 주인으로 되게하였습니다。

쏘련군대는 해방된 우리조국의 모든정권을 조선인민들에게 넘겨주었으며 조선인민들로하여금 오늘과같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물질적 토대가되는 북조선의 찬란한 민주건설의 승리적성과를 보장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일본군대가 쏘련군에게 무조건항복한지 한달이나 지난후에야 탄환한알도 쓰지않고 피한방울도 흘리지않고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첫날부터 남조선에 새주인으로 출현하였으며 우리조국의 일체정권을 자기의수중에 장악하고 조선인민에게는 아무러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주지않았습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온갖 민주력량을 박해하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세력을 조장하는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남조선에 반동경찰제도가 수립되고 학살과 테로와 사형이 반동통치의 유일한 수단으로되고 경제가 파탄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파산과 기아에서 신음하고있는것이 남조선미군통치의 三년간의 결과입니다。

이와같이 미군이 남조선에 진주하던 날부터 남북조선에는 각각 상이한 정치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우리조국은 민주와 건설과 자유의 북조선으로 반동과 탄압과 학살과 파괴의 남조선으로 판이하게되었습니다。

쏘베트군대가 진주한 북조선은 민주조국창건의 기본토대로써 민족적부흥과 재생의길로 발전하고있는 반면에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며 그를 다시 노예화하려고 시도하는 미군이 주둔한 남조선은 몰

탁과 멸망과 예속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식민지노예화정책에 항거하는 해방민족의 모든 민주주의적 창발력들을 억제하며 온갖 민주세력들을 탄압멸살하며 조선민족을 분렬시키며 국토를 량단하며 자기들의 식민지예속화의 정책에 유리할 온갖 반동세력을 조장 비호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대신하여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남조선의 미군정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위하여 조선의 민족공업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조해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조장하여 테로경찰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민주주의독립국가로 재건하는 유일한 국제적협약인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과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었으며 량군동시철거에 대한 쏘련의 정당한 제안을 거절하였을뿐만아니라 자기들의 거수기계로써 위조하여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을 남조선에 보내어 조선인민의 총의를 거부하며 무력과 테로와 학살로써 망국단선을 강행한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반동괴뢰 「정부」를 만들어놓고 미군장기주둔과 남조선의 식민지화와 군용기지화를 획책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三년간 남북조선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각각상이한 경위(經緯)를 총화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됩니까。

그것은 쏘련이 우리에게 준 원조는 장구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철제하에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식민지노예민족을 추어일으키며 우리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손으로 자기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할수 있도록하는 원조였다는 점입니다。

쏘련군대의 류혈적 희생에 의한 해방적역할과 쏘련군대의 우의적 원조에의하여 북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분야에서 三년동안에 급격히 발전되어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튼한 기반으로 되었으며 북조선의 위대한 민주개혁들은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기위한 강력한 정치 경제적 토대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조선인민들은 우리조국을 해방시켰으며 우리조국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부흥할수있는 조건을 지어준 위대한 쏘련군대와 영웅적 쏘련인민과 쓰딸린대원수에게 거족적감사와 영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무들!

북조선에 진주한 쏘련군대의 진정한 원조하에서 이룩한 민주발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쟁취한 성과는 어떠한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쏘련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하에서 북조선인민들은 자기손으로 정권기관을 조직할 가능성을 가졌으며 그를 공고 발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북조선에 진주한 쏘련군대는 해방된 조선인민들의 창의에의하여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적극방조 장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있어서의 인민위원회들은 국내의 질서와 인민생활의 안전을 수립하게되었으며 산업운수 체신 상업들을 복구하는 북조선인민들의 장엄한 건국사업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의 지도간부들은 제반민주건설사업을 통하여 거대한 경험들을 체득케되었으며 제반시책을 실천하는 도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우리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각분야에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국가적인재들로써 단련되고 훈련되고 장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략탈자들이 마치 우리민족은 무능하고 렬등하며 자력으로 자기국가를 운영할수 없는것처럼 멸사하며 억측하는 흉악한 악선동을 근본적으로 분쇄하는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북조선인민들은 해방후 三년동안에 위대한 쏘련군의 성의있는 원조하에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보장하기위한 튼튼한 정치적 경제적기초인 민주개혁들을 성과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진저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는 쏘련군대의 진정한 원조하에서 조선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이던 위대한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들을 실시한결과 북조선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는 일대전변들이 생겼습니다。

토지개혁의 결과에 .조선농촌발전의 질곡으로되어있던 봉전적 토지소유관계는 숙청되었으며 토지의 주인으로된 농민들속에서는 애국적 생산의욕이 제고되었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습니다。

토지개혁후 경지확장에있어서 개간지 二〇、一四〇정보 휴간지복구二六、七〇二정보와 밭을 논으로 전환시켜 二배이상의 증수를 보장한 관개시설답이 四四、五四三정보에달하며 농촌에있어서 신축 및 증축한 가옥이 一四四、三四六호에 달한나는 사실은 해방후 三년동안 위대한 쏘련군의 원조하에서 북조선 농촌경리의 향상면을 증시하는 실례의 하나로 되는것입니다。

위대한 쏘련은 락후한 우리농촌경리에 선진적 영농기술보급을위하여 많은 농업기술자와 학자들을 파견했으며 농사개량에 소요되는 물질적방조를 주었습니다 위대한 쏘련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하면서부터 일제가 소유하였던 일체산업 운수 체신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북조선인민들은 조국발전의 기본적 물질적 토대로되는 일체산업 운수 체신기관들을 국유화하며 우리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공헌할수있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패망당시 十九개소의 수력발전소를 파괴하였으며 六十四개소의 탄광과 광산들을 침수시켰으며 一七八개소의 탄광 광산 四十七개소의 기업소들을 여지없이 파괴하였으며 그중에도 흥남공장 성진제강 청진제철 황해제철 평양화학공장등 대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였으며 전북조선철도를 마비상태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은 이를 복구시키기위하여 백방의 대책과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쏘련군과 쏘련기술자들의 방조가 가장 큰 부문은 조선산업발전의 기간으로되는 철강부문입니다。

우선 황해제철소의 실례에서 보는때 코크스로 二기지복구와 조업방식개선은 쏘련기술자들의 특출한 기술적방조에 의한것이었을뿐만아니라 쏘련정부는 코크스용탄을 다량적으로 공급하여주었습니다。

더우기 용광로 개축공사에있어서의 쏘련기술자들의 기술적지도는 드디어 우리손으로 선철을 생산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강부면에 있어서의 쏘련의 끊임없는 방조는 강선제강과 성진제강소의 복구사업에 있어서도 가지가지의 위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것입니다 기타 파괴된 탄광 광산의 복구운영에있어서의 기술적물질적방조와 더부러 제련부문에있어서도 쏘련기술자들은 막대한 역활을 담당하였습니다。

흥남제련소의 전기닉켈의성공 남포제련소 아연공장의 일제수준이상의 생산성제고는 오로지 쏘련기술자들의 은공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흥남비료공장의 류산공장 보수에있어서도 이를 기술적으로 보장하여주었으며 류안생산의 효률을 높이기위한 쏘련기술자들의 기술적지도로인하여 一九四七년도 년간생산계획 초과달성과 류안생산량 一개월단축달성의 개가를 드리게 하였던것입니다。

어밖에도 전체산업부문에있어서 쏘련의 기술적 물질적 방조는 한량없이 거대한것이 있었습니다。

운수부문에 있어서는 八·一五직후 일제의 고의적 파괴와 전재등으로 약 五、〇〇〇차량이 사용불능이었는데 쏘련군 철도부대는 정지상태에 있었던 철도복구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철도수송사업상 가장 애로로 되어있는 평원선에는 전체역과 기관구등 현장기관에 자기군대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배치하여 우리철도종업원과 함께 탄질불량 차량고장등을 극복하여가면서 해방전 수송수준의 二배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쏘련의 부다한 방조밑에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속에서 조국과 인민을위한 정치적열성과 생산의욕이 제고되었으며 국가의 전체자원이 인민의 물질적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에 리용되었으며 반동의 경제적토대를 근멸하게되었습니다。

동무들!

민주건설의 三년동안에 쏘련군의 성의있는 원조하에서 우리는 농촌경리나 산업경제부면에서만 거대한 성과를 전취한、것이아니라 교육문화부문에 있어서도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였습니다。

일제통치하에 북조선에는 소학교 一、三七二교와 중등학교와 기술학교를 합한 一一五교에서 겨우九一만명이 공부하였습니다。

학령아동의 대다수는 취학하지못하였으며 二백三十만명이나 문맹자였습니다。

해방후 三년간 인민교육은 장족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북조선에는 소 중학교 四、三二七교에 一백七十四만명이 수업하며 성인학교 一천七백五十八교와 기술전문학교 통신대학 야간대학교등 七十교에 백만여명이 수업하고있으며 해방후三년간 한글학교에서 二백十만여명의 문맹자를 퇴치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북조선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十一개대학이 자랑높이 솟았으며 一만여명의 대학생이 수업하고있습니다。

또한 쏘련의 선진과학을 직접섭취하기위하여 六一八명의 류학생들이 쏘련에가서 각분야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쏘련은 북조선의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있어서 거대한 방조를 주었을뿐만아니라 조선의 우수한 교원들로 하여금 쏘련의 교육제도를 시찰하여 선진적 교육리론과 교육방법을 견학습득할 기회를주었으며 금년 대학교수강습회·또는 학술강연을 위하여 저명한 쏘련학자들을 파견하여 북조선의 고등교원과 학술계에 막대한 업적들을 남기였습니다。

우리의 락후된 군중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기위하여 쏘련으로부터 영화필림 영사기 사진화보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지금에와서는 그들의 방조로 우리손으로 영화를 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쏘련은 우리의 보건발전을 위하여서도 다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一九四六년 코레라가 북조선에 침입하자 쏘련적십자、방역대는 이악역을 물리치기위하여 직접 각지역에 동원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하였던 결과 많은 인명을 구원하였으며 병마를 완전퇴치할수 있었습니다。

一九四六년과 一九四七년에 걸친 약六개월간에만 하여도 그들은 도시와 농촌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십만명의 조선인민들을 검병 치료하였습니다。

특히 지적해야할것은 그들은 쏘련적십자병원을 다수히 설립하고 조선인민들에게 모범적인 치료를 가하고있은 사실입니다。

이 의료기관들에서 일제시대에는 전연고칠수없었던 수많은 중병환자들이 완치를 보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건설의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게된것은 —해방후 三년간 끊임없는 방조를준 위대한 쏘련의 진정한 정책에서만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동무들!

위대한 쏘련은 해방후三년동안에있어서 우리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적생활을 근본적으로 전변시키기위하여 부단한 방조를 주었을뿐만아니라 국제무대에있어서도 항상 조선인민의 리익에 합치되는 정당한 주장을 하여왔으며 조선의 통일민주독립의 촉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또 지금도、투쟁하고있습니다。

모쓰크바三상회의에서와 二차에걸친 쏘미공동위원회에서 유·엔총회에서 그어디에서든지 쏘련정부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정부를 신속히 수립하며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의 부흥을위하여 노력하여왔으며 미국정부와 조선반동분자들의 책동으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이 파탄되자 쏘련정부는 조선에서 쏘미량군을 동시에 철거함으로써 외국의 간섭이없이 자기조국의 운명을 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을 조선인민에게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쏘련정부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의 량군 동시철거에대한 요청을 응낙하고 금년十二월말까지 북조선지역으로부터 자기군대의 철거를 종결할것을 결정하고 지금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쏘련정부의 이 결정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에 가장 적응되는것으로서 오로지 레닌의 기치하에 쓰딸린이 령도하는 쏘련만이 이같이 세계대소민족의 자유와 평등 독립과 자주권을 존중하는 정의의 나라임을 다시금 명백히 중시하였습니다。

동무들!

쏘련군대가 우리 북조선지역으로부터 철퇴하게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론을 가져오게 합니까

그것은 북조선의 위대한 민주건설의 성과가 민주조국창건의 튼튼한 담보로되었으며 남북조선인민들의 총의에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쏘련을 위시한 제민주국가들간에 국교를 설정하게된 오늘에있어서 조선인민은 능히 자체의력량으로 인민적 질서를 유지강화하며 자기국가를 운영할수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오늘 쏘련군대가 우리조국으로부터 철거하는것은 위대한 쏘련만이 우리민족의 자주독립과 동등권을 존중하며 우리민족으로하여금 독립국가의 동등한 일원으로 전세계 자유애호인민의대렬에 들어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약소민족의 권리를 존중히하는 쏘련군대가 북조선지역으로부터 철거하고 있으며 전조선인민들이 미국군대 즉시철거를 요구하여 거족적투쟁을전개하고 있는이때 미군의 장기주둔은 하등의 구실도 리유도 없을뿐만아니라 그것은 조선에대한 그들의 침략적의도를 자체폭로하는 이외의 딴것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군의 장기주둔음모는 각성되고 장성된 조선인민들의 일층심각한 증오와 강력한 투쟁을 환기시킬뿐입니다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그의 수상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일층 굳게 뭉치어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억세게 나가는 전조선인민의 력량은 어떠한 힘으로든지 제어하지못할것이며 인민은 승리하고야 말것입니다。

동무들!

오늘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로부터 철퇴하는 조건하에서 우리당앞에는 새로운 력사적의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망국「국회」와 괴뢰「정부」는 소위「미군남한장기주둔요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군의철퇴를 강경히 요구하며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책동을 폭로분쇄하며 국로의완정

과 조국의 통일을 보장하기위한 거족적투쟁을 일층 강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조국에 조성된 현하의 정치정세하에서 우리당앞에 제기되는 중대과업은 우리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정책을 파탄시키며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로 위조된 소위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고렵 분쇄하는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한 이후에 우리당앞에는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위한 더욱 무겁고 어려운 책임이 질머지워 있음을 다시금 각성하여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여된책임을 완수하기위하여서는 우선 해방후三년간 쏘련의 진정한 방조하에서 이루어진 북조선민주개혁의 위대한 성과들을 일층발전시키며 남북조선인민들의 총의로써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그의수상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전체인민들을 가일층 굳게 단결시키며 중앙정부정강의 실현을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강화세킬것입니다。

각급 당부와 당단체들은 전체당원들과 인민대중속에서 편협한 민족주의경향을 배격하고 국제주의적 사상교양을 강화할것이며 특히 쏘련의 위대한 승리와 전세계의 평화와 민주를위한 그의 투쟁과 우리조국의 민주건설을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에게준 그의 진정한 원조를 깊이해석선전하며 조쏘인민의 굳은친선에서만이 우리조국의 행복한 장래가 담보됨을 철저히 인식시켜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당이 대중속에서 가장 위신있고 그들에게서 무한한 신임과 존경을받는 당으로된것은 당이 그활동에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혁명적학설인 맑쓰 레닌주의 과학으로 지도되었기때문임을 재인식하고 쏘련볼쉐위끼당과 쏘련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경험을 더욱 광범히 섭취하여 그를 기초로 새승리를 향하여 더욱 자신있게 더욱 영용하게 전진할것을 전체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갖은 음모와 수단을다한다 할찌라도 새력사를 향하여 장엄한 전진을 계속하고있는 사회주의국가의 위력과 인민적 민주주의의 거대한 승리를 억제하지못할것이며 파멸의 일로에로 전락되고있는 제국주의의 말로를 구원하지 못할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가는 강국으로되었으며 위력있는 국가로된 사회주의쏘련과 민주주의제국가의 단결된 력량과 식민지국가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거대한 장성과 자본주의각국에서의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수백수천만 진보적인사들을 포함한 민주주의운동의 장성은 제국주의진영에 몰락의 말로를 축진시키고있습니다 조쏘인민간의 장구한 친선과 공고한협력은 우리조국과 인민의장래를 부강하게하며 행복과 자유를 담보할것이며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대렬에서 조선인민들로하여금 세계평화와 안전을위한 위업에 기여하게 할것입니다。

위대한 쏘련은 우리조국강토로부터 자기군대가 철퇴한 이후에있어서도 시종여일하게 우리조국의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진정한 우의적방조를 주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전체조선인민과 우리당八十만당원의 이름으로써 위대한 쏘련볼쉐위끼당과 영웅적 쏘련인민과 그의 영재적수령 쓰딸린대원수에게 만강의 감사를 표하며 공산주의승리에로돌진하는 쏘련의 무궁한 번영을 축하합니다。

一、위대한 쏘련인민과 조선인민의 영원불멸의 친선만세!

二、조선인민의 해방자인 영웅적 쏘련군대만세!

三、세계근로인민의벗이며 스승이며 조선인민의 해방의 위대한 은인이신 쓰딸린대원수만세!

북조선민주건설의성과와그에있어서의 위대한쏘련의원조에대한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제四차회의결정서

우리당중앙위원회는 오늘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하는 우리민족의 해방군인 위대한쏘련군을 조선인민과함께 전민족적 감격과 감사의 분위기속에서 전송하며 그의 주둔 三년간에 위대한 쏘련의진정한 원조에의하여 북조선인민들이 쟁취한 민주건설의 성과들을 총화하면서 다음과같이 지적한다。

위대한 쏘련군의 결정적 승리와 해방적역활에 의하여 우리조국은 근반세기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된 우리조국과 인민의 앞에는 우리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며 급속한 기간내에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숙청하며 우리인민들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우리민족으로하여금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대렬에 동등한 일원으로 나설수있게하는 부강한 민주의 자주독립국가를건설할 기본적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이과업들을 실현함에있어서 위대한 쏘련군은 우리조선인민에게 진정한 원조를주었으며 해방의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지어주었다。

쏘련군은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조선인민으로하여금 자기조국의 주인으로 되게하기위하여 일제정권을 조선인민의 수중에 넘겨주었으며 해방직후 조선인민의창의에 의하여 북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수립된 진정한 인민정권기관 인민위원회를 시인하고 그의 활동에 해방의 원조와장려를 주었다。

약소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존중하며 동등권과 독립을 옹호하는 위대한 해방군인쏘련군은 조선인민의 고혈로된 일제적산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

겨주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쏘련군대가 우리조국을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시킨이후에 우리조국의 일체정권을 조선인민에게 넘겨주고 조선인민의 고혈로된 일제의 소유이던 일체재산과 토지를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준조건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천하며 우리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등 위대한 민주개혁늘을 실시할수있게하였다고인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북조선인민들이 해방후 三년동안에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민족문화를 재생발전시킴에있어서 쟁취한 성과는 오직 위대한 쏘련정부와 쏘련군대가 조선인민에게준 진정한 원조의 결과라고인정한다

위대한 쏘련정부와 쏘련군대의 기계 원료 자재상 방조와 기술적방조에의하여 북조선인민들은 해방후 二차에걸친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을 성과있게 실천하였으며 일제가파괴한 운수들을 복구하였으며 다수생산부문에있어서 조선공업의 식민지기형성을 퇴치하고 일제의 생산수준을 초과하였으며 북조선을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자급자족할수있는 지대로 전변시키었으며 장구한 일본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우리조국의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민족문화를 비약적으로 재생발전시키는 일을 성취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오늘 북조선이 우리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는 튼튼한 민주기지로되고 남북조선인민의 총의로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튼튼한 터전으로된 사실은 해방후 三년동안에 정치경제문화방면에서 약소민족의 독립과 권리와 자유를 존중히하는 위대한 레닌 쓰딸린당이 령도하는 쏘련정부와 쏘련군대의 성의있는 원조의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조선인민은 오직 위대한 쏘련군만을 자기의 해방자로 원조자로 인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오늘 우리조국강토에서 철퇴하는 위대한 쏘련군대를 전송하면서 그들의 원조하에서 해방후 三년동안에 조선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성과들은 일층 확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며 동시에 우리의 해방군인 위대한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한 이후에도 그들이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해방투쟁사에 남겨놓은 위대한 업적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치와함께 우리민족만대에 영원히빛날것이며 우리민족의 항일무장운동의 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의 주위에 굳게뭉친 三천만조선인민의 장래와함께 영원히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오늘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날이갈쑤록 더심하여가며 조국과 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등 민족반역자 망국노들의 발악이 더욱 심하여갈쑤록 국토의완정과 조국의 통일을위한 전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은 일층맹렬히 전개될것이며 이투쟁에서 전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기치를 일층높이들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믿는다。

국토의완정과 조국의 통일을위한 이정당한 투쟁에서 우리조선인민은 고립되지 않을것이며 위대한 쏘련을 위시한 제민주주의국가의성원을 언제든지 받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우리조선인민은 우리의 위대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쏘련군대가 우리조국강토에서 철퇴한이후에도 위대한 쓰딸린이 령도하는 쏘련정부는 언제든지 우리조선인민에게 조국의 통일과 국토의완정을위한투쟁에서 원조를 아끼지 않으리라는것을확신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하는 우리의 위대한해방군을 전송하면서 三천만조선인민의 명의와 전당의 이름으로써 위대한 쏘련인민의 수령이며 전세계 약소민족의 친근한벗이며 조선인민의 해방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에게 전민족적 감사와 경의를드리며·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위하여 그의 만수무강을 축복한다。

一、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하는 위대한 해방군인 쏘련군만세

一、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조쏘량국인민의 영원불멸의 견고한 친선만세

一、위대한 쏘련인민의 수령이며 전세계 약소민족의 친근한벗이며 조선인민의해방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만세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하였는가

김 막 심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스승인 맑쓰와 엥겔쓰가 창조한 과학적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투쟁의 경험을 리론적으로 종합화한것이다 과학적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자본수의노예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그의 투쟁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되어있다。

맑쓰는 이미 백여년전 그의 활동최초에 리론은 다만 대중을 파악하자마자 물질적 힘으로된다고 썼다 지나간 백여년동안의 사회력사는 맑쓰주의—레닌주의의 위대한 변혁적 력량을 명확히 인정하여준다 쏘련에있어서 사회주의의승리는 맑쓰—레닌적 리론의 힘과 활동력에 대한 부인치 못할 증거가 된다 쏘베트동맹에서 건설된 새로운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는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의 산 권화(權化) 이다。

과학적사회주의의 발생은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사변으로된다 그는 실지적 혁명과 사회에대한 지식의 발전에있어 새기원을 의미한다 맑쓰주의발생과함께 사회주의는 처음으로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하였다 상상과 더좋은 장래를 희망하는 근거없는 몽상대신에 맑쓰와 엥겔쓰는 명확한 과학적지식을 수립하였다 사회주의는 몽상자들의 허위가 아니고 자본수의사회 발전의 필연적결과라는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독상가(獨想家) 몽상가들의 유산이었던 이전 공상적사회주의리론에 대하여 과학적사회주의는 수천만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기치로 변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이미「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저서에서 이것을 철저히 또는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그는 쓰기를「우선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가 단순히 철학적 학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는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학설이며 그들의 기치이며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를 인정하며 그를「숭배」한다 그런고로 맑쓰와 엥겔쓰는 단순히 어떤 철학의「학과」의 창조자로서만 되는것이아니라 그들이 나날이 장성하고 확고하여 가는 활발한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산수령이다」(쓰딸린전집 제一권 로동당출판사판 三九七—三九八페지)

맑쓰의 과학적사회주의는 례외없이 모든 이전 사회주의적 리론과는 근본적 차이가있다 일정한 시기에있어 어떤 진보적 의의를 가지었던 공상적 사회주의에대하여 주목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와동시에 력사적 발전에 아무런 현저한 영향을 주지못하는 공상주의자들의 사회주의와 사회의 혁명적 변화의 강력한 무기로써 로동계급이 파악하고있는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이에는 깊은 차이를 볼수있다。

× × ×

레닌은 공상적사회주의의 본질에대하여 깊은 과학적 해설을 하였다 레닌은「유토피아(空想)」는 회랍어다 그런데 문자「유」는 회랍말로「非」를 의미하며「토포쓰」는 장소를 의미한다「유토피아」는 설곳이 없는 공상이며 허위이며 또는 공상은 정치에있어서 정치적 계급적 력량을 장성발전 시키는데 보충되지못하며 또는 사회적세력에 의존함이 없으며 현재나 장래에나 실천할수없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있다」라고하였다(레닌전집十六권 一六三페지)

공상적사회주의는 자본주의발전의 초기에 발생되었다 근로대중의 곤궁과 자본주의적 착취의 공포는 가장 선진인물들로 하여금 새사회를 어떻게 건설할데 대하여 연구하도록 자극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과 로동계급의 계급적 투쟁의 미발전은 그당시 사회주의적 리론의 미숙의 조건으로도 되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죠아제도를 비난하였으며 그를 도덕적 판결에만 붙일뿐이었다 그러나 실제에있어 근로대중의 해방을 보장하는 능력있는 물질적 조건을 발견하지못하며 이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도할만한 그사회적세력을 보지못하고

그들은 관념적 몽상적 사회의 건설과 그의 달성을 위한 방법을 채택하는길에 나서지않을수없었다 공상가들은 현사회제도의 결점을 퇴치함에 있어서 인류관계의 가장 완전한 새제도를 발명하여 그를 사회에 제기함으로써 충분한것으로 생각하였다。

우수한 영국사상가 토마쓰・모르(一四七八—一五三五년)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최초의 대표인물중의 한사람이였다 일부사회의 한량없는 호사(豪奢)와 다른 일부의 빈궁의 주요리유는 개인소유에와 불공평한『재산분배』에 있다고 모르는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에 재산의공유에 의거한 리상적사회를 대조하였다 一五一六년에 발간된 토마쓰・모르의 저서『유토피야』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주었다 그것은 많은 모방을 야기하였으며 또 맑쓰전시대의 비과학적 공상적 사회주의의 제방향이 그 이름으로서 구속되었다。

十九세기초의 三대사상가인 불란서인 싼・씨몬(一七六〇—一八二五년) 푸리예(一七七二—一八三七년)와 영국인 오우엔(一七七一—一八五八년) 등은 후기 공상적 사회주의의 가장 뚜렷한 대표적 인물로써 출현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사회제도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있어 개인적 또는 사회적 리해관계사이에서, 발생하는 분렬적대립 또는 도시와 농촌및 정신적 로동과 육체적 로동간의 과멸적 분렬이 생기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배계급의 도덕 정치철학의 허구(虛構)와 부르죠아적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기와 녀성들의 억압당하는 형편과 부르죠아적교양의 불견고성을 폭로시켰다。

사회의 완전한 재건을 지향하면서 공상가들은 장래사회제도에대한 각종초안(草案)과 계획을 내놓았다 이초안들중에는 여러가지 훌륭한 추측들이 포함되어있었다 엥겔쓰가 지적한바와같이 위대한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자기의 학설이 모든 몽상과 모든 공상주의에 있어 무수한 규정을 천재적으로 예상하였으며 그의정당성을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것이다』(맑쓰엥겔쓰전집二五권一四二페지)

그러나 이추측에도 불구하고 공상주의자들의 관찰력은 그당시 사회의 제한성을 반영하는데 그치었다 례를 들면 토마쓰・모르의 저작『유토피야』에는 기술적 진보의 사상이 결핍되었고 중세기의 기업을 리상화 한것인바 장래사회에있어서 사회적생산

의 기초위에서 변화한것이다 이러한 천박성은 소유에관한 문제에 대한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서도 발견할수있다 개인소유의부인과 사회소유의 인정은 거의 모든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 특성을 구성하는것이다 그러나 많은 공상적사회주의의 대표적인물들은 이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철저하지못하였던것이다 례를 들면 싼・씨몬과 푸리예는 사회적소유와 함께 개인소유를 시인하며 그를 거부치않았다 푸리예의『공산단체옥사』에는 각종직업과 각종사회성분을가진 일정한 수(一五〇〇—二〇〇〇)의 사람이 집단되어야 할것이였다 푸리예의 계획에 의하면『공산단체옥사』의 전체수입은 세 부분으로 분배된다 즉 十二분지五는 로력에의하여 분배되며 十二분지四는 자본에의하여 十二분지三은 재능에따라 분배를 받게된다 싼・씨몬은 자기의 장래의 사회의 계획안에 개인소유 고용로동 고용주의 리익등을 보존시켰다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계급착취의 근본적 원인을 인식치못하고 착취의 절멸이 아니고 불평등의 폐기를 제一위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상주의의 주요한 결점은 장래사회에대한 그의 관념의 천박성 또는 철저치못한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주요한 그의약점은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들이 제출한 사회개조에대한 모든안들이 다만 호의적 희망과 공상의 과제로 남아있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이 안들을 실지생활에 부합시키기위한 모든 노력은 이미 실패에 돌아갔으며 또는 필연적으로 전적으로 파산을 당하고 만것이다。

례를 들면 一八二四년에 오우엔이 기도하였던 공산집단조직에대한 노력도 이와같이 된것이다 그는 미국자치주 인디안자치주에 정비된 소유지를 사고 거기로 자기의 지지자(支持者)일행과 함께갔다 공산거류민단(共產居留民團)을 조직하려는 다른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 집단들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속히 파산을 당하였으며 또는 자본주의적 기업소로 재생되고 말았다。

현존하고 있는 공동하숙의 형식을 부인하고 새사회적 형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공상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그들의 표현하는 제도의 우월성을 군중들께 인식 시키는것으로만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사회의 전체성원에게대한 선전사업에 주목을 돌리였다 공상주의자들은 자기를 현재사회의 계급적 대립보다 더높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들

은 소박하게 그들의 호소에 누구보다도 우선 사회의 유산계급 지식계급층이 호응 할것으로 희망하였다。

례를들면 푸리예는「공산단체옥사(共産團体屋舍)」의 토대를 세우기위하여 기부금요청에대한 서한을 나포레온과 은행주 로뜨실드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는 겸허(謙虛)하게 누구든지 그의 호소에 호응하리라고 기대하고있었다 녀왕 빅토리아와 기타 구라파의 군주(君主)들을 자기의 리상실천에 끌어넣으려던 오우엔의 노력은 역시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맑쓰주의―레닌주의의 고전작가들은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들의 모든 계획의 필연적 파산의 원인에 대하여 완전한 해설을 주었다 이파산의 중요원인은 공상주의자들이 사회발전의 현실적 법칙을 몰랐으며 그들이 자기의 계획들을 생활에서 분리시켜 작성하였으며 또는 객관적법칙에 배치(背馳)하여 활동함에 있은것이다 쓰딸린동지는 공상적 사회주의는 사회생활의 법칙을 발전하지못하고 다만 생활의 표면에서 비상(飛翔)하였을뿐이며 또는 현실과 견실한 련락이 필요되는 때에 다만 높은곳을 지향할 뿐이였다」라고 썼다(이·쓰딸린전집 제一권 一一一二페지)

공상주의자들은 력사발전에대한 자기의 견해에있어 관념론자들이었으며 력사를 과학적으로 또는 유물론적으로 인식하지못하였다 공상주의자들의 유심론은 무엇보다도 우선 력사경로의 본질에대한 그들의 견해에서 판명(判明)된것이다 이와같이 푸리예의 사회주의적 견해의 기본에는 세계에대한 유심론적 목적론적 해설이있는것이다 푸리예의 견해에의하면 세계는 합목적성(合目的性)으로 조성되였으며 또는 일치적으로 신(神)의 계획에 의하여 발전된다 싼·씨몬과 싼·씨몬의 지지자들의 견해에의하면 정신적 발달과 세계관의 계통및 도덕적원칙의 교대는 력사의 원동력이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들의 력사적 제한성과 사회생활의 법칙에대한 그들의 무식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근본적 결점을 초래케하였으며 또는 그것이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위한 로동운동의 의미와 로동계급의 역활을 리해치못하게한것이다 공상주의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해와 련결시키지않았던 싼·씨몬、푸리예、오우엔등

의 견해에 대하여 엥겔쓰는 이렇게 썼다「전체 세 사람들 사이에 상사한점은 그당시에 력사적으로 발전되고있는 로동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자기를 내세우지않은 거기에있다」(맑쓰、엥겔쓰전집 제一五권 五〇九페지)

그들은 다만 로동계급을 가장 빈궁하고 신음하는 인간층으로만 보았으며 그에게 어떠한 자주성과 혁명적 위력이있음은 예상하지도 못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들은 시기、장소、조건을 불문하고 사회주의의 실천에대한 공상을하는 독상가―철학가들로서 인민 대중의 실제적 운동과 분리된방면에서 활동한것이다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허위적 철학적 사상으로써 성숙한 력사적 요구―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변혁에 봉사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보다도 그들은 자기의 모든 희망을 사회주의의 사상에대한 평화적 전도(傳道)에 두면서 사회의 혁명적 재건에 대한 가장 필요성을 부인(否認)하였다 유명한 불란서 사회주의자 에찌엔·카베(一七八八—一八五六년)는「만일 혁명이 나의 수중에 있었다면 나는 류형(流刑)에서 죽을 경우에 봉착하였다하더라도 손을 펴지않았을것이다」라고 솔직히 말하였다。

왜그러냐하면 공상적 사회주의의 리상들은 력사적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갔기때문에 실제에서 그들의 파산과 력사적 운명은 더욱더욱 현저하여졌다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의의는 력사적 발전에대하여 역행(逆行)하는 관계에 처하여있다고 맑쓰와 엥겔쓰는 말하였다「계급들의 투쟁이 발전되며 점점더 일정한 형태를 띄는 정도에 따라서 그 투쟁의위에 초월하려던 공상적지망과 그 투쟁에 대한 이 환상적(幻想的)부정적태도는 온갖 실천적 의미와 온갖 리론적 정당성을 상실하는것이다」(크·맑쓰、프·엥겔쓰의「공산당 선언」一九四八년도판 九七페지)

로동계급의 계급적 투쟁의 전개와 과학적 사회주의의 세력장성으로 인하여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기의 진보적 의의를 잃게되었으며 또는 로동계급운동에 있어서 악질로 변하였다 날이갈수록 그는 더 악화되어갔다「그렇기때문에 만일 이체제의 창조자들이 모든점에있어 혁명자이었다면 그들의 후계자들은 언제든지 반동적 종파를 조직하였다」라고

맑쓰와 엥겔쓰는 지적하였다。

맑쓰주의가 정치적 활무대(活舞台)에 출현한후에 공상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로동운동의 발전에 방해를 놀면서 점점더 반동성을 취하고있었다 一九세기초의 위대한 공상가의 후계자들은 무산계급의 장래력사적 발전을 회고치않고 자기의 선생들의 견해를 강경히 주장하려고 반동적 망상자들의 제종파(諸宗派)를 조직하였다 자본주의제도에대한 모든 비관을 거부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적대적 계급들을 융화(融和)시키기위하여 또는 계급투쟁을 마취시키려고 전력을 다하여 로력하였다 그후에있어 공상적 체계의 이 악질적 방면들은 로동계급의 적들인 무정부주의자、인민파、사회혁명당원들에 의하여 파악되었다。

× × ×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변케한것이 로동계급 혁명의 현명한 리론가들이며 과학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가들인 맑쓰와 엥겔쓰의 위대한 공헌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하고 맑쓰와 엥겔쓰는 세계력사의 전과정에 의하여 十九세기에 인류앞에 제기된 여러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맑쓰의 학설은 전능(全能)하다 그것은 정당하기때문」이라고 레닌은 저술하였다 모든 이전(以前) 철학적 또는 사회학적 계통과는 상위하여 맑쓰주의는 사회생활의 정당하고 유일한 과학적 해설을 주었으며 또는 장래에대한 자기의 결론을 자유적 요망이 아니고 사회발전의 제객관적 법칙에대한 엄연한 과학적 설명에 의하여 하였다。

맑쓰와 엥겔쓰가 자기의·학설을 수립한 즉 一九세기 四〇년대 당시에는 로동계급은 벌써 중요세력을 가진 계급으로 변하였으며 또는 자립적 투쟁의 활무대에 나섰다 一八三八—一八四二년에는 영국에있어 로동운동은 거대한 발전을 가지게되었다 一八三一년과 一八三四년에는 불란서에서 「고역하며 사느냐 싸워서 죽느냐」라는 구호밑에서 리온로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一八四四년에는 목일에서 찌레지야직공들의 폭동이 일어나게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로동운동의 약점은 그것이 아직도 자연적임에 있은것이다 로동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계급적 리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원쑤를 반대하여 꼭 투쟁할것인가를 명확히 알지못하였으며 자기의 고유한 정당이 없었던것이다。

맑쓰와 엥겔쓰의 천재성(天才性)은 그들의 로동계급의 첫진출을 전세계사적의의를 가진 운동의 시초라고 명백히 판단한 거기에있다 그들은 로동계급에게서 자본계급의 묘굴인(墓掘人)으로 나설만하며 새로운 사회 즉 공산주의적 사회의 창조자로 나설만한 그 실제적 힘을 발견한것이다 맑쓰주의가 발생한 그때로부터 사회주의사상을 대중적 로동운동과 련결시킬수있은 가능성을 보게되었으며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운동과 대립하였던 이전 사회주의적 리론의 결함 또는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계몽되지못하였던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 로동운동의 약점을 극복할수 있었던것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두개의 거대한 발견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천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즉 一、력사에대한 유물론적 리해력의 수립 二、잉여가치론 발견에대한것등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처음 사회과학의 력사에있어 사회발전의 실제적 법칙인식에 기초한 사회에대한 과학을 수립하였다 사회력사의 연구에있어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을 리용하여 맑쓰와 엥겔쓰는 인류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복리를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은 인류의 전사회생활을 규정하여 또는 한 사회제도로부터 다른 사회제도에로 전환하는 조건이되는 주동력이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사회에대한 맑쓰주의적과학은 사회현상을 비과학적 유심론적 설명에 근거한 이전의 철학적 또는 사회학적 계통과 직접 배치(背馳)되는것이다 력사에대한 유물론적 견해는 이전 철학과 사회에대한 과학을 결정적으로 부인한 결과에 발생되었으며 그는 사회생활에대한 사람들의 견해에있어 전적혁명을 의미하는것이다 맑쓰가 발견한 력사에대한 유물론적 견해로 인하여 사회발전에있어 부분적 우연적·사실이 서로 관계되지 않는다고하던 관념은 폐기되고 그것이 법칙적 과정이라는것이 목전에 나서게되었다。

사회에대한 유심론적 견해가 공상적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로 나서게된 그때에 력사의 유물론적 견해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철학적기초를 구성하였다。

사회의 력사를 무엇보다도 우선 물질적 생산발전의 력사로 인정하면서 맑쓰주의는 력사의 창조자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고있는 일부현명한 개인이아니라 물질적 복리의 생산을 실지로 실현하고있는 인민대중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것은 사

회발전의 력사가 동시에· 물질적 복리자체의 력사인바 즉 생산행정의 기본적 력량이며 사회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복리를 생산하는 근로대중의 력사이다……그런즉 만약 력사과학이 참된 과학이 되려고 할진댄 그는 사회발전사를 이 이상더 제왕과 장군들의 행동에나 국가의「침략」및「정복자」들의 행동에 귀착 시킬수 없는것이며 그리고 우선 물질적 복리의 생산자들의 력사……즉 근로대중의 력사 인민들의 력사를 반드시 연구하여야 할것이다」(레닌주의제문제 제三권 三九七페지) 라고 쓰딸린동지는 결론을 지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들인 맑쓰와 엥겔쓰는 자본주의를 고찰함에있어 우선적으로 그들의 현재사회에서 물질적 복리、생산자들의 근본적 계급인 근로계급에대하여 주의를 돌리었다 사회적 생산의 체제에서 로동계급의 처지에대한 심각한 분석에 의거하여。맑쓰와 엥겔쓰는 현재 부르죠아와 대립하고있는그 모든 계급들중에 다만 로동계급만이 자본주의의 묘굴인(墓掘人)의 역활을 실행하기에 기능있는 실제적 혁명적 계급으로 출현할수 있다고 확정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과멸과 사회주의로의 전환에대한 필연성을 리론적으로 창시하였을뿐만 아니라「이변천의 지능적 도덕적 발동가며 육체적 실시자는 자본주의 자체가 양성하고 있는 로동계급이다」(레닌전집 一八권 二五페지) 공상주의자들의 목전에는 로동계급이 다만「가장 애처럽고」고통을 받고있는 사회층으로만 보이고있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정면에서 사회주의의 수립과 또는 자본주의의 혁명적 부인에대한 거대한 위력을 발견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들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에 능력있는 력사적힘이 된다는것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었으며 또는 이것이 그의 혁명적자립에 의존하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적 사회에있어 자기 자체의 처지로써 자본주의의 묘굴인 또는 사회주의의 창조자의 력사적 역활을 실행할데대한 준비를 하고있다。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에대한 과학적 설명에있어 또는 사회의 장래발전의 전도에대한 혁명적 결론에 있어 맑쓰가 저술한 잉여가치론이 막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잉여가치발견은 맑쓰로하여금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들이 해명치못한 어떤 자본주의적 착

취의 비밀을 폭로시키었으며 또는 그렇게함으로써 착취의「부정당성」을 구실로 하고있던 공상주의자들에게 존재한 추상적 도덕의 과제에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적 착취의 실제적 조건의 근멸을 위한 투쟁사업으로 변천 시키는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재교육에 의하여· 사회의 평화적 개혁을 설교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맑와쓰 엥겔쓰는 자본주의제도의 폭력적 파괴에 의하여서 또는 로동계급혁명 및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에로 인도하는 비타협적 계급투쟁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는 수립될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부르죠아주권의 혁명적 전복 또는 로동계급을 지배계급에로 변천—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칙에대한 엄정한 과학적 설명에 의거하여 이와같은 확고한 결론에 립각한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혁명적 폭력에대한 역활의 정당한 리해는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천하는 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폭력은 낡은사회가 새것을 배태하였을때에 그의 산과가된다」라고 맑쓰는 썼다(「자본론」一권 一九三五년판 六〇三페지)

맑쓰 엥겔쓰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에서 중요한것은—그것은 즉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대한 학리라고 항상 강조하였다。

력사의 경험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며 착취와 계급적 대립으로부터 사회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진 계급인 로동계급의 전세계사적 역활에과한 맑쓰 엥겔쓰의 사상을 전적으로 증명하였다 자본주의에있어 그의 사회적 및 경제적 형편으로 말미암아 조적지어지는 로동계급의 일과적 혁명성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해방운동에서 로동계급을 전 근로대중의 지도자로 출현케하는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더 발전된 로동계급의 헤게모니에대한 사상은 프로레타리아시기에있어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이 새사회 즉 공산주의적 사회의 근본적 특징들을 맑쓰 레닌주의의 창조자들이 과학적 정확성으로 확립시키었다 공상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사회건설의 리상적 계획을 창작 또는 공상한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발전의 현실적 력사적 과정을 분석한것이다「맑쓰에는 공상을 창작하려는 의도의 그림자도없었으며 또는 알지못할것을 공

데없이 예상하려고도 하지않았다 말하자면 마치 자연실험가가 새 생물적 변종의 진화에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아는것과같이 그것은 이렇게 발생되었으며 또는 이러한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라고 제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맑쓰는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레닌전집 二一권. 四二八페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맑쓰와 엥겔쓰에게는 공산주의적 사회는 어떤 응고(凝固)된 또는 불변한것이 아니었다。

그와반대로 자기의 변증론적 방법의 완전일치에서 또 그들은 장래 사회를 완성 또는 랭각된 형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그는 운동하며 또 발전한다고 관찰하였다 맑쓰의 천재적 발견의 하나는 장래사회가 두 단계를 밟아야한다는 결론이다 즉 제일 최저단계—사회주의와 제이 최고단계—공산주의를 의미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지배적임에 의거한 새 사회제도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 특징들을 맑쓰와 엥겔쓰는 과학적으로 규정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그들의 사상을 더 발전시키었으며 또는 공산주의의 각단계의 구체적 특성과 제일단계에서 제이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표시하였다。

맑쓰—레닌주의는 원칙적으로 또는 새방법으로 장래사회에있어 소유와 평등에대한 제문제를 규정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들은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 소유에 관한것과 또 그에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에대한 문제를 철저히 진술하였다。

「공산주의의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모든 소유를 다 페지하는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적 소유를 페지하는것」(「공산당선언」 조선문판 六二페지)즉 타인의 로력횡령과 착취에 이르게하는 이러한 소유를 의미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가 의존되며 로동계급에대한 부르죠아의 계급적 지배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의 절멸을 맑쓰주의는 요구하는것이다 개인소유에 관한것은 그것이 생산수단의 사유페지와 함께 페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생산 기구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의 절멸과 동시에 견고 하여지는것이다 그 보다도 개인소유는 사회주의에 있어 앞으로의 생산력 발전과 로동 생산력의 향상에 대한 보충적 자극물로

되는것이다 쓰련에 있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경험은 이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맑쓰와 엥겔쓰가 제공하고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더 발전된 평등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운동과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하여 거대한 학리적 또는 실제적 의의가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평등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력사적으로 본다 인간사이에 경제적 사회 정치적 불평등의 기초로 되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조건하에서 평등을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우선 부르죠아의 계급적 지배의 절멸과 착취의 절멸을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평등에 대한 로동계급의 요구의 현실적 내용은 계급근절의 요구에 귀착한다」(맑쓰 엥겔쓰 전집 一四권 一〇七페지)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들은 사회주의에 있어 평등에 대한 다른 견해를 무능한 것으로 본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적 건설에 대한 경험을 종합하여 평등에 대한 맑쓰의 법칙을 더 발전시켰으며 그를 구체화 시키었다 사회주의에 있어 평등은 인간사이에 또는 전체에 대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레닌은 가르쳤다 그는 평등에 대하여 이렇게 단순하게 리해하는 자들을 조롱하였다 「우리는 계급들을 청산하려고 한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평등을 위하여 싸운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인간을 평등하게 한다는 요구 즉 이것이 지식계급층의 무의미한 언사이며 미욱한 허구인 것이다」(레닌전집 二四권 二九四페지)라고 썼다。

제十七차 당대회에서 쓰딸린동지는 소부르죠아적 균등화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면서 이와같이 말 하였다「이들의 생각에는 사회주의가 균등화를 요구하며 사회성원들의 개인생활상태와 요구의 균등화를 요구하는가 한다 이러한 추측이 맑쓰—레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맑쓰주의는 평등에 대하여 개인요구와 생활상태의 균등화를 리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ㄱ、자본가들의 페기 또는 정발된후 착취로부터 모든 근로대중의 평등적 해방 ㄴ、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가 전사회의 소유로 이양된후 전체를 위한 그의 일률적 페지 ㄷ、자기의 기능에 의하여 로력할 전체의 평등적 의무와 이대신에 그들의 로력에 의하여 임금을 받

을수 있는 전체 근로대중의 평등권(새회주의시회)로, 자기의 기능에 의하여 로력할 전체의 평등적 의무와 이대신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공급받을 평등권—(공산주의사회)」(레닌주의 제문제 제一판 四七〇페지)

과학적 사회주의의 사상의 거대한 승리로는 전인류사상에 신시대를 개척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이다 十월혁명의 승리는 지구의 六분지一의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영웅적 투쟁의 시초를 주었다 쏘련에 있어 사회주의의 승리는 쏘베트인민들의 헌신적 투쟁의 거대한 총화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거대한 원칙들은 생활에 있어 실시되었으며 사회주의사상은 우리국내에서 실재화되었다 사회주의는—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의 폐지—이것은 우리국내에서 실시되었고 우리에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계급 또는 사람으로써 사람의 착취의 박멸을 의미하는 것이다—쏘련에서는 착취계급이 청산되었으며 다만 두 우호적 계급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사이에는 계급적 차이가 소멸되며 착취는 근절되었다 사회주의는「각자에게서는 능력에따리 각지에게는 로력에따리」라는 원칙의 실천을 의미한다。

우리는 쏘련에 있어 이원칙에 의하여 생활을 전섭하였며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기초의 지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쏘베트인민의 정신적 생활도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맑쓰사상을 기본으로한 선진적 쏘베트문화를 수립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 있어 또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사상을 실제화하는 사업에있어 력사적 승리를 거둔 쏘베트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쏘베트사회의 지도적이며 주동적 힘이 되는 볼쉐위끼당에 대한 은의(恩義)와 그들의 위대한 수령이며 교사인 레닌 쓰딸린에게 대하여 은의(恩義)가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진실한 맑쓰주의자로 또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천재로써 제국주의 또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대의 새조건에와 및 쏘베트국가에 있어 과학적 사회주의의 실지적 실천의 조건에 적용되도록 맑쓰주의 즉 과학적 사회주의를 더 발전시켰다。

맑쓰적 학리에 대한 장래발전은 맑쓰주의의 본

질 자체에서와 그의 창조적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와는 절대 반대로 준비된 교의의 수집이 아니며 또는 불변적 규정의 합계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는 과학적 종합 및 사적 발전에 대한 현행적 변증법의 반영을 표시하는것이다 맑쓰의 학리는 원작대로의 과학으로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않으며 그는 발전되어야 할것이다。

혁명전시기에 생존한 맑쓰와 엥겔쓰는 사회주의를 오직 학리적으로만 예견한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기에서 또는 사회주의건설의 조건하에서 대중을 지도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발전시켰으며 그를 생활에 부합 시키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제는 물론 과학적 사회주의의 학리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를 새 명제로써 보충하였으며 그의 진부한 약간의 명제를 새명제로 교환할 필요가있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새대의 새모순과 법칙의 연구에 의거하여 또는 쏘련에 있여 프로레타리아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종합하여 맑쓰주의를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새결론으로 보충함으로써 풍부케하였다 맑쓰학리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이미 진부(陳腐)한 그의 학리의 약간의 명제와 결론을 새력사적 정세에 부합되는 새 명제및 결론으로 바꾸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학리에 대한 귀중한 기여는 한국가에 있어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학설이다 이 학설에 지도되면서 볼쉐위끼들은 용감하게 또는 자신있게 一九一七년 十월에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혁명에 궐기시켰다 맑쓰주의의—레닌주의의 보고(寶庫)에 대한 거대한 기여(寄與)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 일국가내에 공산주의의 건설이 가능하다는데 대한 쓰딸린동지의 결론이다 이결론은 쏘베트인민앞에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광명한 전망을 열어주었다 그는 쏘베트인민에게 공산주의로의 급속한전진을 위한 투쟁에 있어 헌신적 노력을 하도록 고무하였다 사회주의국가에대한 맑쓰—레닌의 학설을 쓰딸린동지가 창조적으로 진전시킨것은 거대한 학리적 또는 실제적 의의가있다 즉 국가발전의 계단에대한것 쏘베트사회발전의 각계단에 있어 그

기능의 변천에대한것 자본주의적 포위가 존재하고 있는한 공산주의에 있어서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등이다。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전세계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이다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리론의 정확성과 생활력을 실지에서 증시하였다 쏘베트사회주의사회의 존재와 발전은 자본주의는 현재에 있어서 력사적인 시대착오라는것과 그는 멸망의 시기에 이미 도달하였고 그리고 몰로또브연설에서「우리들은 모든것이 공산주의에로 통하고 있는 그런 세기에 살고있다」는것을 명백히 확신 있게 증명하여 주고있다。

쏘련에 있어 사회주의의승리의 거대한 의의는 그가 근본적으로 우리인민의 생활을 개혁한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는 전인류의 운명에와 세계사의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승리는 사회주의가 현재에 있어 오직 전세계 로동계급의 정신적 무기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쏘련을 대표로하는 력사의 백전백승의 물질적 력량인것을 의미한다 팟쇼독일과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한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의 승리적 종결 및 동남구라파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승리 민족적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기치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승리적 투쟁을 전개하는 식민지민족들의 새각성—이 모든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백전백승의 력량을 증명하는것이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승리는 쏘련에 있어서 실천된 전부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실천할수있다는것을 전세계에 표시하는것이다. 승리한 사회주의국가의 위대한 실증은 자본주의세계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거대한 혁명화적 영향을 주고있으며 그들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반동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돌진시킨다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현재 자본국가에서 수천만의 프로레타리아와 근로대중들이 더욱 더욱 파악하고있다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각국 공산당들의 성과는 이것을 명백히 증명하고있다 각국 공산당들의 대렬은 확장되며 공고하여진다 그들의 프로레타리아들과 근로자들의 광범한 대중에대한 영향은 장성된다 공산당이 결정적세력을 장악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에서만 아니라 불란서 이태리 중국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자의 리익을 위한 진정한 보호자로 또는 영미제국주의정책과 제국주의 종복자들인—사회주의를 가장하여 자기의 제국주의정책을 옹호하는 우익 사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도적 세력으로 프로레타리아대중은 공인한다。

과학적사회주의는—이것은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투쟁에 그의 기치로된 인류천재의 위대한 전과이다 쏘련의 근로자들은 과학적사회주의의 불멸적 또는 백전백승의 사상을 지침으로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였으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인민민주주의국가내에있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의 기치하에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다 사회주의의 기치하에서 전세계 프로레타리아와 피압박 인민들은 투쟁하고있으며 또한 승리할것이다。

(「몰로또이 볼쉐위끼」지 一九四八년 제五호에서)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체계와 그 경제법칙들의 특질

노·실린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체계는 자본주의적경제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적경제체계는 다음과같은 기본특징으로 론증된다。

자본계급주권은 전복되어 로동계급의 주권으로 바뀌었다 로씨아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승리의 결과에 수립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자본가들에게서 생산기구와 수단 즉 공장 제조소 토지등을 몰수하여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에게 넘겨준 세력으로 되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쏘베트제도의 경제적 기초를 창설하였다。

쏘련에서의 생산발전은 자본주의적리윤의 보장과 경쟁의 원칙에 복종되는것이아니라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수준의 계속적향상과 계획적지도의 원칙에 복종된다 인민수입의 분배는 어떤 착취계급과 그들의 무수한 기생적비복(婢僕)들을 풍족케하는것이아니라 로동자와 농민의 물질적형편의 계속적제고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 복리(福利)분배는 「각자에게는 로력에의하여」라는 원칙에 의하여 실행된다。

쏘련국내에서 확립된 사회주의적소유의 절대적 지배는 착취계급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일을 근절함에 이르게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때까지 인류력사에서 보지못한 쏘베트사회의 새계급적구성이 발생하였다 지금 쏘련은 두계급—두친선적계급—로동계급과 농민계급으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쏘베트인테리들도있다。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소유의 승리는 생산관계의 자체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자본주의적착취의 노예적기반에서 해방된 쏘련의 근로자들은 착취자들의 리익을 위한것이아니라 자기와 자기사회를위하여 창조하며 자유롭게 창조할 완전한 가능성을 얻었다 쏘련에서 로력은 명예이며 용감성과 영웅성으로되었다 사회주의조건에서 생산관계는 착취에서 해방된 일군들의 사회주의적 호상방조와 동무적 친선관계로써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것이 경리의 사회주의적 경제체계의 내용이다 여기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있는것이다 대자본주의국가들은 장성하는 경제공황에 처하여있는때 쏘련은 경제건설의 결정적성과들을 달성하여 공황의 위험이없는 장성하는 경제향상의 길로 나가고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은 쏘련에서 전전 경제건설기에 표현되었다 그것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가일층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치렬하고 류혈적 전쟁에서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생활능력의 시험은 진행되었다 우리 쏘베트사회와 국가제도 쏘베토무력은 승리하였다 전후에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전쟁의 상처를 급속히 치료하며 공산주의로 향한길로 앞으로 성과있게 전진하도록 하였다。

一、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법칙의 특질

자본주의사회의 기본모순은 부르죠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트계급사이의 모순이다 이모순은 타협할수없는 적대적 성질을 가지며 다만 부르죠아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승리의 결과에서만 절멸할수있다。

생산수단이 개인소유의 지배하에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은 두개의 중요한 특질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이법칙은 사람의 의식과 욕망과는 별개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려는 자연발생적으로 동작하는 법칙(가치법칙、잉여가치법칙、로동임금、생산가격)이다 둘째로 이는 소수가 사회의 대다수 인원을 착취하는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것이 특정이다 물론 우리 의사가 사회법칙에 관계없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에있어서는 자연생장적 불가피성에서 의식적 필연성으로의 전환이 수행되는것이다 당과 쏘베트국가는 경제발전법칙을 인식하며 그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행정에서 리용한다 이는 자연발생적 형태에 있어서 고유한 경제법칙인 그런 비용이없이 생산력발전을 앞으로 미증유의 급속한 속도

로 전진시킬 가능성을 주는 쏘베트경제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도 자기발전과정에 모순이있다 그러나 이모순들은 적대적성질이없는 전혀 다른 모순이다 이모순들은 사회주의제도의 기초가 공고 발전하는 행정에서 자본주의잔재들에 대한 투쟁과정에서와 쏘베트사회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점진적 운동의 과정에서 극복되며 해결된다。

생산의 사회주의적방식은 과거사회기구에서는 없던 새경제적법칙들을 발생시켰다 이와함께 쏘베트경제에서는 과거사회기구에 고유하고있는 약간의 경제법칙들이 변혁된형태로 작용하고있다 이제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의 몇가지를 고찰하자。

(1) 계획화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적 지도는 사회주의의 중요한 경제법칙의 하나이다 맑쓰는 인민경제부문에서의 계획적조절과 로력분배는 집단적사회에서의 첫경제적법칙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지적하였다 쏘베트경제조건에서의 계획화의 거대한 의의는 전로국가전기화(全露國家電氣化)의 첫 원대(遠大)한 계획의 창의자이며 고무자인 브·이·레닌이 부여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경제계획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리고 사회주의전설에서의 계획적역할의、분석은 쏘딸린동지가 자기저작에서 주었다 쏘딸린은 기술—경제적관계에서 락후된국가를 위력한 공업과 농업강국으로 전환시켜 쏘련의 전모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전쟁전 三개 五개년계획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이다。

조국전쟁시기에 쏘베트인민은 쏘딸린적지시와 쏘딸린적 계획에의한 전시 경제를 발전시켰다 쏘베트경제의 전후발전은 새五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는데 쏘딸린은 그의 주도자(主導者)로써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의 위업에 인민을 고무시키고있다。

자본주의에있어서는 사회적범위에서 경제적관계의 계획적조직은 불가능한것이다 그것은 일부 개인자본가들이나 또는 자본가그루빠의 개인소유와 자본가들사이에 무질서와 경쟁으로 분렬을 격화하기때문이다 거기에서는、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연발생적 경제법칙이 지배하고있다 생산수단이 개인소유가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에서 계획을 여러번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어떠한 현실적 경제력에도 립각치 못하였으므로 다만 생각뿐이었다。

계획화는 다만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한것이다 더우기 생산의 사회주의적 방식은 객관적으로 경제적필연성과 사회주의적경제발전의 법칙에의하여 계획을 만드는것이다。

쏘련의 경제생활은 사회적자원의 증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쏘련독립의 강화와 그 국방력강화의 관점에서 국가인민경제계획으로써 규정되며 지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자연생장법칙—리윤의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경쟁과 생산과 생산가격과 리윤의 평균표준량법칙은 폐지되었다 그들은 계획적 지도의 원칙으로 교체(交替)되었다 계획화—이는 우리의 욕구뿐만아니라 불가결한 것이다 쏘련경제와같은 이러한 거대한 경제는 유일한 지도가없이 존재할수없으며 발전할수없는 것이다。

쏘련인민경제의 계획적지도의 행정에서 사회주의의 경제법칙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인식되였으며 의식적으로 리용하고 적용한다는것을 특별히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경제발전의 요구가 새로 성숙된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은 볼쉐위크당의 참모부—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와 그의 지도자 쏘딸린동지가 해명하였고 방식화하였으며 경제건설문제에관한 당과 정부의 방침에서 그것이 표현되었다 국가기관들이 규정한 기한과 관련된 숫자에 표현된 계획의 량적 질적 지표의 체계의 건지에서 지역적 및 부문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계획에서 당의 지도적지시들은 변화된다。

계획적으로 규정된 사회주의건설의과업들은 대중으로하여금 해석하며 계획실행과 초과실행에 대중을 동원하며 근로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자각있고 열성있는 참가자로 되게한다 쏘딸린동지는 「생산계획은 숫자들이나 말긴과업들을 렬거하는데 귀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일이다 사실상 생산계획은 수천만사람의 활발한 실천적 활동인것이다 우리생산계획의 현실성—이것은 곧 새생활을 창조하는 수천만의 로력자들인것이다 우리강령의 현실성—이것은 곧 산사람들이며 이것은 곧 우리와 여러분들이며 로동에대한 우리의 의지이며 새방식으로 일하려는 우리의 준비성이며 계획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결심인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계획은 다음과같은 목적을 세운다。

가、자본주의세계로부터 사회주의경제의 자립과 독립을 보장하며

나、사회주의경제체계의 절대적 지배를 고착하며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모든 원천과 기관(機關)을 폐쇄할것이며

다、인민경제에서 불균형을 용허하지않는다

계획적 사회주의경제는 불의(不意)의 반작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못하였다는것을 고려하여야되겠다 이를 극복하기위하여서는 쏘베트국가에는 항상 예비산품이 반드시 있어야된다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착오와 중단이 국가의 정상적 경제발전에 위혁을 조성할수있는 까닭이다。

쏘련국내에서 계획화의 이러한과업들은 이상과같은 의의를 가진다。

(2) 로력에의한 분배의 사회주의적 원칙

공산주의 최저단계—사회주의를 생각하면서 맑쓰는 분배방법을「…바로 그사회—생산기구(機構)와 생산자의 력사적발전단계의 성격에 따라서 변경될것이다」(자본론 제一권 三六폐지)라고 했다 로력에의한 분배의 사회주의적 원칙은 생산의 사회주의적방법의 최고정도로 적응되는 분배의 방법이다。

자본주의에있어서 로동력은 상품으로된다 때문에 로동자는 로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로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지불받는다 쏘베트사회주의조건에서의 기본생산력—사회주의국가를 대표한 로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기때문에. 상품으로 되지않는다 때문에 지불(로동자에게는 로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자본가에게는 그의자본액에 의하여)의 자본주의적원칙은 로력에대한 지불의 사회주의적원칙으로 교체되었다 쏘련에서는「각자로부터는 그의기능대로 각자에게는 그의 로력에의하여」라는 사회주의적 원칙이 실천되고있다。

로력에의한 분배의 사회주의적원칙의 의의는、사회주의단계에서 생산력발전의 결정적 동인으로 되는 자기로력에서 일꾼들의 물질적 관심을 가지게하는데에 있다。

자본주의 행정에있어서는 개선(改善)이라는데대하여서는 다만 자본가들과 그의 충복들만이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향상되는데에서 리익을 얻기때문이

다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먼저 일꾼들의 자기로동에서 진정한 물질적 리해관계를 창설한다 왜그런가하면

가、사회주의 사회의 일꾼은 착취자들을 위한 것이아니라 자기와 자기국가를위하여 일하며

나、로동력이 상품으로 되지않는 조건하에 있어서는 사회적생산품에서의 사회주의적 사회일꾼들이 지불받는량은 그가 사회에 리익을 주는 그의 로동의 질과량에 따르게된다。

다、로동자들의 로동으로 생산된 부산물은 개인적요구의 기본 기금으로 투자되지아니하며 또는 기생적계급의 비용과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확장하는데에 들어가는것이아니라 근로자들의 공동한 요구와 생산확장 쏘련근로자들의 물질과 문화적수준향상 쏘베트동맹의 국방력강화 즉 자체근로자들의 리익에 지출된다 사회주의는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적리해관계와 개인적 리해관계와의 정당한 결합을 위한 조건들을 창설하였다。

국가수중에있는 산업과 농업발전의 결정적 공간(槓杆)으로 되는것은 기업소에서 임금의 도급제와 상금(賞金) 및 기타 형태의 임금과 끌호즈에서의 로력일에의한 분배와 첨부적보수의 각종 구체적형식들이다。

사회주의 조건에서 생산력발전의 중요한 동인(動因)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 경쟁과 그최고형식인 쓰따하노브운동이다 사회주의경쟁의 기본으로는 우의적협조와 사회주의적호상원조의 원칙이있는것이다 사회주의의경쟁은 물질적조건에의하여 제약된다、즉

一、로력에의한 임금의 사회주의적원칙이다 이원칙에의하여 쓰따하노브츠들은 자기의 높은 생산력에 의하여 더높은 임금을 받는다。

二、생산수단에대한 공동소유의 지배적관계에 의거된 사회주의의단계에서의 사회적로동의 성격은 변경된다「우리에게는 사람늘이 착취자와 기생자들의 부(富)를위하여 일하는것이아니라 자기와 자기계급 자기의 쏘베트사회를위하여 일한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로동은 사회적 의의를 가지며 그것은 명예와 영예의일로된다 자본주의시대에있어서 로동은 개인 사욕적 성격을 가진다」(이・쓰딸린 레닌주의제문제四九九—五〇〇폐지)

사회주의의경쟁과 그최고형태인—쓰따하노브운동과의 로동에의한 임금의 사회주의적원칙의 결합은 사회

주의적 생산력 진보의 기초로된다。

(3)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의 계속적 장성

쏘련에서 인민경제는 부단히 증가 발전하고있는데 가장 거대하게 장성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 즉 인민경제의 주요한 부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에게는 실업자들이 오래전에 이미 청산되었으며 로동계급의 복리가 향상되었으며 쏘련의 로동자 꼴호즈원 및 사무원들의 물질 문화적 수준이 개선되었다。

부르죠아사회에서의 생산확장은 지불능력 즉 수요(자본주의국가에서의 근로대중들은 날마다 더 빈곤하여진다)가 저락된 결과 제한된 소비범위에 부닥친다 이는 공황에 이르게한다。

우리들의 조건에서 확대재생산은 전체 사회에 복무하는 방향에서된다 「근로자들의 물질적형편의 계통적 개선과 생산확장이 상시적으로 장성되는 원천으로 되는 그들의 구매력의 부단적장성은 과잉생산의·공황으로부터 로동계급을 보장한다」(이·쓰딸린 『레닌주의제문제』)

쏘련국내에서는 전쟁전시기에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실제로동임금이 부단히 향상되었으며 꼴호즈에서의 로동일공의 가치가 제고되였다 아주 곤난한 조국전쟁시기에서도 쏘베트국가는 로동자(무엇보다도 석탄및 원유산업 흑색 유색금속업 및 군수품공업에서)들의 로동임금의 수준은 제고되었다 전체 쏘련공업에서의 로동자들의 평균봉급은 一九四〇년에 三百七十루블리에서 一九四四년도에 五百七十三루블리로 증가되었으며 당시 석탄산업에 있어서는 七百二十九루블리에 달하였고 흑색야금업에서는 六百九十七루블리에 달하였다。

전후시기에 당과 정부는 인민의 물질적형편의 장래개선에 관하여 결정적 진보를 하였다 화폐개혁실시 식량및 공업산품에 대한 배급제도폐지 국가상업에서의 상품가격저하(절반으로)는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실제임금과 꼴호즈에서의 로력일공가치의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다。

쏘련에서는 로동자들의 실제임금은 자본국가와 달라서 금전상봉급에만 그치지않는다는것을 생각하여야할것이다 이에 첨부하여야할것은 국가는 최후수단으로 병환시의 국가의 지불금 산부에대한 휴가

제 순차적 휴가에대한 국가의 지불 지배인기금의 지불 무료교육과 장학금 지불 기술향상에대한 지출 무료의료상원조 휴양조직 아동기관에대한 국가의 지출 자식이 많은 가족에게대한 보조금 지불등이다 모두 이는 자본국가보다 판이하며 쏘련에서는 로동자들의 평균로동임금에 三八%이상 첨부적으로 증가되고있다。

이러므로 쏘련에서는 사회주의승리에기초하여 국가의 경리생활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의 부단적향상에 복무한다 그리고 이는 한편 국내 생산력발전에 자극을 준다 이모든 원인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문화—물질적수준이 부단적으로 장성하는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불가결한 경제법칙으로된다。

(4)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

자본주의적확대재생산은 두가지의 특징이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순환적 형식으로 실천되며 둘째로 그것은 국가와 일부 기업에있어서 각부문발전의 극단적 불균형으로써 특징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의 기본에있어서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질간의 모순은 자본주의상태에서는 심각하고 피할수없는것이다 이 기본적모순은 생산력의 거대한 소비와 동반하며 전자본주의경제체계의 기초까지 동요시키며 과잉생산의 주기적공황에 이르게한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기초에서 생산력의 특질을 사회주의생산관계에 완전히 적용하는 법칙은 쓰딸린이 발견하였다 쏘련에서는 국가에서 조직한 생산력、로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된다。

쏘베트경제의 공황이 없는 발전과 생산력의 부단적 향상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법칙이다。

이때에 생산기구를 생산하는 부문은 일용품을 생산하는 부문보다 더 급속하게 장성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생산발전에따라서 공업과 농업에서도 생산수단의 비중은 그자연적형태와 가치에의하여 상대적으로 장성하는것이다 즉 힘든 손으로하는 로동은 기계(생산행정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등)로써 교대된다

자본주의확대재생산에있어서 자본의 유기적 성분의 장성은 로동력에대한 수효가 비교적 저하되며 소생산자대중의 파산 실업군이 발생하며 프로레타리아의 절대적 빈궁화를 동반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쏘련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의

련속적 장성은 실업자 청산에로 이르게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의 련속적향상을위한 조건들을 창설하였다。

이와함께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은 자본주의의 최고번영기에 자본주의적축적이 장성한 속도보다 우월한 사회주의적 축적의 련속적장성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적축적의 원천은 사회주의적생산에서 만들어지는 잉여산물(剩餘產物)이다。

쏘딸린은 새건설은 잉여산물이없이는 건설되지못한다고 가르치였다 잉여산물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질천과 국가의 국방력공고와 근로자들의 복리장성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조건하에서 로동자는 자기와 자기가족의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그때문뿐만아니라 생산의 장래확장을위한 필요한 잉여산물을 만들기위하여 생산하는것이다 쏘련에서 인민경제에서의 투자액은 계속 장성된다 一九二七년에는 三七억루블리 一九三二년에는 百八〇억루블리 一九三七년에는 三백억루블리이며 一九四〇년에는 약 四百三十억루블리를 투자하였다 그결과에 쏘련 사회주의산업의 기본기금들이 장성하였다。

사회주의적경제에서의 잉여산물은 여러가지가있다 잉여산물의 현저한 부분은 쏘베트국가가 류통에서 조세(租稅)형식으로 징수한다 그것은 쏘베트국가기업소의 리윤의 형식으로 나온다 꼴호즈에서의 잉여산물은 국가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세금과 수매(收買)형식으로 들어가며 또한 꼴호즈생산의 장래향상에 들어가는 불분배(不分配)기금형식으로 나오는 수입의 일부분으로 형성된다。

사회주의적축적의 표준량은 사회주의건설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기되는 구체적과업들에의하여 쏘베트국가가 규정한다 이에있어서 기본적원칙은 다음과같다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로동임금장성을 초월하여야할것이며

개인소비의 기금과 새로 창설된 생산품의 분배와 생산확장의 기금은 한편으로는 쏘베트경제의 생산력발전의 급속한 속도와 사회주의적축적의 장성을 보장하며 다른편으로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수준향상을 당연히 보장할것이다。

다만 이조건들의 실행에의하여서만 경제관계에있어서 가장 발달된 자본국가들을 따라가며 앞서갈것이며 앞으로 공산주의로 전진하는 운동을 보장하는 쏘련의 기본적 경제과업을 해결할것이다。

(5) 가치의 법칙과 상품—화폐 관계에대하여

사회주의단계에서 가치의 법칙은 아직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개혁된형식으로 쏘베트경제에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에서의 가치의 법칙은 현물계산뿐만아니라 생산비용의 계획 즉 사회생산품생산에대한 사회적로동의 소비되는 금전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에서 숙련과 비숙련로동、정신적、및 육체적로동、국가기업과 꼴호즈에서 로동의 차별이 아직 존재하며 생산품들은 로력의 질과 량에의하여 분배하며 사회—필요한 로동으로 규정되는 가치—여러가지로동은 유일한 지표에 이르게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조건에서 여러가지 부문사이에서의 생산수단과 로력분배는 가치법칙의 작용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실행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인민경제 제부문간의 생산수단와 로력분배는 가치의 법칙들을 리용하는 계획적 지도에 기초하여 실천되고있다 자본주의와 달라서 가치법칙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사람에대한 지배는 자연력으로써가 아니라 사각적 필요로써 작용한다。

가치의 법칙은 쏘베트경제에서 로동에따라서 분배하는 사회주의적원칙실천의 무기로써 사용된다 이원칙은 로동의척도와 소비의 척도에대한 검열이 요구되나 그러나 이는 첫차례로 로력의 통계가 요구되며 사회주의 단계에서 통계는 화폐형식으로 실현되고있다。

동시에 사회주의적원칙은、사회주의적기업소 관리의 독립채산제방식의 기본에있는것이다 독립채산제로 지도하는 사회주의적 기업소일군들은 지출과 수입이 적합하게하며 동일한 단위로 계산할것이며 경리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며 계획을 실행하며 또는 초과실행하며 로동의 생산능력제고 원가를 저하하며 기업소의 수익을 증가할 책임이 있다。

국영 및 공리조합 상업부문에서의 가격정책실행에 제하여 쏘베트정부는 역시 가치의 법칙을 리용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격들은 그의 가치에 반드시 적응할것이라고 인정치말것이다 쏘베트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의 립장에서 한 상품

에대한 가격을 높게 또는 더낮게 제정할수있다 그러나 현시기에 생산한 쓰딸린인민경제의 전체 생산품가격의총액은 이 산품생산 즉 총체적 사회로동에대한 비용에 균등될수없으며 없는것이다。

끌호즈상업에서의 가격들은 국가에서 제정하지아니하고 수요한 공급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끌호즈 시장에서는 교환행정에서 한 상품이 다른상품에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치법칙표현의 자연적현상이 일정한 정도로 보전된다 그러나 쓰베트국가는 가치의 법칙을 리용하면서 끌호즈시장의 경제적조절을 실행한다。

二、사회주의 국가의경제적역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역활은 부르죠아국가의경제적역활과는 근본적으로 판이하다 자본주의에있어서의 지배적계급은 자본계급이다 이런국가들은 그의 경제적욕구를 표현한다 이 자체의 본질에 인하여 국가는 근로대중탄압의 기관과 착취계급의 지배 기관으로 봉사한다。

쓰딸린은 부르죠아국가를 다음과같이 론증하였다 『부르죠아세계에서의 국가의 직능에대하여 망각치말것이다 이는 국방조직과보호 및 질서돈정 조직의 연구소이며 세금 징수기관이다 경제는본래 이외미에있어서 국가의 수중에있는것이 아니고 반대로 국가가 자본주의경제의 수중에 있다』 (레닌주의제문제)

어떤 경제학자들이『국가의 결정적역활은 자본가의 군사경제에 있다』고 하는데대하여 재기된 명제는 잘못이다 부르죠아국가는 독점과 합체하고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실로부터 지금 국가는 어느때든지 제국주의세계의 대자본가 모르간 록펠라 로드실리드 및 기타 두목들의 무리에 종속되고있다。

쓰베트국가는 새형태의 국가이며 그것은 근로자 자신이 자체주권을 대표한다 쓰베트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경제적역활을 하고있다 위대한 조직적력량과 계획적력량으로써 경제발전의 기본적 지도력 및 추진력으로되는것이다。

아직 사회에 착취계급들이 있던 첫단계에서부터 쓰베트국가는 사회의 압도적다수의 리익 즉 근로자들의 리익을대표하였다 그리고 착취계급청산과함께 국가는 전체 쓰베트사회의 대표자로써 출연한다。

생산수단에대한 개인소유폐지와 그를 공동한 사회주의적소유로 바꾼후에 국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기때문에 경제생활에 전권있는 주인으로서 출연한다 즉 이로부터 경제발전의 전행정에서 쓰베트국가의 불가피한 결정적역활이 흘러나온다。

사회주의조건에서의 쓰베트국가주권의 새역활은 쓰베트국가의 다량적 경제─조직적활동에서 자기의 구체적 표현이있는것이다 국가주권의 약간의 직무들은 다음과같다。

국영산업 운수 기계─뜨락또르지정소 쏩호즈를 관리하며 끌호즈에대한 지도 국내의 상품류통조직 가격과 임금정책 로동력과 기사─기수 인재준비와 그의 배치 금전융통과 융통자금─재정체계조직등이다。

쓰베트국가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비상한 역활을 하였다 국가는 군사적일치로 국가를 재전할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방책들을 실시하였다 이재전은 군사─경제적계획에 표현되었다。

위대한 쓰딸린의 총지도에의하여 당 쓰베트정부 및 로동계급의 위대한 로력으로써 군사공업은 一九四二년 상반년에 벌써 상실한 위력을 복구할뿐만아니라 무기 탄약 피복보장은 현저하게 초과하였다 사회주의적공업은 전쟁에서 자기의 과업을 성과있게 실행하였다。

후방과 전선의 사람들은 모두다 공적을 발휘하였다 쓰딸린이 지도하는 전 쓰베트인민의 공동적로력으로써 서방에서는 팟쇼강점자들을 동방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섬멸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후에 쓰베트국가는 평화적 사회주의전설로 넘어갔다 국내 생활은 새 쓰딸린적五개년계획으로 진행되고있다。

자기의 수령 위대한 쓰딸린을 선두로한 쓰베트인민은 공산주의길로 확신있게 전진한다。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의 시대에 쓰베트국가는 거대한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는 쓰베트사회의 경제 문화생활을 지도하며 사람들의 교양을 쓰베트애국주의 정신과 공산주의 정신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장 공고히하며 사회의 일부인원들의 의식에서 락후된 경향과 과거의 원망스러운 잔재들과의 결정적 투쟁을 진행하고있으며 국가적규률을 제고하고 강화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국방력을 강화한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현시기에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사회주의국가의 공고를 제기한다 지금 사회주의의 력량들은 장성하였으며 쏘련은 제국주의와의투 쟁에서 혼자뿐이 아닌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진보의 애로로 되었으며 그리고 벌써 二개 세계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의 모험적정책의 계속이며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주요한 위협으로 된다 이 위협근절의 로선은 지금 벌써 알리어지었으며 이 로선으로 쏘베트국가가 나아가고있다 자본주의세계는 말기에로 가까워온다 자본주의를 교대하여 진보적사회—사회주의가 가까워온다 인류의 진보적 경제적 기초는 다만 인민경제적 사회주의제도 일것이다。

社會主義的計劃化와 價値法則

고・오스뜨로윗짜노브

一

國家計劃은 쏘련에서 『經濟發展法則의 힘』(느・위즈네센스끼『一九四六—一九五〇年 쏘聯人民經濟計劃復興發展五個年計劃』—一〇頁)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쏘聯에서 社會主義를 建設해온 三十年間의 實踐經驗이 證明해준다。

社會主義社會의 經濟法則으로서의 計劃化의 本質은 어데 있는가?

經濟法則은 每個 當該生産方式으로 보아 客觀的 必然性이다 그것들은 經濟現象의 本質、當該社會的 生産關係体系에 固有한 因果關係 및 依存性을 表現한다。

社會主義의 經濟法則은 그 內容에 있어서나 그 發顯形式에 있어서나 資本主義의 經濟法則과는 根本的으로 判異하다。

첫째로 社會主義經濟法則은 資本主義的搾取關係를 表現하는 資本主義經濟法則과는 反對로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社會所有에 基礎를두고 人間에依한 人間의 搾取를 모르는 歷史的으로 發展하며있는 社會主義的生産關係의 表現이다。

둘째로 社會主義經濟法則은 社會主義建設實踐에 意識的으로 適用되고 利用되는 認識된 必然性으로서 그 作用을 發顯하는것이다 한편 資本主義의 經濟法則은 自然 發生的不可避性으로서 發顯한다。

社會主義的計劃化가 社會主義의 經濟法則의 힘을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社會主義經濟로 보아 客觀的必然性인 까닭이다 社會主義經濟의 內在的屬性인 計劃化의 客觀的必然性이라는 이 思想은 맑스、엥겔스、레닌、쓰딸린의 諸勞作에 두면이

表現되어있다。

맑스는 各種生産部門間의 勞動時間의 計劃的分配는 未來의 社會主義社會에서 第一級의 經濟法則으로 되리라는것을 先見하였다。

레닌 亦是 社會主義經濟에있어서 計劃化의 客觀的必然性을 屢屢히 强調하였다『社會主義는 生産과 生産物分配實行에 있어서 數千萬人에게 唯一規範을 嚴格히 遵守케하는 計劃的國家的組織이 없이는 생각할수없다』(레닌全集 第二十六卷 三二五頁)

計劃化의 可能性과 必然性의 深奧한 理論的基礎를 우리는 쓰딸린同志의 諸勞作에서 보게된다 計劃化의 客觀的必然性의 ○思想을 쓰딸린同志는 끌호즈生産을 實例로『農村事業에 關하여』라는 그의 講演에서 자못 훌륭히 基礎지었다 이 講演에서 쓰딸린同志는 農村에서 個人農業經理가 優勢하던 集團化以前時期에는 黨은 農村經理發展에對한 黨의 干涉을 助力忠告 警告等의 個別的行爲에 局限하였다는것을 明示하였다。

農村經理의 集團化以後에 情勢는 根本的으로 變動하였다 이때로부터 黨은 끌호즈의 指導를 自己가 말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끌호즈는 大規模經理다 大規模經理는 計劃없이는해 나갈수없다 數百戶 때로는 數千戶의 農家를 包含하는 大規模農業經理는 다만 計劃的指導의 方法으로만 實施될수있다 이것이 없이는 그것은 破滅할것이며 崩壞될것이다』・(쓰딸린—『레닌主義의 諸問題』四〇三頁)

周知하는바와같이 大量의 生産手段과 勞動力을 集中시키는 모든 大規模生産은 計劃的指導를 要求한다。

資本主義의 根本的矛盾은 生産手段의 社會的所有를 要求하며 中央集權的計劃的指導를 要求하는 資本主義的生産의 增大되는、社會化가 計劃的指導의 可能性을 排除하는 生産手段의 所有、私資本的占有形態와의 間에 漸々더 尖銳한 矛盾에 빠진다는데 있다。

數百數千萬人이 일하고있는 大企業所들—工場、製造所、發電所等—의 絶對多數、生産手段의 絶對多數가 쏘련에서는 쏘베트國家라는 唯一한 主人을 가지고있다 여러百萬의 農民은 끌호즈에 聯合되어있다 이 集團化된 勞動軍의 意志와 行動의 統一은 全社會的規模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産業 및 社會主

義 農村經理에對한 쏘베트國家의 中央集權的 計劃的指導形態에서 達成된다。

客觀的必然性은 이렇게 一般的으로는 모든 法則의、特殊的으로는 社會主義的計劃化의 決定的標徵의 하나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經濟法則의 內容을 다만 이것에만 歸着시킨다는것은 옳지못할것이다。

社會主義的計劃化는 社會主義經濟의 非常히 複雜하고 多面的인 範疇이다。

計劃的原理는 社會主義的 生産諸關係의 全体系를 貫通하며 이 諸關係의 本質的特徵의 하나이다。뿐만아니라 社會主義的計劃化는 社會主義의 經濟的合法則性을 表現하는 人民經濟計劃의 每個經濟的範疇의 本質的特徵의 하나이다。

쏘베트國家는 社會主義經濟法則으로서의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의 表現形態인 賃金을 計劃하며 社會主義經濟에서 改造된 形態로 作用하고있는 經濟法則으로서의 價値의 貨幣的表現인 商品價格을 計劃한다 이것은 社會主義社會의 其他의 經濟範疇에도 妥當한다。

따라서 計劃化는 社會主義社會의 合法則性을 表現하는 社會主義的經濟範疇의 本質的特徵을 構成하는만큼 쏘聯에서 經濟法則의 힘을 가지는것이다。

經濟法則은 一定한 經濟現象의 原因과 推進力으로서 사람의 活動을 決定짓는 動機로서 登場한다 이것은 社會主義的計劃化에 對해서도 完全히 妥當한다。

社會主義的計劃化는 人類史上 前例없는 速度로서 實現되는 社會主義生産의 不斷한 昂揚을 指針하고 組織하고 動員하는 힘으로서 또한 그러므로해서 가장 重要한 原因으로서 또는 動因으로서 登場하면서 社會主義經濟法則의 힘을 가지는것이다。

社會主義的計劃化는 全國的規模에서 數千萬人의 勞動을 組織하며 指針한다 그것은 明瞭한 展望을 가지고 勤勞大衆을 武裝시키고 이 展望으로써 그들을 魅惑하며 그들의 創造的發意를 깨우치며 勞動의 偉勳에로 鼓舞한다。

레닌과 쓰딸린은 恒常 社會主義的計劃化의 이 組織하며 動員하는 힘에 特別한 意義를 賦與하였다。

레닌은 一九二〇年 一月에 全露電化委員會計劃에關하여 國家計劃은『明朗하고도 輝煌한(根本에 있어서는 充分히 科學的인) 展望 例하면—자 일을 시작합시다 十年이나 二十年만에는 우리는 産業이

나 農業이나 할것없이 로씨야全体를 電氣로 만들것이요ㅡ 이러한 展望을 가지고 大衆을 魅惑해야 할것이며 나는 勞動者와 自覺한 農民大衆을 十個年乃至 二十個年의 大綱領을 가지고 魅惑할 必要가 있다는것을 되풀이하는바이다」라고 썼다(레닌全集第二十九卷 四三二頁)

社會主義的計劃化에 있어서의 大衆의 創造的發意와 活動性의 意義는 쓰딸린同志도 亦是 强調하였다

「어떠한 五個年計劃이나 우리制度의 內部에 숨어있는 그 모든 可能性 事業過程에서만 工場、製造所、꼴호즈、쏩호즈、區域其他에서 計劃이 實行되는 過程에서만 開顯되는 그 모든 可能性을 죄다 考慮에 넣을수는없다」ㅡ블쉬위끼 共產黨第一六次全黨大會에서 쓰딸린同志는 이렇게 말하였다(쓰딸린「레닌主義의諸問題」第四一三頁)

社會主義的計劃化가 自己의 動員的役割을 遂行할수있고 生產을 增進시키는 大衆의 創造的發意를 發動시킬수있게 하기爲해서는 計劃作成에있어 落後한 또는 中間的企業이 아니라 先進的企業에、等差平均率이 아니라 機械와 메카니즘利用의 累進平均率에依하여 累進生產率에 依據하여 方向을 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九四七年度 쏘聯人民經濟復興發展의 國家計劃에 關한 쏘聯內閣의 決定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아무것도 動員하지않는 過少한 計劃을 樹立하는 慣習을 決定的으로 暴露、淸算하지 않으면안된다。

國家計劃은 當然히 볼쉬위끼的으로 되어야한다 그것들은 生產에서 達成된 等差平均率위에서가 아니라 累進平均率위에서 計算되어야한다 即 先進的인편에 標準을 두어야한다。

社會主義的計劃化가 우리나라에서 經濟法則의 힘을 가지는것은 우리 計劃이 社會主義的再生產關係의 內在的 因果關係와 依存性을 表現하는 同時에 人民經濟의 個別的部門과 企業間의 勞動 및 生產手段의 分配比例ㅡ共產主義社會建設의 所與段階에서 黨과 쏘베트國家에 依하여 提起되는 經濟政策的諸課業의 解決에 不可缺한ㅡ를 決定하고 實現한다는 意味에서이다。

「經濟政策的課業의 改變과함께 勞動 및 物質的基金의 分配比例도 變更된다 그러나 所與의 課業解決을 爲해서는 이미 設定된 比例를 끝끝내 꾸준히 遵守하지 않으면 안된다」(워즈네센스끼ㅡ「祖

國戰爭時期의 쏘聯戰時經濟」一四六頁)

이렇게 每個 經濟政策的課業은 諸部門間의 勞力및 生產手段分配에있어 一定한 比例를 要求한다 이 客觀的必然性은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課程에서 意識的으로 實現되는것이다。

社會主義的擴大再生產은 產業과 農村經理間에 生產手段의 生產과 消費物資의 生產間에 製品의 生產과 運輸의 發展間에 蓄積과 消費間에 意識的으로 設定된 比例에 基礎하여 實行된다。

資本主義條件에서의 均衡은 資本主義生產의 不均衡的運動에 있어서의 瞬間일따름이다。

資本主義의 諸法則은 그것의 非實現的 方法으로 常時的拒否와 違反의 方法으로 實現된다。

이와 反對로 社會主義經濟의 特異性은 社會主義的生產關係의 擴大再生產이 人民經濟의 個別的部門과 企業들間에 意識的으로 計劃的方法으로 設定되는 比例에 基礎하여 實現된다는 点이다。

이렇게 社會主義的生產方式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와는 달리 計劃的方法으로 設定되는 均衡的發展이 特徵的이다。

그렇다면 不均衡의 可能性은 이로써 排除되는가?

아니다 排除되지않는다 社會主義經濟에있어서도 各種原因 即 經濟機構中의 資本主義殘滓、計劃化의 缺陷 生產의 季節的浮動(例들면 原料 및 燃料輸送의 困難으로因한 冬期數個月間의 季節的生產低下)으로 말미암아 不均衡 또는 收穫의 浮動(例하면 一九四六年凶作으로 因한 困難들)과 關聯된 不均衡이 發生할수있다。

쏘베트國家는 人民經濟發展의 一定한 比率을 計劃함에있어 그것을 自己目的인것으로 考察하지않고 다만 共產主義社會建設의 所與段階에서 提起되는 經濟政策的課業의 가장 迅速하고 가장 經濟的인 實行手段으로 考察한다。

쏘베트國家는 計劃의 超過完遂、計劃에 提起된 經濟政策的課業의 期限前解決을 爲하여 計劃의 組織力 動員力을 利用하는데 自己目標를 둔다。

社會主義的生產의 前衛分子 工場、製造所、꼴호즈 쏩호즈、스따하노브일꾼들은 낡은 標準을 몇배씩 超過하면서 拔群의 前進을 내밟고 새로운 豫備力을 開設하며 그리함으로써 計劃完遂期間을 短縮시킨다。

人民大衆의 運動으로서의 社會主義競爭이 個別的

人民經濟部門과 個別的企業을 不均衡的으로 包攝하는 結果로서도 不均衡은 發生할수있다。

例하면 機械製作部門에서 五個年計劃의 四個年完遂는 金屬、石炭其他生産의 增加를 要求한다 그런데 萬一 製錬工業과 石炭工業이 計劃遂行速度에있어 機械製作보다 뒤떨어진다면 不均衡이 發生한다。

社會主義經濟에서 發生하는 不均衡은 資本主義生産의 不均衡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資本主義의 根本的矛盾을 表現하는 資本主義經濟의 不均衡은 週期的으로 一般的性格을 떠게되며 大量의 生産力破壞와 勤勞者生活水準의 急激한 低下의 方法을 通하여 過剩生産의 資本主義的危機에서 一時的解決을 發見하는것이다 이와 反對로 社會主義經濟에서 發生하는 不均衡은 部分的不均衡의 性格을 떠는것이며 社會主義經濟는 그 克服의 可能性을 自体內에 가지고있다。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社會所有의 支配와 社會主義經濟의 計劃的性格을 힘입어 그것은 全人民經濟를 完全히 包攝할만한 不均衡으로는 成長移行할수없으며 또한 過剩生産의 經濟的危機를 招來할수도없다。

社會主義經濟의 部分的不均衡을 不許하며 淸算하는 가장 重要한 手段의 하나는 生産手段 消費物資 및 勞動力의 豫備力造成이다。

워즈네센스끼同志는 「能熟한 生産計劃化와 生産組織의 가장 重要한 標徵은 生産과 流通에있어서 能力과 旣製商品에있어서 勞動力과 機械에있어서의 豫備力의 造成이다。

生産과 流通에서의 豫備力의 現存은 쏘聯人民經濟發展의 堅固한 計劃的性格을 保障하는것이다(워즈네센스끼—前揭書 一五三頁—一五四頁)라고 말하였다。

社會主義的計劃化의 顯著한 特異性은 그것이 生産發展의 均衡性을 社會主義社會의 問斷없고 더욱더 加速되며있는 生産力發展의 昻揚과 結合시키는데 있다—이것은 資本主義的生産方式의 條件下에서는 實現될수없는 課業이다。

社會主義的計劃化의 組織力 動員力은 大衆의 創造的發意를 發動하고 衝動하면서 生産力의 不斷한 進步와 社會主義的生産昻揚의 源泉으로 되는것이다。

他方으로 經濟政策的課業의 解決에 必要한 人民經濟發展의 均衡性을 保障하는 힘으로서의 社會主義的計劃化는 資本主義經濟에 固有한 非生産的費用

이 없이 이 發展을 實現할수있게하며「힘의 最少限消費를 가지고 人間本性에 가장 값지고 알맞는 諸條件下에서」(맑스) 經濟發展을 指導할수있게한다。

社會主義的計劃化에서 決定的役割을 하는것은 黨과 國家이다『人民、共産黨 및 國家의 日常的인 創造的活動이 없다면 計劃은 죽은 數字의 무덤에 不過할것이다』(워즈네센스끼—前揭書 一四四頁)

人民經濟의 黨的 및 國家的指導는 社會主義經濟法則의 認識、意識的適用과 利用위에 樹立된다。

社會主義條件에서는 政治的 思想的上部構造에주는 經濟的土台의 作用 또는 이와 同等으로 經濟的土台에對한 政治的 思想的上部構造의 反作用의 問題가 새롭게 提起된다 政治的 法律的 및 思想的 上部構造에對한 經濟的土台의 規定的役割에關한 史的唯物論의 根本原則은 黨과 쏘베트國家에依하여 社會主義建設實踐에 意識的으로 適用된다 이것은 黨과 쏘베트國家가 政策路線의 作成에있어(一)經濟發展의 새 要求들과 進步的傾向의 考慮 (二)到達된 生産力水準 (三)社會主義的經濟体制에 놓여있고 또한 計劃的經濟指導의 實踐에서 開顯되는 社會主義生産昻揚의 可能性—等으로부터 出發하는데서 그 表現을 發見한다。

이런 意味에서 黨과 쏘베트國家의 政策은 쏘베트 經濟發展의 進步的傾向 成熟된 새 要求들의 集中的表現이다。

다른 한便으로 共産黨과 쏘베트國家의 政策이 社會主義經濟에주는 活潑한 反作用은 巨大한 程度로 增大될뿐더러 새로운 質을 獲得한다 쏘베트國家는 政治的主權을 完全히 掌握하면서 同時에 가장 主要한 生産手段의 所有者이기도 한것이다。

社會主義經濟法則의 가장 重要한 特異性은 그것이 認識된 必然性으로서 登場하며 黨과 쏘베트國家의 政策을 通하여 意識的으로 適用되고 實現된다는 그것이다 따라서 黨 및 쏘베트國家의 政策밖에서는 社會主義經濟法則의 實現은 不可能하다。 黨과 쏘베트國家의 政策은 認識된 社會主義經濟法則에 基礎하여 計劃的方法으로 經濟發展을 指針하고 組織하는 힘으로서 登場한다。

쏘베트經濟에있어 經濟法則의 힘을 가지는 社會主義的計劃化는 쏘베트國家의 經濟組織者的活動을 通하여 實現된다。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는 쏘베트國家의 經濟的役

制의 根本的 決定的特異性의 하나로서 부르죠아國家의 經濟的役割로부터 原則的으로 區別하는것이다 「쏘베트經濟에 있어서는 人民經濟의 運動과 發展의 源泉은 計劃을 세우는 社會主義國家이다」 (워즈네센스끼—前揭書 一五〇頁)

社會主義計劃化는 黨과 쏘베트國家가 나라앞에 提起하는 經濟政策的課業의 實行에 服從한다。

經濟政策的諸課業은 社會主義社會의 發展程度에따라 變更된다 그러나 經濟의 社會主義的性格과 共産主義社會建設의 合法則性에 依하여 條件지어지는 쏘베트國家經濟政策의 몇가지 一般的方針이 모든 五個年計劃을 一貫하고있다 이 方針은

(一) 帝國主義諸國家들로부터의 쏘련의 自主性과 獨立性

(二) 社會主義的生産關係의 統一的支配와 共産主義社會로의 그 一層發展

(三) 勤勞者의 物質的 文化的水準의 一貫한 昂揚—等을 保障함에있다。

이 諸課業은 社會主義的計劃化의 助力밑에 黨과 쏘베트國家에 依하여 解決된다 이렇게 쏘베트國家는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를 實行하면서 이로써 社會主義經濟法則을 實現하는것이다。

社會主義建設三十年史는 黨과 쏘베트國家에 依한 社會主義的計劃化의 偉大한 組織力 動員力의 能熟한 利用 社會主義社會의 疾風같은 生産力發展途上에서 發生되는 部分的不均衡을 巧妙하게 克服한 놀랄만한 模範例를 보여준다。

黨과 쏘베트國家에 依하여 巧妙하게 利用되는 計劃化의 組織力과 動員力은 새 戰後五個年計劃의 完遂를爲한 鬪爭時期에 뚜렷이 나타났다。

쏘련國家計劃委員會의 資料에 依하면 一九四七年의 産業生産은 一九四六年該當時期에 比하여 每四半期마다 累進的으로 卽 第一•四半期에는 一二% 第二•四半期에는 一八% 第三•四半期에는 二六% 第四•四半期에는 三〇%로 增加되었다。

生産計劃은 總生産高에있어 一九四七年에 一〇三•五%로 完遂되었고 一九四六年에 比하여 그 成長率은 二二%였다。

一九四七年의 農村經理總生産高는 一九四六年에 比하여 三二% 增加되었고 穀物總收穫高는 四八% 增加되었다。

國家 및 協同組合商業의 各種商品去來는 一九四

七年에있어 一九四六年에 比하여 一七% 增加되었다。

이로써 戰後五個年計劃의 超過完遂를 爲한 前提條件은 樹立된것이다。

레닌그라드勤勞者들의 發意에依하여 五個年計劃의 四個年完遂를爲한 社會主義競爭의 힘찬 波濤가 展開되었는데 이것은 쏘련人民經濟發展과 이를 爲한 勞動力 및 生産手段의 國家豫備力利用의 比例(五個年計劃에 制定된)에 相當한 訂正을 記入할것을 要求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社會主義經濟의 [illegible]는 大衆을 指示하고 組織하고 動員하는 힘으로서의 計劃化를 利用할줄아는 熟練이 特別한 意義를 가진다는 事實을 말해준다。

쓰딸린同志는 計劃遂行에 對하여 그 巨大한 組織力과 動員力을 利用할줄은 모르고 形式的 官僚主義態度를 取하는따위 可憐한 指導者들을 볼것없는 官僚輩라고 命名하고있다 그런까닭에 計劃完遂와 超過完遂를 爲해서 또는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優越性가운데 包含된 生産力發揮의 豫備力 및 可能性의 開發과 利用을爲한 大衆의 鬪爭을 組織하고 指導하는것이 特別한 意義를 가지는것이다。

二

社會主義社會의 發展法則인 社會主義的 計劃化는 그 自体가 其他의 社會主義經濟法則의 適用과 利用위에 樹立되는것이다。

『事實上 社會主義的 計劃化가 平時經濟時期에나 戰時經濟時期에나 다같이 考慮에 넣어야만하는 生産과 分配의 經濟法則이란 存在하는가? 絶對 그러한 法則은 存存하며 그것을 考慮에 넣지않을수 없다 오직 經濟法則의 知識만이、그것을 社會主義에 有利하도록 利用함을 可能케하는것이다』(워즈네센스끼—前揭書一四五頁)

이러한 法則에는 쏘베트經濟에서 改造된 形態로 作用하고있는 價値法則도 關聯된다 쏘베트國家는 價値法則을 計劃的經濟指導의 ○武器로 利用한다。

이 利用形式과 方法의 좀더 具体的인 分析으로 넘어 가기前에 社會主義經濟條件下에서 價値法則이 겪은 改造의 本質에關하여 좀더 말할 必要가있다。

여게關聯하여 일어나는 첫째問題는 社會主義段階의 價値法則에關한 問題에있어 맑스와 엥겔스의 見地는 어떠하였는가에 關한 問題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生産手段에對한 社會所有의確立과함께 直接 勞動時間에依한 勞動의 計算이 可能하게될것이며 商品—貨幣關係는 消滅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組合原則위에서 組織되고 生産手段의 共有에 基礎두는 社會에서는 生産者는 自己生産品을 交換하지않는다 生産品生産에 消費된 勞動은 이들 生産品의 價値로서 또는 그것에 固有한 어떤 物質化된 特性으로서 發顯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인제는 資本主義社會와는 反對로 個人的勞動은 벌써 間接的으로가 아니라 直接的으로 總勞動의 構成部分으로서 存在하기때문이다』(맑스『고다綱領批判』一二페지)

『고다綱領批判』에서 共産主義의 第一段階—社會主義를 特徵지으면서 맑스는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勞動에依한 分配原則은 交換과 貨幣없이 勞動從事者가 社會를爲하여 일해놓은 時間의量이 標示되어있는 傳票의힘을빌어 實現될것이라는 假定에서 出發하였다。

己實 맑스에게는 一見 그가 社會主義段階에서 價値法則存續의 可能性을 許容하였다는 若干의 言質을 주는것같은 發言이있다 맑스는 다음과같이 썼다

「……資本主義的生産方式의 根絶後 但 社會的生産이 存續하는 條件에서는 勞動時間의 調節과 各種生産部門間의 社會的分業、끝으로는 이 모든것을 包攝하는 簿記가 그 어느때보다도 重要하여진다는 意味에서 價値의 算定은 如前히 支配를 繼續한다」(맑스—『資本論』第三卷七五○頁)

그러나 이 境遇에 맑스에게있어 問題로 되고있는것은 資本主義條件에서 價値의 內容을 構成하는 勞動時間의 調節과 各種生産部門間의 社會的分業은 社會主義에있어 보다 더 重要한 意義를 띠게된다는 그것이다 맑스는 社會主義條件에서의 勞動時間의 調節과 社會的分業이 價値法則의 힘을빌어 實現되리라고 斷定하는것은 아니다。

社會主義段階에서 商品—貨幣關係의 克服에關한 맑스와 엥겔스의 見解는 偉大한 十月革命以前과 쏘聯에서 革命이 勝利한 첫 時期의 맑스主義者들間에서 支配的이었었다는것을 留意할 必要가있다 例하면 아•베벨은 自己小冊子『未來社會』에 다음과같이 썼다「새 社會는 사고 팔기爲한 商品이 아니라 生活必需物資를 生産한다…… 그리고 새社會에 商品이없다면 結局 貨幣도 없는것이다 印刷

한 紙片、金、함석(錫板)等 아무런것이나 證據物로 될만한것이면 모두 일한 勞動時間을 立證하며 所持者는 이 標跡을 自己에게 必要한 消費物資와 交換한다」(아•베벨『未來社會』二二頁—二三頁)

이와 똑같이 쁘레하노브도 社會主義的商業이란「半熟한 구두」이며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商業이란「四輪馬車의 第五輪」云云이라고 썼다。

레닌의 巨大한 貢獻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過渡期의 商業과 貨幣理論을 作成하였다는데있었다。

이 理論은 레닌의 우리나라社會主義建設計劃 特히 農村經理의 社會主義的再建을爲한 레닌의 協同組合的計劃의 重要한 一環이었다。

비록 레닌은 社會主義段階에서의 商品—貨幣關係의 運命에關한 問題의 硏究를 自己課業으로 하였던것은 아니라고하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渡的經濟機構에서의 商業 및 貨幣의 役割에關한 그의 學說은 社會主義段階를 爲하여서는 어떠点에서 그 意義를 保存한다。

商業과 貨幣에關한 레닌의 學說은 쓰딸린의 諸勞作에서 一層 發展을 보았다 쓰딸린同志는 商業과 貨幣가 부르죠아지—의 道具로부터 社會主義建設의 武器로 넘어가는 轉化의 辯証法을 明示하였다。

쓰딸린同志는 社會主義段階의 商品—貨幣關係에關한 問題를 새롭게 내세웠다 社會主義建設의 實踐經驗의 一般化에 基礎하여 쓰딸린同志는 商品—貨幣關係는 社會主義段階에서 克服될수없으며 直接的인「生産品交換은 다만 理想的으로 調整된 쏘베트的商業과의 交代로서만 그 結果로서만 올수있다」는것「貨幣는 아직도 오랫동안、即 共産主義의 第一段階—社會主義發展段階가 完成될때까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을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였다。(쓰딸린—「레닌主義의諸問題」四六二頁)

쓰딸린同志는 商業과 貨幣를 廢止하려고드는 左傾的試圖에 對하여 自己演說가운데서 再三 反駁을 주었다。

過渡的經濟機構의 條件에서와 共産主義最低階段에서의 商業、價値法則 및 貨幣에關한 쓰딸린同志의 學說은 맑스—레닌的經濟理論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巨大한 創造的寄與이다。

黨은 쓰딸린의 領導밑에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商業과 貨幣가 消滅한다는 左傾的「理論」을 粉碎

하였다。

쓰딸린同志는 商業과 貨幣에關한 自己學說을 一貫하게 發展시키면서 價値法則은 社會主義段階에서는 克服되지않으며 또한 克服될수없다는것 그것은 쏘베트經濟에서 改造된 形態로 作用하고있다는것을 明示하였다。

다음과같은 問題가 일어난다—生產手段의 社會主義的社會所有와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이 支配함에도 不拘하고 무슨까닭에 價値法則은 社會主義的段階에서 存續하는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商品關係와 價値法則의 必然性은 生產手段에對한 社會主義的社會所有의 두가지 形態—國家的(全人民的)인것과 協同的—꼴호즈的인것—에 基礎를둔 社會主義的生產方式과 社會主義的生產關係에依하여 決定된다。

歷史的으로는 商品關係는 沒落해가는 原始共產体內部에서 벌써 發生하였던것이다 너게서 그 土台로 된것은 (一)社會的分業과 (二)生產手段의 共有였다。

階級的搾取의 社會機構에서는 共有대신에 私有(社會的分業과함께 階級的搾取의 土台로된) 가들어섰다는 意味에서 商品關係의 經濟的土台는 變更되었다。

社會主義條件에서는 商品關係의 性格이나, 土台가 다같이 變更된다「商品—貨幣 또는 貨幣—商品去來는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企業間—國家企業과 꼴호즈間도 包含—의 商品交換 또는 交換者, 農民 및 인데리겐차가 社會的生產品中의 自己몫을 現金化하는 形式을 基本的으로 意味한다。」(워즈네센스끼—前揭書一二一頁)

社會主義產業과 社會主義農村經理間의 商品關係의 必然性은 兩者間의 社會的分業과 두가지形態의 社會主義的所有—國家的(全人民的)인것과 協同的—꼴호즈的인것—에서 흘러나온다。

꼴호즈間의 商品關係의 必然性은 社會的分業과 生產手段에對한 協同的—꼴호즈的所有에서 흘러나온다。

社會主義的國家企業間의 商品關係의 經濟的土台는 이와 다르다。

社會主義的國家企業間에는 社會的分業이 存在한다 그러나 이 企業들은 唯一한 所有者—國家에게 따라서 人民에게 屬하여있다 社會主義的企業間의 商品關係의 必然性은 (一)이 企業들間의 社會的分業(二)社會主義段階의 社會的勞動의 性格(國家企業에對하여 財產上의 獨立性을 許與해야할 必要性을 條件짓는)과 關聯되어있다。

社會主義的國家企業은 自己管理를 爲하여 國家로부터 基本基金과 流通資金을 받고 다른 社會主義的國家企業과는 獨立的經濟單位로서 關係를 맺는다。

企業의 이러한 獨立性의 原因은 社會主義段階의 社會的勞動의 性格에 들어있다 即 社會主義段階의 社會的勞動은 一便 搾取者를爲한 勞動이기를 멈추고 自己를爲한 自己社會를爲한 自己國家를爲한 勞動으로는 되었으나 다른 한便 아직 第一次的 生活上要求로는 되지못한것이다 이로부터 生產力發展의 決定的刺戟으로서 個人的 物質的 利害心이라는 要因을 生產組織에 利用할 必要性이 흘러 나오게 된다。

個人的 物質的利害心이라는 要因의 利用위에 社會主義的國家企業의 獨立採算的管理方法은 樹立되는 것이다。

商品關係는 이미 본바와같이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는 또한「勞動者、農民 및 인테리겐차가 社會的生產品中의 自己몫을 現金化」하는 形式이기도 하다。(워즈네센스끼—)

따라서 商品關係는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에따라 分配되어 社會主義社會의 勞動從事者의 個人所有로 들어가는 個人的消費物資의 巨大한 流通範圍를 包攝한다 國家企業에서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分配原則에 符合하는 勞動報酬形態는 貨幣賃金이다。

豐饒치못한 條件下에서의 現物에依한 勞動報酬形態는 勞動에依한 社會主義報酬原則과 深刻한 矛盾關係에있는 賃金均等化要素의 發生에 有利한 條件을 지어준다。

商品—貨幣的 勞動報酬形態는 (一)勞動에 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을 보다 徹底히 實施할수있고 (二)社會主義社會의 勞動從事者의 多面的이고 또한 急速히 增大되며있는 要求를 보다 恰足히 滿足시킬수있는 可能性을 준다。

꼴호즈에서도 國家企業에서 그런것처럼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이 實行된다 꼴호즈일군들은 勞動日에依한 自己勞動報酬를 一部는 現物로 一部는 貨幣形態로 받는다。

勞動日의 物質的內容은 꼴호즈에따라 여러가지다

꼴호즈에서 生產物의 大部分은 勞動日에依하여 分配하는것은 商品關係의 必然性을 排除하는것이 아니라 꼴호즈일군들이 自家經理에서 消費하는것은 勞動日에依하여 받는 生產物의 不過 一部分에 지나지않는다 그 爾余部分은 自己에게 必要한 消費物資를 사기爲하여 市場에 내다 파는것이다。

이런것이 社會主義段階에 商品關係가 存續하는 原因이다。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商品은 使用價値를 가지고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맑스는 그의 商品分析에있어 商品의 二重的性格의 背後에 숨어있는 勞動의 二重的性格을 들어내고 後者를 商品經濟의 根本的矛盾—個人的勞動과 社會的勞動間의 矛盾의 表現으로 考察하고있다。

맑스의 學說에 依하면 商品資本主義經濟의 勞動은 本質上 社會的이다 왜냐하면 商品生產者들이 社會的分業으로 말미암아 彼此를爲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生產手段의 私有의結果 勞動의 社會的性格은 生產過程에서 發顯하지않으며 直接的으로는 個人的勞動으로 登場하면서 隱然中에 社會的인것이다 商品生產者의 社會的勞動은 商品의 價値內容을 形成하는 抽象的勞動의 形態를 取하고 또한 다만 交換에 있어서만 發顯한다 그러므로 商品生產에 消費된 社會的勞動은 直接勞動時間으로 計算될수없고 交換過程에서 한 商品을 다른 商品과 比較하는 方法을 通하여 다만 貨幣形態에서만 計算될수 있는것이다。

「다른 사람의 消費用으로 豫定된 個別的生產者의 生產品은 需要者한데까지 가서 生產者에게 다른 社會的生產品—貨幣形態를 금박 取하였을뿐인 即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미리 社會的計算을 거친—을 取得할 權利를 줄수있다 그런데 이 計算은 生產者의 背後에서 市場의 變動에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이다」(레닌全集 第一卷 二八一頁)

이렇게 맑스와 레닌은 抽象的勞動과 商品價値의 範疇를 社會的勞動의 計算問題와 關聯시켰다。

社會主義經濟에있어서는 生產手段의 社會的所有로 말미암아 勞動은 이에 生產過程自体에서 個人的인것으로가 아니라 直接—社會的인것으로 登場한다。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具体的形態의 勞動은 미리

計劃에 依하여 社會主義의 强化와 長成에 有利하도록 生產諸部門間에 分配되어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社會的으로 必須的이며 社會의 總勞動의 不可缺的一部分이다。」(워즈네센스끼—前揭書 一四九頁)

價値法則의 利用에 基礎를둔 貨幣計算存續이 必然的인 理由는 社會主義階段의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의 特異性에서 찾아야한다。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은 그 發展에있어 여러가지 階段을 通過하는 歷史的範疇다 社會主義階段에서는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은 貨幣計算의 存續을 必須케하는 特異性을 가지고있다 이들 特異性은 社會主義階段에서는 社會—經濟的關係에 있어서의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이 아직도 同一種의 勞動이 채 못된다는 点에 있는것이다。

于先 社會主義段階에서는 勞動의 社會—經濟的性格에 社會主義的社會所有의 두가지 形態와 一致하는 區別이 存在한다 國家企業에서 일하는 勞動者의 勞動과 꼴호즈에서 일하는 꼴호즈일군의 勞動間에 區別이 存在하는것이다。

그리고 國家部門의 範圍안에서도 貨幣計算을 拒否하는것은 不可能하다 社會主義段階의 國家企業에는 熟練勞動과 單純勞動、精神勞動과 肉体勞動間에 區別이 存在한다 勞動의 性格의 이 區別은 重要한 經濟的意義를 가지고있다 熟練勞動從事者는 單純勞動從事者보다 單位時間內에 創造하는 價値가 보다 많은 것이다。

勞動의 이러한 不一性은 한 일꾼의 勞動時間은 다른 일꾼의 勞動時間과 同等하지 않다는 結論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直接 生產物單位나 勞動時間에 依하는 社會的勞動의 現物計算은 不充分하며 貨幣計算의 存續이 必要한것이다 貨幣計算은 社會的勞動의 性格上 各異하고 不一한 形態를 唯一한 抽象的勞動으로 還元시키는것이다。

社會主義經濟에서의 具体的勞動과 抽象的勞動은 商品—資本主義經濟와는 달리 直接的인 社會的勞動의 各異한 形態이다。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抽象的勞動은 부르죠아的生產方式의 條件下에서 그런것과 달리 勞動의 社會的性格의 唯一한 表現形式이 아니라 生產手段의 社會的所有와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의 支配로 말미암아 勞動은 生產過程自体에있어 直接的인 社會的

勞動으로 登場하는것이다。

맑스—레닌主義古典은 恒常 價値法則이 그 土台로되는 社會的勞動의 計算機能이 貨幣의 基本的機能인것이라고 看做하였다 價値法則의 이 側面을 레닌은 上記한 引用文에서 强調하고있다。

社會的勞動의 價値計算問題는 絶對로 計算—簿記 技術에 歸着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複雜한 社會—經濟的問題로서 그 根源은 社會的生產關係에서 그리고 結局에는 社會主義社會의 生產力水準에서 찾아야한다。

쏘베트經濟에 있어서의 商品은 改造된 形態로 存在한다 商品—資本主義經濟의 商品과는 달리 社會主義經濟의 商品은 將次過剩生產의 資本主義的危機로 發展해나갈 資本主義的 不相容的矛盾의 胚芽가 아니다。

「社會主義社會의 商品은 商品資本主義社會에있어 그렇듯 特徵的인 價値와 使用價値間의 葛藤(生產手段의 私有로 말미암아 商品資本主義社會에서 繼續되고있는)을 알지못한다 資本主義에있어서의 이 葛藤은 社會的인 生產方式과 個人的인 占有形式間의 矛盾—危機를 낳고있는—의 基本的形式이다。」

(위즈네센스끼—前揭書 一二一頁—一二二頁)

社會主義的生產方式은 人民經濟와 社會主義社會全体의 利害의 見地에서 使用價値와 商品價値의 올바른 結合을爲한 必要한 모든 條件을 지어준다。

이것은 그러나 社會主義建設實踐에있어 各種原因으로 말미암아 特히 企業指導에對한 部分的經濟일꾼들의 經濟眼이 偏狹한 옳지못한 態度로 因하여 使用價値가 價値와 矛盾關係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排除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떤 企業指導일꾼이 財政的見地로 보아 보다有利한 生產의 負擔으로 全企業의 財政計劃을 遂行하려고 애쓰고 그 結果에 類別的計劃을 完遂못하는 境遇에 흔히 있는일이다 그러나 社會主義計劃經濟의 條件에있어서는 이 矛盾은 不相容的矛盾의 性格을 띠지않으며 過剩生產의 危機의 可能性을 內包함이 없고 社會主義生產의 計劃的運營指導方法으로 解決되는것이다。

쏘베트經濟에서는 個人的으로 必要한 時間과 社會的으로 必要한 時間사이의 矛盾도 發生할수있다 이것들 亦是 不相容的矛盾은 안가지고있다。

資本主義條件에 있어서는 個人的으로와 社會的으

로 必要한 時間사이의 矛盾은 보다 高度의 技術을 應用하여 超過利潤을 얻고있는 先進企業이 自己의 技術的成果를 秘密에 붙여 自己競爭者를 破滅에 이르게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쏘련에는 價値와 使用價値를 生產하는 個別的企業間에 不相容的矛盾이 存在치않는다 이 不相容的矛盾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產手段의 私有에依하여 造成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破滅的競爭、生產의 無政府狀態、그리고 畢竟에는 危機를 招來하는 것이다 쏘聯의 社會主義企業間의 生產品交換은 商品價値의 交換이다 그러나 每個 社會主義企業은 豫定된 消費計劃을 미리 가지고있고 그 販路가 保障되어있으며 資本主義的競爭대신에 合理的協同과 競爭이 存在한다」(위즈네센스끼—前揭書一四九頁)

이로 말미암아 落後한 企業에서 商品生產에 消費되는 보다높은 個人的時間과 大多數企業에서 消費되는 社會的으로 必要한 時間사이의 不一致는 國家計劃的對策의 힘을·빌어 落後된 企業을 先進企業의 水準에까지 이끌어올리는 方法으로 또는 社會主義競爭過程에서 克服되는것이다。

쏘베트經濟에는 資本主義와는 달리 利潤과 生產價格의 平均率이라는 法則이 없다 人民經濟各種部門間의 勞動과 生產手段의 分配는 價格의(自然發生的運動이나 利潤追求를 基礎로 實行되는것이 아니라 意識的으로 價値法則을 利用하는 計劃的指導에 根據하여 實行된다。

資本主義의 條件에서는 價値法則은 사람을 支配하는 自然發生的힘으로서 作用하나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는 價値法則은 意識된 必然性으로써 作用하는것이다。 쏘베트 國家는 價値法則을 支配하며 社會主義建設의 計劃的指導의 武器로서 意識的으로 適用하고 利用한다。

三

쏘베트經濟에서 價値法則의 利用形式은 어떤것인가?

이 質問에 對答하기 爲해서는 于先 簡單하게나마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의 經濟的槓杆에 關해서 좀더 이야기하고 改造된 形態로 쏘베트經濟에서 作用하고있는 價値法則과의 그 關係를 明示할 必要가있다。

社會主義的生產과 分配의 經濟的槓杆으로 되는것

은 本質上 時間節約의 各種方法인데 맑스의 學說에 依하면 모든 節約은 結局 時間節約에 歸着한다。

「時間의 節約은 各種生産部門에 依한 勞動時間의 計劃的分配와 마찬가지로 集團生産에 基礎를두는 第一次的經濟法則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非常한 높은 程度에서까지도 法則으로 된다」(맑스—엥겔스文庫 第四卷 一一九頁)

그러나 時間節約의 方法은 社會經濟機構가 各異함에따라 各各 다르다。

社會主義社會에서는 時間節約은 (一) 社會主義社會勞動從事者의 自己勞動에 있어서의 物質的利害心이라는 要因의 利用 및 (二) 社會主義生産勞動生産從事者에對한 勞動報酬에 있어서와 社會主義企業間의 關係에 있어서 勞動等價原則의 利用—의 힘을 빌어 達成된다。

이것은 改造된 形態의 價値法則을 利用함으로써 實行되는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分配原則은 勞動從事者의 自己勞動에 있어서의 利害心을 造成하며 個人的利害와 社會的利害의 올바른 結合에 必要한 條件을 造成하는 것으로서 社會主義段階에서는 物質的利害心은 生産昂揚의 決定的要因中의 하나이다。

同一한 物質的利害心의 原則위에 社會主義企業의 獨立採算的管理方法도 樹立된다 이 構想을 레닌은 이미 第二次 全露政治敎育局會議에서 展開하였다。

「모든 大規模人民經濟部門을 個人的利害心위에서 세울 必要가 있다。」(레닌全集 第二七卷 四四頁)

이것은 每個勞動從事者의 報酬를 그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서 制定하며 每個企業의 物質的地位는 量的、質的計劃指數의 遂行如何에따라 制定해야 한다는것도 意味하는것이다。

다른한便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과 獨立採算은 勞動等價原則의 適用을 前提로한다。

「고타綱領批判」에서 맑스가 明示한바와 같이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의 基礎에는 商品交換의 基礎에 놓여있는것과 同一한 勞動等價原則이 놓여있다。

勞動報酬에 適用되는 勞動等價原則은 레닌의 말을 빈다면「社會的基金으로 들어가는 勞動量을 控除하고는 每個勞動者는……그가 社會에준 그만큼 社會로부터 받는다」는것을 意味한다。(레닌全集 第二一卷 四三三頁)

勞動等價原則은 獨立採算關係의 基礎에도 놓여있다。

國家의 社會主義的企業은 基本基金과 流通資金을 自己管理下에 두고 經理運營의 獨立性을 享有한다 企業이 正常的으로 機能을 遂行하고 擴大再生産을 實行하기 爲해서는 社會로부터 自己勞動消費에對한 補償을 現物로나 貨幣形態로 받아야한다 企業은 이 補償을 그것이 生産하는 商品生産에 比例하여 받는다 等價原則은 浪費없고 經濟的인 生産實行、生産原價低下 企業의 收益性向上을 刺戟한다。

이 境遇에 問題삼는것은 完全等價에 關해서가아니라 相對的等價에 關한것이라는것을 留意해야한다 쏘베트國家는 한 企業에서 創造된 剩餘生産價値의 一部를 다른企業의 擴大再生産을 爲해서나 또는 새企業의創設 國防强化等을爲하여 使用한다。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 報酬原則과 獨立採算制를 한便으로 價値法則을 다른便으로 하는 兩者間에는 어떠한 關係가 存在하는가?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分配原則과 獨立採算—이것은 社會主義的生産方式에 依하여 産生된 새로운 經濟範疇이다 한便 價値는 社會主義前社會機構에서 넘어와서 社會主義下에서 改造된 形態로 作用하고있는 範疇이다 이들間의 關係는 計劃者인 社會主義國家手中의 價値法則은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實行의 武器이며 社會主義的國家企業의 管理方法으로서의 獨立採算制의 武器라는데있다。

勞動에依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과 獨立採算은 勞動等價原則에 基礎를두고있다 但 社會主義段階에서의 이 原則은 商品 — 貨幣關係의 힘을빌어 實現되며 價値法則의 內容을 構成한다 그리고 勞動에對한 社會主義的報酬原則과 獨立採算은 全人民經濟的規模에서 社會的勞動의 計算을 要求한다。

社會主義經濟에는 生産高와 勞動時間單位의 現物計算이 存在한다。

그러나 現物計算은 不充分하며 社會的勞動의 價値的、貨幣的計算의 必要性을 決코 抹殺하지않는다。現物單位로는 經濟活動의 結果를 全体로 表現할수없으며 生産의 採算性程度를 決定할수없으며 산(生)有形的勞動의 社會的으로 必要한 消費를 監査할수없고 個別的部門과 企業의 活動結果를 比較할수없다 이 모든것은 社會主義段階에서는 다만 價値法則의 利用에 基礎를두는 貨幣形態에서만 表現될수있는것이다。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消費物資가 豊富치못한**

條件에서도 國家企業에서의 貨幣에依한 勞動報酬는 社會主義的分配原則에 符合한다 꼴호즈에서는 農村經理의 商品化率의 長成程度에따라 貨幣收入의 比重도 增大된다。

社會的必要한 勞動―商品에서 有形化된 抽象的勞動―의 消費로서의 商品의 價値는 直接的으로는 發顯하지않는다 그것은 다만 貨幣形態에서만 發顯한다。

쏘베트國家는 貨幣를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의 武器로 利用함으로써 價値法則을 利用하는것이다。

쏘베트貨幣의 基本的機能은 價値尺度로서의 機能인데 쏘베트貨幣는 社會主義社會에서 商品生産에 消費된 社會的勞動의 計算의 武器로서 登場하는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社會主義段階에서의 社會的勞動의 計算이 가지는 特別한 意義를 强調하였다。

「社會主義經濟에있어서 價値法則은 貨幣計算―現物計算뿐만아니라―과 生産費―社會的生産品에對한 社會的勞動의 消費―의 計劃化의 必然性을 意味한다 이것은 매우 緊要한것이다 왜냐하면 社會主義는 生産의 가장 嚴格한 計算과 計劃化를 要求하기때문이다。」(위즈네센스끼―前揭書一四五頁)

貨幣形態에依한 社會的勞動의 計算은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의 價値法則의 基本的機能이다。

貨幣計算은 技術標準化와함께 社會主義的國家企業에서 生産原價와 生産收益性의 計算과 算定의 基礎이다 쏘베트國家는 計劃原價와 實地原價를 比較하는 方法을 通하여 貨幣計算을 生産에對한 統制手段으로 利用한다 이 比較는 計劃原價에對한 實地原價의 偏差의 原因을 解明하고 原價低下와 企業收益性向上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할수있게한다。

時間節約과 社會主義的生産昻揚을 爲하여 特別히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있는것은 쏘베트國家가 꾸준히 實行하고있는 生産費低下方針이다 쏘베트國家는 生産費低下의 一定한 比率을 計劃함으로써 社會主義的生産合理化와 技術發展에로 經濟指導일꾼들을 指針하며 쏘베트루블의 鞏固化 物價低下 實質賃金의 向上 産業과 農村經理를爲한 市場容量의 擴大 및 社會主義的蓄積을 助長한다。

쏘베트國家는 單純勞動에 比하여 보다 높은 熟練勞動報酬를 導入하고 生産率向上의 目的을 가진 都給 및 加給勞動報酬制를 適用하면서 貨幣를 社會主義生産昻揚을爲한 勞動報酬手段으로 利用한다。

쏘베트國家는 所與 産業部門의 勞動의 輕重에따라 所與部門의 人民經濟的意義에따라 差別的 貨幣勞動報酬制를 採用한다。

貨幣形態에있어서의 價値法則은 物價計劃化에있어 社會的勞動의 計算과 剩餘生産物의 再分配의 武器로 利用된다。

「쏘聯社會主義社會에서의 商品價格은 그 價格 또는 生産費에 基礎를두고있다 그러나 쏘베트國家는 社會主義强化와 勤勞者의 生活水準向上에 有利하도록 每個種類의 商品―國家企業에서 生産되었거나 또는 國家商業에서 現金化되는―의 具体的價格과 또는 따라서 그 商品의 價値에對한 市場價格의 偏差程度를 親히 決定한다」(위즈네센스끼)

쏘베트國家手中에있는 物價計劃化는 社會主義的生産 및 分配의 强力한 經濟的機構의 하나이다。

쏘베트國家는 社會主義的國家工業化의 武器로서 또는 勞動要具와 生産手段一般에對한 低物價를 設定하는 方法을通하여 國家産業 또는 꼴호즈에 先進的技術을 導入하는 武器로서 物價計劃化를 利用한다。

産業에對한 原料保障을爲하여 쏘베트國家는 該當한 物價政策의 助力밑에 技術文化發展을 刺戟한다 物價政策의 助力下에 쏘베트國家는 한 商品의 消費는 制限하고 다른 商品의 消費는 奬勵하면서 個人消費와 生産的消費構造에 影響을 준다。

쏘베트國家는 人民經濟에서 創造된 價値總額의 範圍內에서 去來稅를 大規模的으로 利用함으로써 剩餘生産品價値의 一部 再分配를 社會主義的蓄積을爲하여 實行한다。

쏘베트國家는 國家價格을 計劃化하고 協同組合價格을 統制하는 該當政策의 助力下에 또는 商品資源을 機動하는 方法으로 꼴호즈―市場商業의 物價運動에 對한 經濟的調節을 實行한다。

쏘베트貨幣는 商品流通手段의 機能을 遂行한다 資本主義와는 달리 쏘베트國家는 國家企業에서 生産되고 國家商業과 協同組合商業体系를 通하여 販賣되는 商品의 價格을 計劃化하며 經濟的手段을 가지고 꼴호즈市場價格에 作用하며 商品流通範圍에 들어오는 商品量 住民과 社會主義企業의 購買資金을 計劃化한다。

쏘베트貨幣는、價値尺度로서의 그 機能에 있어서

뿐아니라 流通手段으로서의 機能에 있어서도 生産에對한 루블의 統制를 實現한다。

部門과 企業間의 社會的生産品의 計劃的分配는 商品 및 貨幣流通의 助力下에 實現된다 人民經濟計劃에서 出發하면서 國家企業들은 相互間 商業關係에 들어선다 契約에는 한 企業의 다른 企業에 對한 適當한 商品生産品의 供給과 이 生産品에 對한 支拂에 關한 여러가지 義務가 豫見된다。

쏘베트貨幣는 流通手段과 支拂手段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면서 生産計劃의 未完遂로 말미암아 供給을 中斷하는 企業과 또는 財政計劃未完遂의 結果로 다른 企業에서 어은 生産品에 對한 支拂을 遲延시키는 企業을 摘發해낸다。

商品과 貨幣流通過程에서는 生産된 商品의 質에 對한 消費者─企業의 統制가 實行된다。

쏘베트貨幣는 國家가 勞動者事務員에게 賃金을 支拂할때 社會主義企業이 銀行貸附를 返濟할때 稅金을 納付할때等에 支拂手段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을 쏘베트國家는 社會主義企業에 對한 루블에 依한 統制를 爲하여 利用한다 例하면 銀行은 賃金支拂을爲한 貨幣財源을 企業의 生産計劃履行如何에따라 支出한다 銀行貸附의 適時償還을 要求하는 銀行은 企業의 財政計劃履行을 刺戟한다 왜나하면 이것이 없이는 企業이 貸附償還에 必要한 貨幣財源을 蓄積할수없기 때문이다。

쏘베트貨幣는 勞動貯金과 社會主義的蓄積의 機能을 遂行한다 勤勞者는 自己 勞動貯金을 貯金局에 保管하는데 쏘베트國家는 크레딧트를通하여 社會主義的投資의 融資源泉의 하나로 利用한다。

쏘베트國家는 社會主義的蓄積의 必要面、社會主義生産의 必要面에 國家 및 協同─꼴호즈企業의 資金을 動員하는것을 貨幣形態에서 實行한다。

이런것이 人民經濟의 計劃的指導의武器의 하나로서의 價値法則의 多面的인 利用形態이다。

쏘베트國家는 오는 數次 五個年計劃에서 主要資本主義諸國을 經濟的面에서 따라가고 또한 凌駕하며 社會主義에서 共産主義로의 漸進的移行을 實現할것을 自己課業으로 내세운다 이 宏壯한 課業들의 解決에는 全体 쏘베트人民의 緊張한 英雄的勞動이 要求된다 그것은 社會主義的計劃化의 役割의 百方으로되는 强化와 그 方法의 鞏固化 勞動力 및

生産手段의 有力한 豫備力의 造成 社會主義的生産과 分配의 役割 및 意義의 向上을 要求한다。

時間節約은 이러한 條件에있어 社會主義的蓄積、社會主義的擴大再生産의 速度를 加速하는 要因으로서 巨大한 意義를 띠게된다。

쏘聯에서 實施된 貨幣改革과 配給制廢止는 經濟的槓杆들 特히 社會主義經濟의 計劃的指導의 武器로서의 價値法則의 役割强化에 不可缺한 前提條件을 造成하였다。

人民經濟의 計劃的過程에서 쏘베트國家에依한 經濟的槓杆의 賢明한 利用은 勞動生産率의 成長 社會主義生産의 昂揚 쏘베트人民의 꾸준한 福利向上을 助長할것이며 쏘聯의 基本的經濟課業解決과 社會主義에서 共産主義最高階段으로의 漸進的移行의 가장重要한 要因으로 될것이다。

(「經濟諸問題」誌一九四八年第一號掲載)

독립채산제문제와 유일관리제

김 찬

一

쏘련군대의 영웅적 승리로 조선이 일제기반밑에서 해방된이후 북조선에있어서는 모든 주권이 인민의 손에 쥐어졌다。

그리하여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창설되고 그에 의하여 모든 민주주의개혁들이 성과있게 수행되었다。

결과에 우리북조선에는 인민대중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경제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우리민족경제의 기초로되는 새로운 국가경제요소인 국영기업소들과 근로인민으로써 조직되고 그들의 공동소유인 공리단체 경제요소들이、생기었다 그러므로 북조선에있어서는 우리민족을 억압착취하던 과거 일제시대의 경제제도는 근본적으로 청산되었을뿐만아니라 진정한 조선민족의 자주적 경제토대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각경제부문 즉 산업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등 각부문에있어서 그러한것이다。

이와같이 현재 북조선경제는 과거의 면목을 일신하고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사명을 띠고 나서고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북조선의경제는 전체인민의 복리를위하여 운영되고있으며 유일계획에의한 관리밑에서 공고발전되고있다 인민대중을위한 경제체계의 이같은 확립과 운영발전은 실로 조선력사상에 일찌기 없던일이다。

그러므로 각 국가경제부문에 복무하고있는 책임자 및 종업원들은 인민경제를 더한층 발전시키며 민족경제의 토대를、더욱 튼튼히하여 전체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최고도로 향상시킬 임무를 가지고있다。

국가적소유 즉 전체인민들의 소유인 각경제부문들과 공리단체 경제부분들을 발전시키며 공고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리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이를 옳게 운영하여야할것이다。

물론 각경제요소에 속한 경리들을 옳게 조직운영하고 못하는것은 상급기관의 지도여하에 달렸지만 각개기업소책임자들의 실지활동여하에、많이 달린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민족경제의 기본토대를 이루는 각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책임자들의 역활은 실로 중대한것이다 특히 국영기업소책임자 즉 지배인들에게는 책임맡은 자기 기업소에 속한 국가재산을 애호하며 이를 발전시켜 우리민족경제의 토대를 더한층 튼튼히하는데있어서 참으로 큰 책임이있는것이다 기업소지배인들은 민주주의적경제토대를 공고화하는것이 그들의 책임이며 또 그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적 민주주의독립국가를 쟁취하는데 공헌하여야할것을 깊이 인식하고 백방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실천하여야할것이다。

민주주의적경제토대의 축성공고화는 인민경제적축적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민경제적 축적의 선봉대는 두말할것도없이 국영기업소이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소책임자들은 인민경제적 축적을 강화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이를 계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부흥발전의 속도와 확대재생산의 기금을 보장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영기업소책임자들은 유일계획에의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영기업소의 생산활동과 회계활동을 책임있게 계획적으로 수행시키기위하여서는 반드시 새로운 경영관리원칙—독립채산제의 실시가 요구되는것이다 그 리유는 현시기에있어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조직과 그 관리의 유일한 기본방법인까닭이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는 어떠한 원칙과 내용을 가졌으며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직접 어떠한 리익을 가져올수 있는것인가。

二

독립채산제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업으로하여금 그 계획과업을 상호련관적관계에있어서 구체화하고 적확히하고 생산—회계 활동의 책임있는 수행을 보장하며 관리지도

의 단일책임제를 더욱·공고히 준수케하는 제도이
다。

이와같은 중대한 역활을하는 독립채산제는, 그러
므로 다음과같은 기본원칙을 가진다。

ㄱ、기업소의 생산조직을 옳게하며

ㄴ、공고한 로동규률을 확립하며

ㄷ、생산품의 생산과 자재원료의 소비에 있어서
계획적 경제관리원칙에 립각하며 나아가서는 대규
모적인 생산확장을 목적으로 기본자본을 보유하기
위하여 기업소마다 자본을 축적한다。

ㄹ、각기업소에 전면적으로 엄중한 검열제도를 확
립하여 국가소유재산을 적확히 보관케한다。

ㅁ、경비의 경제절약제를 엄수하며 지출을 수입
에따라서 조절한다。

이상과같은 기본원칙을 가진 독립채산제는 따라
서 다음과같은것을 그 내용으로한다。

ㄱ、기업소사업에있어서 계약재도의 확립

ㄴ、국가에서 기업소에 수여한 고정자금과 류동
자금 및 은행에서 융자받은 차입금을 사용함에있
어서 정확히 분계함

ㄷ、계획원가와 계획판매가격을 설정함

ㄹ、기업소지배인은 기업소를 통제하며 제품판매
를 실행하며 그 업무와 사업전반에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ㅁ、정확하고 엄중한 통계와 결산제도를 제정함
왜냐하면 통계사업이 없이는 독립채산제를 실천할
수 없는까닭이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생산방법을 옳게 조직하
는데 도움이되는동시에 로동규률을 제고시키며 인
민경제계획실행에있어서 전적으로 경제기관지도자들
에게 책임감을 주게한다。

이와동시에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지배인들에게 생
산품의 질적가치향상과 기업소의 생산을 제고시키
는데 창안을 발휘케한다。

독립채산제 실시에있어서 매개기업소는 그 단위
로된다 기업소는 자립적으로 자기의 자금을 통
제하며 경리사업행정에있어서 그 결과여부에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이렇게함으로써 경리제도에 대대적인 활동력과
민첩한 수완을 발휘케하여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계획실행에 경제적실력과 자원을 한층더 합리적으
로 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게되는결과에 각기업소

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수가 있게된다。

실로 독립채산제의 확립으로써만 우리는 정확한
로력통계와 기업소의 경제활동의 결과에대한 정확
한 통계를 확보할수있는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기업경영에대한 통계를 완비하여
계산적으로 무장함이없이는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
고 로력조직을 올바르게하고 계획과업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방책을 강구할수없고 또는 원가저하계획
달성과 인민경제적 축적계획의 초과완수를위한 경
영합리화방책을 과학적으로 강구할수도없는 까닭이
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에있어서는 정확한통계를
파악함으로써 자재원료의 리용과 소비의 절약을 가
강히하며 원가의 저하 기본자금의축적 류동자금의
조성등을 보장하게된다。

독립채산제는 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게한다
이 계획은 한경제부문이 다른 경제부문과의 전국
적범위에서의 련락과 통일에있어서 정상적 방향을
취할필요가 있기때문이다 또한 계획경제는 생산
기업소의 사업을 스스로 검열할수있다 그것은 곧
계획이 어떠한 기업소를 막론하고 생산행정의 제
결과를·평가할수있는 기준계가 되기때문이다。

끝으로 독립채산제의 실시는 기업소의 지도간부
들이나 로동자들로하여금 창발적로력을 발휘케함으
로써 광범하게 생산방법을 합리화할 가능성을 준
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제방법을 바르게 적용함
으로써 생산향상에대하여 창발성을 발휘하며 이것
을 실현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 제방법중에는 기업소내의 기술자 기사와
로동자들로써 구성되는 생산협의회를 들수있다。

생산협의회는 생산기업소의 지배인이 직업동맹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소
집되며 미리 예정된 계획에의하여 생산에관한 구체
적 문제를 협의한다 그러므로 로동자와 기술자
들로써 구성되는 생산협의회를 기업소의 종업원총
회와 혼동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업원총회는 전체기업에관한 공통적문제를 해결
할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생산행정을 연구하는
성질을 가지지못한다。

생산협의회는 생산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잡고 구
체적 파업을 해결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생산협의
회에서는 어떠한 기계의 개선 또는 개량에관한

문제의 토의와 생산품의 질적향상을위하는 부분적 생산행정을 합리화하며 생산능률을 제고하며 생산수량을 넘쳐 실행하는데있어서 모범적로력조직과 경험을 교환연구하는등의 문제를 토의해결한다。

생산협의회는 기업소를 발전시키며 생산능률을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생산능률향상은 우리의 현단계에서는 기업소의 로동자들의 생산경쟁과 돌격운동을 기초로하여 기업소의 복구와 발전과 나아가서는 민족경제를 공고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것이다。

이상 말한바와같이 독립채산제는 경리운영에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수한 관건이되는것이다。

三

우리민족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일성수상은 자주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확보강화하기위하여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실행을위하여 전인민들에게 호소하는동시에 현단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업의 관리운영의 기본방식인 독립채산제를 각 국영기업소에서 실시할것을 지시하시였다 그 지시에의하여 각 국영기업소들은 一九四七년도부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시작하였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관리운영에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기업소들중에는 그렇듯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 독립채산제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못하고있다 사업을 비경제적으로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채산제의 원칙들이 일부 기업소에서는 옳게 실시되지않고있다 일부 기업소의 무책임한 책임자들은 국가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며 넘쳐완수할것을 고려치않으며 무책임한태도로 기업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작풍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업소의 원천을 헤아리지않으며 자재를 통계치않으며 생산품에대한 원가계산과 수입지출의예산 및 계산방법을 완전히 실행하지않고있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경제절약 비생산적지출의 축소 생산의 합리화등에대하여 아무러한 고려도없이 사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자들은 우리의경제를 약화하는것이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업소 경제기관임을 불문하고 이러한 옳지못한 현상과는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이상 서술한바에의하여 스스로 명백한바와같이 독립채산제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면 인민경제계획의 질적 량적으로서의 수행과아울러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경영에대한 일체통계를 정확히 정비하며 기업소들에서 비경제성을 퇴치하고 산업경제기관의 내부적원천을 동원시켜 산업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산업경제내부의 축적을 더욱 강화하여야할것이다 즉 정확한통계 경제절약 원가저하의 세가지문제가 독립채산제문제해결에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나서게되는것이다。

그러면 매개기업소들은 이 세가지문제에대하여 어떠한 태도로써 림하며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가

(1) 정확한 통계사업의 실시

대체 계획사업을 확실히 집행함에는 반드시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통계없이는 계획을 수립할수없으며 또 그 실행을 검열할수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계획과통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경리를 바로 조직하고 옳게 운영하는데 통계는 절대한 역할을 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북조선에있어서 매개기업소들은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인민경제력을 분유한 완전한 독립채산권을 가진 기본적 생산단위로써 독립한 생산계획과 회계계획밑에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되고있으니만큼 그 생산활동과 회계활동을 계획적으로 옳게 수행하기위하여는 역시 정확한 통계사업을 실시할것이 견결히 요구되는것이다。

통계는 그 관점에의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분할수있으나 기업경리통계의 기본형태는 바란스(정부대조표)적 통계와 일반적통계의 二종으로된다。

바란스적통계는 복식부기원칙하에 기업소의 재산의 증감변동을 기록표시하기위하여 설치되는 정부대조표의 직접통제하에 예속하는 각종통계로써 회계제도의 기본이되며 어떠한 경리체에있어서도 절대불가결의 회계요소인것이다。

다음 일반적통계는 일정기간에 공한 생산계획량 생산실적 생산능률 작업일수 인원등에관한것으로 직접 정부대조표의 통제하에 서지않는 각종 통계이다 일반적통계의 내용과 범위는 그 사업내용과 범위에의하여 결정될것이며 이는 바란스적통계의보조재료로써 사업수행상태를 감독하며 재산의 변동과 기업체의 활동상황을 리해하는데 중요한 재료

이다. 그러므로 이 일관적통계에관한 양식과 기업방법을 적절명료하게 제정하여 정확히·실행하여야할것이 요구되는것이다。

또 통계는 군중을 조직교양하며 사업의 성쇠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생산규률을 공고히하며 태만분자와·해독분자와의 투쟁의무기로도 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술한바와같이 아직도 일부기업소에서는 통계사업을 등한히하는 경향들이있으며 일부 책임자들중에는 이에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소 이러한 책임자들은 통계사업을 경리원의 단순한 기술적사무에 불과하다는듯이 생각하고 이를 경시하는것이다 이는 통계가 정치와 굳게 결부되어있는 사실을알지못하며 통계가 인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을 인식치못한데서 오는것이다。

부정확한통계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적 경제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주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소책임자들은 통계에대한 정치 경제적의의를 일층 정확히 파악하는동시에 자기기업소에 적합한 통계체계를 확립하여 정확한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실지사업에있어서 계획과업수행의 무기로 활용할것이다。

(2) 경제절약의 강화

경제절약은 민주주의국가의 생산을 보장하는 가장 주되는 조건이니 생산기관의 물품소비를 계속 축소시키는것은 한개의 거대한 축적이며 생산증강의 원천인것이다。

민주생활에 들어간지 얼마되지않은 북조선에서의 경제절약은 경제부흥과 새로운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할것이다 비민주주의적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가혹한 인민착취 식민지략탈 국외차관등의 수단으로 경제를 운영하지만 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길을 채택하지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산업발전에서의 내부원천을 전부리용하며 경제절약을 강력히 실시하는방법으로 실행하여야할것이다 우리에게는 산업부흥과 앞으로의 발전을위하여 엄격한 경제절약과 자원축적을 실행하는것만이 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보장하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길이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일부 기업소들가운데는 아직도 이렇듯 중대한 경제절약의 정

치적 의의를 심각히 인식하지못하고 따라서 이를 정확히 실행하지못하는 경향들이 있다。

다시말하면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 문제에대한 경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미약하며 따라서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습관적으로 또는 항례에의하여 아무려한 고려도없이 금전과 물자를 람용하며 또 허비하는 현상들이 있는것이다。

그리고 영구적이아니라 일시적이며 실질적이아니라 형식적인 공작에 많은 물자를 허비하며 내용도없이 외모를 장식하며 실질을 떠난 체면만을위하여 재산을 헛되이 소비하는 경향들도 일부에 결코 없지아니하다 비록 국부적이라할찌라도 이러한 작풍은 시급히 없이하여야한다 이는 자기의 국가적—또 달리말하면 인민적립장을 리탈하여 통일민주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할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망각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경제절약은 국가의 재산을 애호하며 이를 전체인민의 리익에 옳게 리용하며 정확한 통계와 계획으로써 경제적원천을 전적으로 활용하는동시에 비생산적지출을 축소하고 로동능률을 높임으로써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입지출의 근거가될 계산서류를 작성하지않으며 재산을 정확히 통계하지않으며 원가계산을 등한히하며 관리를 엄격히 하지않는 일체경향들도 경제절약에 위반되는 사실이다。

무책임한 일부경리일군들이 무계획 무계산적 방식으로 되는대로 사업하며 자금이 부족한때에는 언제든지 국가경비의 지출을 받을수있는것처럼 인식하고있는것은 전혀 옳지않다。

이러한 경리일군들이 일부에 아직도 있기때문에 국부적으로 비생산적지출이 감소되지않고 생산원가가 저하될대신에 도리어 높아지는 사례들을 왕왕히 볼수있는것이다。

각경제기관일군들은 자기의 사업을 옳게 조직하고 정확한 계획과 엄밀한 계산밑에서 금전과 물질의 랑비를 배제하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며 단 일전(一錢)이라도 절약하여 국가적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할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수준의 향상을 쟁취함에 공헌하여야할것이다。

(3) 원가저하를위한 투쟁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획적으로 저하시킨다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있어서 한개의 중심적지위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一九四八년도에는 생산원가를 一九四七년도실적에 비하여 二五% 내지 六〇% 저하시킬것이 중대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각 국영기업소의 화폐축적은 그가 생산한 상품의 인도(引渡)가격으로서의 가치와 각종 상품의 원가사이의 차액으로 되는것이기때문에 원가저하는 원가저하계획의 조직적수행을 통하여 계획리윤에대한 초과리윤을 발생케함으로써 인민경제적축적을 확보강화하여 국영기업소로하여금 확대재생산의 제리익을 보장케하는것이며 동시에 상금기금을 설정케하여 종업원의 물질적관심을 제고시켜 근로인민과 국가전체의 리익을 더욱 굳게 련결함으로써 로동생산성을 앙양시키는것이다 또 동시에 원가저하는 물가정책에대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물가를 저락시키고 물가의 저락은 근로인민의 실질적 로동대가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근로인민의 복리수준과 생활형편을 향상시키는결과를 가져오는것이다 이외에 원가저하는 국가재정의 계획적수행을 보장하는것이되고 국고예비금설정을 가능케하며 또는 기업경영에있어서 생산활동을위한 자금조[illegible] 기본고리(環)가 되는것이다。

그러면 원가저하를 위하여 각기업소들은 어떠한 방책을 세울것인가?

먼저 원가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보면 원가는 로력임금비 원료자재비 및 경비로써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니만큼 원가저하를위하여는 이 세가지요소에 관련된 지출을 극도로 억압절약하여 소위 최소의 로비(勞費)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여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제품의 생산원가를 저하시키기위하여는 각원가구성 요소별로는고정재산의 애호관리에 특히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 소모부분의 감가소각비의 단위제품당 부담을 축감시키어야할것이며 또 로동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로력비의 단위제품당소비를 축소시키며 기술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원료 자재비 경비의 단위제품당소비를 축소시키어야할것이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은 생산원가저하에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투쟁할것인가

첫째로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방도를 강구하여야할것이다。 즉

ㄱ、생산의 기술적장비를 향상시키며 생산과정을 더욱 합리화하여야할것이다。

ㄴ、전체종업원에게 현단계의 정치로선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의 애국적열성을 환기시키며 로동규률의 강화를 기도하여야할것이다 또 동시에 모범로동자를 활발히 표창하여 다른로동자들에게 자극을 줄것이며 경쟁적 돌격운동을 정밀히 조직하여 널리 전개할것이다 기업소와 기업소사이에、부문과 부문사이에 로력자와 로력자사이에 애국적 생산경쟁운동을 수시 전개할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불균형을 일으킬 우려가있을경우에는 락후한 부문 혹은 반사이에 적시증산돌격운동을 조직실시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종업원의 물질적형편의 조직적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것이며 로동법령에의한 정기휴가제를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안전보장시설의 강화에의한 로력손상의 미연방지등에 창의를 발휘하여야할것이다。

ㄷ、모범적작업방식을 대중화할것이며 부문간 기술교류에 힘써야한다 선진모범로동자를 중심으로 그 작업방식을 보급하여 생산기술지식층의양성、생산로동자들의 숙련로동자들로의 향상、숙련로동자의 기술을 구유한 로동자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기술전습에 적극노력할것이다 동시에 기술은 전습에 그치면 발전이없고 독창적 창발성이 없으면 항상 선진의 뒤만 따르게된다는것을 자각시켜 로동자장호간에 창발성을 발휘할 투지를 배양할것이다。

ㄹ、로력조직의개선에 노력하여야할것이다。

종업원은 범주별 및 로동생산성의 시간적 비교연구에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관리할뿐만아니라 생산에있어서 보조적역활을 담당한 부문의 로력절약에 의하여 생산부문의 기간로력집약화를 도모할것이다 그리고 이와함께 로동자 특히 숙련공의 류동을 퇴치하고 직장에 고착시키며 로력에서의 정량제를 엄수하여 기술로동과 비기술로동사이、어려운 로동과 쉬운 로동사이의 로력의 질과 량에대한 엄격한 원칙적규정을 지어 이에 의거한 공평한 로력보수를 실시할것이며 또 이와같은 로력정량의 정확성등을 목표로하여 합리적인 로력조직을 실시할것이다。

기업소들은 흔히 가장 낮은 과거정량을 표준하여 작업평균정량을 설정하여 생산에 리용하는 일들이 종종있는데、이것은 로력자들의 작업상 긴장

절을 낮추며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것이니 특히 주의를 요한다 로력의 불균형은 로임의 부정확 나아가서는 로동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로동자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킨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둘째로 생산수단과 로력대상의 리용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산수단의 리용개선이란 생산설비의 리용개선을 말하는것이며 여기에있어서는 단위제품당의 감가소각비부담을 축감시키는것이 요구되는것이다 그려기위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생산되는 생산품의 절파 향을 향상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설비기계의 상시운전을 도모하여 그 점검과 손실에대한 엄격한 개인책임제를 실시할것이며 나아가서는 설비기계의 휴전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간손실을 단축하는 방도를 강구할것이다 또는 기계혹사를 없게하며 계절적으로 생산에 여유가있을때에 보수를 완전히 실시함으로써 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할것이다。

다음 로동대상의 리용개선은 원재료의 절약 및 활용 즉 내부원천의 적극적인 동원을 말하는것이다 여기에있어서 단위제품당 소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는

ㄱ、중요원재료 및 보조재료등의 표준원가 단위를 산출하여 원가단위 저하계획을 수립하는동시에 부문별 혹은 생산반별로 원가 단위 저하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적당한 도표로써 표시하여 대중의 시각(視覺)에 호소하는것도 그한방법이다。

ㄴ、물자애호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원로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유휴자재를 적극전용하는동시에 대용품을 리용하여 원자재와 보조자재의 시장의존에서의 리탈을 도모하고 저장품관리에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여 개인책임제를 강화함으로써 절사감모(實査減耗)의 축소에 류의케할것이며 품질규격을 부단히 향상시켜 불합격품과 오작품을 적극 감소시킬것이다。

셋째로 경비절약에있어서는 엄격한 예산제도를채용하여 실비(失費)와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여 경제절약을 실시할것은 물론이거니와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九九호와 제一〇四호를 준수하여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일체의 랑비현상과 부정행위에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동시에 기본건설금과 류동자금은 상호 엄격히 구분하여야한다。

이상 원가저하를위한 몇가지방책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명심하여야할것은 원가저하에있어서 가장 핵심적역활을 담당한 요소는 생산능률제고에있다는것이다 생산능률제고는 민주건설에있어서 우리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각기업소일군들은 생산원가저하의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는동시에 위에 지적한 제방책을 엄격히 실천하기에 적극 노력할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원가저하는 어김없이 쟁취될것이며 또 그 충분한 가능성을 가져오게될것이다。

생산원가저하를위한 투쟁은 고상한 애국적 건국사상투쟁이며 인민경제건설을위한 투쟁이다 인민경제발전에있어서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는문제는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며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원가의 저하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있어 중요한 지표인동시에 전체근로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되어야한다。

四

이상 독립채산제실시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몇가지 중심문제에 론급하였다。

그런데 기업소들이 이러한 중심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고 독립채산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며면 경제관리방법으로서의 유일관리제가 가장 필요한것이다。

一九四七년도에 북조선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이후 위에 지적한바와같은 결함과 단점들이 그 실시의 구체적인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결점은 독립채산제실시에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인 유일관리제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고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게된 사실이다。

독립채산제와 유일관리제는 불가분리의 관계를맺고있는것이다 만약 독립채산제를 경제운영의 기본방식이라한다면 유일관리제는 경제관리의 주요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국영기업소들은 유일관리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할것이다。

유일관리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임명된 일정한책임자 즉 지배인이 전책임을 지고 그 기업소를 관리하는것을 말한다 국영기업소 지배인은 법적인 책임자로서 자기맡은과업을 실시함에있어서 국가와 인민들앞에 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유일관리제에있어서는 책임자의 책임을 어떤 다른사람이 대신할수없고 또 그 책임자의 활동은 전혀 다른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것이다 따라서 유일관리제는 국영기업소사이에 흔히 류행하고있는 호상책임전가를 근절하여버리는 가장 좋은 방도가 되는것이다。

이같은 유일관리제에있어서는 상급기관은 산하각기업소에대하여 계획과업을 부여하는동시에 일정한 계획밑에 원료 자재 자금등을 배당하여주며 지배인은 그 과업완수에있어서 전책임을 지게된다 즉 유일책임제는 그 책임실행의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유일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책임자의 책임회피를 퇴치하고 무책임성을 반대하며 그들의 책임감을 일층 앙양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과업을 일정한 기간내에 완수하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지적한바와같이 유일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만 경제를 옳게 조직관리하며 생산능률을 제고시키고 계획과업을 제때에 완수하여 인민경제를 최고도로 발전시킬수있는것이다。

유일관리제에있어서 기업소의 지배인은 그 기업소의 지도자이다 상급기관은 온갖 지도를 그 기업소지배인 즉 지도자를 통하여 시행하며 그 기업소에서 복무하는 전체종업원들은 직접 지배인에게 복무한다。

유일관리제에있어서 상급기관은 지배인에게대하여 기업운영 관리 로동자 및 사무원의 임면 각관계경제기관간에 사업상 요구되는 각종계약체결 및 생산재정계획수립등에 관한 일체권리를 부여한다。

지배인은 이와같은 권리를 가진것만큼 위에 말한바와같이 전체기업에 대한 온갖 책임을 국가와 인민앞에 지게되는것이다。

즉 지배인은 계획과업의 질적량적으로의수행 원가저하 경비절약 및 그 기업의 채산등에대하여 성과있게 사업할책임을 진다。

이렇게함으로써 기업소책임자는 그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기위하여 최대의 노력과 최고의 창발력

을 발휘하면서 국가사업성취에 적극 투쟁하게된다。

그런데 여기한가지 중요한것은 유일관리제를 완전히 실시하려면 반드시 지배인자신이 실제 산업기관의 기술경제 재정에 관한것을 습득하며 자신이 일의 주인이 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에 있어서 각 국영기업소책임자들은 항상 기술과 생산에 관한 과학을 습득하며 한편 어떤부문에서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모든 원료 자재 자금의 계획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각기업소내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자기들의 고상한 의무인것을 알아야한다. 상급기관에서는 각국영기업소들이 유일책임제를 실시하는데대하여 적극 원조하여야하며 지배인늘은 각각 그 신성한의무를 다하여 독립채산제를 옳게 운영함으로써 인민경제수행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의 경제토대를 튼튼히하기위하여 돌진하며 투쟁하여야할것이다。

南朝鮮을 分割隷屬化하려는 米國의 軍事的經濟的政策

石 局

一

米帝國主義者들은 自己의 膨脹主義的 侵略的野慾을 滿足시키기위하여 第二次世界大戰의 砲煙과 피비린내가 아직 사라지기도前에 또다시 第三次大戰을 挑發하려하고있으며 軍事的侵略計畫을 遂行하기爲하여 히틀러와같은 冒險的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米國의 軍事—戰略的計畫은 쏘聯과 新民主主義諸國에對한 侵略的目的에 利用할 數多한 基地와 鍊兵場을 아메리카大陸으로부터 아주 먼곳에 創設할것을 豫見」(스다노브)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 計畫에依하여 이미設置되었고 또는 建設中에있는 米國의 空軍및 海軍基地中 極東에었어서의 重要한 一環으로써 南朝鮮이 登場하고있다。

米帝國主義者들이 反쏘 反民主 反人民的侵略計畫을遂行하기爲하여 太平洋沿岸에 軍事侵略基地를 設置하려고 얼마나 狂奔하고있는가는 다음과같은 事實이 이를證明하고있다 미조리州出身 共和黨下院議員「뒤이·쏘트」의 記者團과의 談話에 依하면「太平洋地區의 米國基地를 視察」하기爲하여 一九四六年八月九日 켄쩌스터를 出發한 米國「下院軍事問題委員」의「旅行目的은 (一) 將次 米國防禦에 必要한 基地視察 (二) 占領軍狀態視察 (三) 쏘聯에對한 對策을 講究하기爲한것等이다 視察地는 아라스카、하와이、퀘제린、괌、朝鮮、中國、滿洲、日本、比律賓濠洲等이며 歸路에는 마샬諸島와 마리아나諸島를 視察할것이다」(一九四六·八·九 에이·피通信 同年八·一一 朝鮮人民報)

이米國下院軍事委員은 月餘에 걸친 太平洋基地視察後「米國의防禦」와「쏘聯에對한對策」으로서 다음과같은 結論을내리였다「米國은 今後 쏘聯의膨脹에對處하기爲하여 太平洋地區에있는 米國基地를 强化시킬必要가있다 姓名은 밝히고싶지않지만 내가 東京에到着하였을때 米國某海軍提督은 나에게 現事態에 비추어보면 日本人은 次期戰爭에있어서 米國軍服을 着用하게될는지모른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露骨的으로말하면 次期戰爭이라는것은 쏘련과의戰爭을 意味하는것이다 如何間 아라스카、아류샨、괌、싸이판、硫黃島、하와이等 各基地는 特히强化하여 堅固不落의 基地로만들어놀 必要가있다 日本南部九州地區와 日本本土附近에는 巨大한 防禦圈을 樹立할必要를 느낀다 한편 現世界에있어서 가장危險性을 內包하고있는 地點은 歐洲의 트리에스트와 極東의 朝鮮이다」(호노루루에서의「쏘트」談話 一九四六·九·一八 에이·피通信 同九·一九 서울신문) 또 그는 米軍의 南朝鮮駐屯의 必要性을 强調하여 다음과같이 結論하였다「朝鮮問題는 火藥庫가될 可能性이 있다는點을 내가 맥아더將軍에게 强調하였다……朝鮮民衆은 米쏘兩軍의 駐屯을 要望치않고있으며 兩軍撤退를 渴望하고있다 米軍은 明日이라도 朝鮮으로부터 撤退할意思가 있으나 쏘聯軍이 撤退하지않을것이므로 米軍 亦是繼續駐屯하여야할것이다」(一九四六·九·二三 에이·피 同九·二四 서울신문)

"米帝國主義者들의 露骨的인 侵略意圖와戰爭放火者로서의 本性은 이米國下院軍事委員의 입을通하여 그輪廓이 露呈되었다。

戰爭放火者들은 反쏘戰을 挑發하기爲하여 太平洋沿岸各地에 米軍事基地를 强化 또는 新設하고있으며 戰爭犯罪者 日本軍國主義者들을 釋放庇護하여 그들에게「米國軍服을 입힐」計畫을 進行하고있을뿐만아니라 朝鮮에서「쏘聯軍이 撤退하지않을것이니까 米軍亦是 繼續駐屯한다」는 欺瞞(이欺瞞은 쏘聯의 兩軍同時撤退의 提案을 拒否함으로써 그本質이 餘地없이 暴露되었지만)으로써 米軍의 南朝鮮永久駐屯을 꾀하고있으며「朝鮮은 戰略的으로 獨逸과같다」(米國某新聞編輯人피립·심스評、뉴욕、一九四七·二·一九 에이·피通信)「朝鮮은 트리에스트와같이 危險性을 內包하고있다」「朝鮮問題는 火藥庫다」(前記쏘트談)等으로 好戰家들은 神經衰弱患者들을 놀래게하여 南朝鮮軍事基地化를 强行하려하고있는것이다。

一九四六年六月二十一日 워싱톤發 에이·피通信의報道에依하면 米陸軍省은 恒久的海外基地設置計畫을 實行하기爲하여 三億一千九百萬弗을 計上하였는데 이中에는 比律賓、中國、日本 및 沖繩等 太平洋各島

輿와 아울러 朝鮮도 包含되어있다고 傳하고있다 (一九四六·六·二三 朝鮮人民報) 그들은 이와같은 直接的인 軍事豫算뿐만아니라 『經濟的援助』니『借款』이니하는 各種名目으로『米國陸海軍過剩物資』를 多量으로 南朝鮮에 輸入하고있으며 또 米軍軍需品을 搬入하고있는것이다 『米軍政은 米軍物資의輸送을 理由로 朝鮮사람의 物資輸送을 中止시키고있다』(一九四七·一二·二一 朝鮮通信)는 報道와『旅客列車의大幅的運轉休止의 原因의 하나는 米國商品을 運搬하기爲한것』(一九四七·一一·二四 軍政長官된談話)이라는 軍政長官自身의 言明은 이것을 證明하는것이다 이와같이 軍事豫算과 軍用品輸入으로서 米帝國主義者들은 南朝鮮軍事基地構築에 狂奔하고있는것이다 于先 그들은 南朝鮮에上陸하자 곧 京仁街道를 擴張改修하였으며 그後 곧 開城과 京城사이의 臨津江一帶에 反쏘 反北朝鮮의 防禦線을 構築하였고 京城을 中心으로한 三角山附近 京仁街道一帶에 黑人部隊와 米國人만으로 軍事施設을 構築한것은 이미 周知의事實이다。

그뿐만아니라 釜山—京城間 九百八粁의道路를 一九四六年十月부터 四七年六月까지의 短時日안에 巨額의工事費와 八十五萬名의 人員을 動員하여 一大補修改築工事를 完成하였으며 또 三八線에 沿한 江原道橫斷道路를 新設할計畫을 推進시키고있는것이다 또『金浦飛行場을 經由하는 京仁新街道도 新設되었다』이와같이 軍用道路들을 新設補修하는同時에 上陸基地로서『仁川港의 擴張工事를進行시키고있으며 新埠頭의 建造도 進行中에있다』『釜山港도 大々的으로 擴張되고있으며 그東北方에 新港口를 新設中에있다』으와같이 『米國當局은 朝鮮人民의 悲慘한狀態에는 關心을 돌리지않으면서 다만 朝鮮을 軍事基地로 轉換하는데만 注意를 돌리고있는것이다』(新時代第三十四號 보로차예브쓰끼氏의南朝鮮紀行文)

이와같이 米帝國主義侵略輩들은 南朝鮮軍事基地化를 꾀하면서『第三次 世界大戰의 危機』『쏘聯의侵攻』『共産主義者들의 叛亂』『內亂의危險等』을 虛構宣傳하여 米軍의 南朝鮮長期駐屯을 合理化하려하고있다。

前記한바와같이 米國下院軍事問題委員 쏘트의 露骨的인 反쏘戰煽動은 好戰的인 米帝國主義者들의 本性을 남김없이 呈示하였지만 하지도 또한 일찌기 말하기를『米國은 쏘聯과의 關係에있어서 再考慮할 時期에到達하였다 그것은 루즈벨트以前으로 돌아가

든지 只今 곧 開戰하든지 두가지길이다』(而丁『南朝鮮의 現段階와 우리의任務』)라고 反쏘侵略戰爭의 本心을 吐露하였던것이다 또 그들은『쏘聯이 北朝鮮에 多數의部隊를 集結中이므로 有事時에는。우리들에게 새로운 당케르크를 生覺케할것이다 多數의 赤軍은 少數인 米軍을 困難없이……驅逐할수있을것이다』(星條紙論評 一九四六·九·一七 서울신문)라고『쏘聯의 侵攻』을 虛構宣傳하는同時에 米駐屯軍의 不足을 呼訴하였던것이다 이에呼應하여 하지도 또한『南朝鮮의 米國兵力은 危險을 느낄만큼 적다……人員이不足하므로 治安維持는 困難하다』(米國參謀次長 코린스에게보낸 하지의 秘密電文—一九四八·六·一 워싱톤發유·피通信 同六月二日朝鮮中央)고 本國에 南朝鮮米駐屯軍兵力增强을 要請하였던것이다。

또그들은『北朝鮮駐屯쏘聯軍司令部는 南勞黨々首許憲氏에게 南朝鮮革命을 指令하였다』(一九四七·二一 유·피 서울特派員 提供)或은『米軍 當局은 共産主義者들이 騷擾事件을 일으킬것이라는 報告를 받았다』(一九四八·八·八 유·피 로이터特派員 提供—同年八·一二合同通信)等々으로써『革命의危機』『共産主義者의 叛亂計畫』을 虛構하는한편『南朝鮮에는 米軍이 北朝鮮에는 쏘聯軍이 駐屯하고 있는限 朝鮮에는 內亂이 없을것』이며『萬一兩軍이 朝鮮에서 撤退』한다면『內亂이發生』(一九四八·九·一○ 유·피通信) 할것이라고『警告』하면서 米軍의 南朝鮮駐屯의『必要性』을 强調하고있는것이다。

以上과같이 온갖 虛僞와 捏造로써 米軍의 南朝鮮長期 駐屯의『必要性』을『証明』하려하지만 朝鮮人民과 世界平和愛護人民들은 여기에 絶對로 속지않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合法的』으로 長期駐屯할수있는 方法을 생각하게된것이다。

그 첫째方法은 유·엔을 利用하는것이다 即 그들은 유·엔에加入하고있는 自己의忠僕들로하여금 米國의 要求대로 朝鮮問題를 決定하게해놓고 自己들은 그 決定에依據하여 또 그決定에忠實하기때문에 南朝鮮에 駐屯하고있는것같이 假裝하려는것이다(勿論朝鮮問題를 유·엔總會로 끌고가는 그自体가 유·엔憲章違反이며 不法的行動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그問題에 對해서는 여기서 이以上더 言及하려 하지않는다)

米國務長官 마샬은『米國政府는 유·엔의同意없이는 自國軍隊撤收에關하여 如何한行動도 取할수없다고 決定하였다 그런데 유·엔은……相當한期

間、米軍이 南朝鮮에 殘留하도록 米國에 要請할것으로 豫想된다」(一九四八・五・一四 유・피通信 同年六・五「노려자」)고말하고있다 「유・엔朝鮮委員團」比律賓代表 아란스는 「朝鮮政府를 樹立한後에 米國과交涉하여 朝鮮政府를 防衛할만한 軍事施設을 整備하기를 米國政府에 提議하였다」(一九四八・三・二「獨立新報」)고 放送하였다 이와같은 豫想과 「提議」에依하여 「유・엔朝鮮委員團」은 그 유・엔總會에의 報告中에서 「南北兩韓間의 平和交涉을爲한 某種 節次가 設定될때까지」米軍의 「韓國에對한 軍事占領은 繼續되어야한다」고 提議하였다(世界日報一九四八・一〇・三一)이「提議」는 米國의 指示에依한것임은 두말할것도없거니와 이와같은 旣成의腹案을「提議」케하기爲하여 米國이 「유・엔朝鮮委員團」을 派遣하였던것도 또한 周知의事實이다。

둘째는 괴뢰李承晩「韓國政府」로하여금 米軍의繼續駐屯을 「要請」케하는것이다 即「마치 自己들은 朝鮮에서 撤退하려하지만 朝鮮人自体ー「韓國政府」ー의 要請에 依하여 남아있는것처럼 表示하려하는것이다」(南北朝鮮諸政黨社會團体指導者協議會에서의 朴憲永先生報告參照) 米軍政長官 퓐은 「米軍으로서는 朝鮮에 이以上 더駐屯할 意思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將來樹立될 朝鮮人政府가 願한다면 繼續駐屯할수도 있을것이다」(一九四八・三・一二 서울신문) 라고 말하였다 當時 이미所謂 「朝鮮人政府」의 「大統領」으로 約束받았던 李承晩은 이에對答하여 「우리가 承認된政府를 가지게되기만하면 우리는 蘇聯에게 朝鮮으로부터 물러가라고 要求하는同時에 米國에게는 머물러있을것을 要請할터이다」(一九四八・五・一 朝鮮日報) 라고말하였던것이며 「大統領」으로「被選」되자 「政府는 「解放軍」(米軍을指稱한다)이 當分間 當地에 머물러있기를 正式으로 要求」할것이라고 말하였던것이다(에이・피特派員 一九四八・八・九 民主日報) 朝鮮民族의 怨讐 老兇 李承晩은 이것에 끄치지않고 그의 忠僕인 民族叛逆者들中에서 고르고골라서 「유・엔代表」니 「大統領特使」니하여 米軍長期駐屯을 要請케하기爲하여 米國과 유・엔에 派遣한것이다 「유・엔代表」張勉과 金活蘭은 各々「韓國政府」는 米軍에 對하여 繼續駐屯을 要求할것이다」(一九四八・九・一四 서울신문)「米軍은 南韓駐屯을 繼續해야할것이다 우리는 米軍의 撤退를 不願한다」(一九四八・九・一二 에이・피通信)고 뉴・욕

에서 狂態를 演出하고있으며 「大統領特使」趙炳玉은 「米軍은 南韓에 無期限殘留하기를 希望한다」(一九四八・九・一一유・피通信 同年九・一二大韓日報)고 放言하여 親米走狗賣國奴로서의 本質을 숨김없이 露呈하고있다。

米帝國主義는 그侵略政策 南朝鮮軍事基地化政策ー南朝鮮永久駐屯의野望을 그走狗인 朝鮮의 民族叛逆者 親日・親米 賣國奴들의 幇助에 依하여 着々實行하고있으며 유・엔및 「유・엔朝鮮委員團」의 그忠僕들을 動員하여 이를「合理化」하려고 狂奔하고있는 것이다。

二

米帝國主義者들의 南朝鮮에있어서의 經濟政策은 典型的 植民地奴隸化政策이며 南朝鮮으로하여금 米國의 完全한 商品市場、原料供給地、資本投下地로 만들려는 政策이다 朝鮮의 自主獨立의 物質的土台인 經濟的自主權을 송두리채 剝奪하여 經濟復興과 生産增强을 妨害할뿐만아니라 工場을 閉鎖하고 鑛山을 破壞하여 産業의 完全한破滅을 招來하고있다 이것은 米國商品을 輸入하기爲한 基礎工作인것이며 그有力한 한 方法으로서 「敵産拂下」라는 方法을 利用한것이다 南朝鮮 工場 鑛山等 生産企業所의 八〇ー九〇%를 占하고있는「敵産」을「敵産拂下」라는 名目下에 直接 間接으로 米國人들이 所有하고 一部를 國內 謀利奸商輩들에게 넘겨줌으로써 産業國有化의길을 妨害하는 한편 生産을 極度로破壞시켰던것이다。

이와反面에 借款이니 經濟援助니하여 直接 米國의 過剩商品을 輸入하였을 뿐만아니라 民間謀利輩들의 民間貿易을 直接 間接으로 援助하여 米國商品의 無制限한 氾濫을 招來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 米帝國主義者들의 經濟的侵略政策은 오늘날 南朝鮮의 經濟形便이 如實히 證明하고있다。

「官制」統計에依하여만보더라도 于先工業에있어서 南朝鮮全体 工場 事業場數를보면 一九四三年六月現在 一〇、〇六五個所였던것이 一九四七年三月現在는 四、五〇〇個所로 即 四四%로 減少되었으며 就業勞動者數는 一九四三年六月現在 二二五、三九三名에서 一九四七年三月現在 一三三、九七九名으로 即 五九%로 減少되었다(朝鮮銀行調査部發行 朝鮮經濟年報 一九四八年版 一ー一〇二페지ー以下 出處를 特히 밝히지않고 페지數만을 記入하는것은 全部 同書를 表

示합) 特히 土木建築業에있어서는 同年間에 企業体數가 九九七個所에서 九〇個所 即九%로 勞動者數는 二三、六八〇名에서 六、二九七名 即 二一·五%로 食料品工業의 事業場數는 一、七〇四個所에서 六四三個所 即 三七·七%로 各々 激減하였다 (同上) 이것 만으로도 南朝鮮工業의 破壞狀을 充分히 알수있지만 그中 重要한 工業을 簡單히 살펴보기로 하자。

金屬工業에있어서는 上記期間中에 工場數는 四一六個所에서 二六二個所 即六三%로 勞動者數는 一二、五七八名에서 六、一一八名 即四八%로 各々 減少하였으며 (同上) 一九四七年度 金屬工場生産實績은 二萬五千六百四十八톤으로 生産能力 一二八、一一〇톤에比하여 實로二〇%에 不過하다。(一一〇三페지)

機械工業에있어서는 工場數는 一九四七年三月現在 八七四個所로 一九四三年六月現在 九四四個所에比하여 그리 減少되지않았지만 그生産能力에 있어서는 急激히 減少되였다 一例를 電氣器具生産에 들어본다면 現設備의 生産能力에比하여 一九四六年度生産量은 一五% 一九四七年度生産量은 二二%에 不過한것이다。(一一一一페지)

南朝鮮工業에있어서 가장重要한工業의 하나인 紡績工業에있어서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于先 工場數에있어서 一九四三年三月現在 一、六八三個所던것이 一九四七年三月現在 五三七個所 即 三一·九%로 減少하였으며 그生産量에있어서는 一九四一年度에比하여 一九四七年度는 一五·九%로 激減하였다 (一一一三페지) 이러한結果 纖維物의 配給量을보면 一九四六年七月부터 一九四七年十二月까지 十八個月間에 綿布는 一人當一嗎 交織은 二十人當一嗎 人絹은 三三人當一嗎 양말은 八人當一足에不過한것이다。(一一七頁)

다음製紙工業에있어서는 生産能力은 一一二、六七〇千封度로 이것이 全部 操業生産된다면 南朝鮮의 需要量 七千萬封度를 全部供給하고도 四千萬封度의 餘裕가있음에도 不拘하고 一九四七年度生産量은 需要量의 十分之一에不過한 八、〇八八千封度밖에 生産하지못하고 나머지 約九割은 外國에서 輸入하고있는것이다 一九四七年度生産量은 生産能力의 實로 七·一%에 지나지않는것이다。(一一一〇九페지)

工業部門에있어서의 生産萎縮乃至破壞는 以上과 같이 悲慘하지만 鑛業部門에있어서는 그것이 더욱甚하다 一九四七年末現在 採鑛하고있는 鑛區數는 一一九鑛區로서 南朝鮮總鑛區數 四、五八二個所의 二·六%에 지나지않으며 作業하고있는 鑛山數는 亦是 一九四七年末現在 五四個所에 不過하다 (一一八八페지) 鑛山物生産量을보면 近代工業의 中軸인 鐵鑛은 南朝鮮에 七七個所의 鑛區를 가지고있음에도 不拘하고 그生産은 全無이며 一二六鑛區를가지고 全朝鮮石綿生産의 거의全部인 四千톤以上을 生産하던 南朝鮮이 現在는 一톤의 石綿도 生産하지 못하고있으며 其他 螢石 雲母 明礬石 滿俺等도 全然生産하지못하고있다 現在 生産되고있는 鑛石도 過去實績에 比하여보면 全然 問題가 되지않는다 第一成績이 良好한 鑛産物의하나인 銅生産도 一九四七年度 一、八三五톤으로 一九四三年實績의 一〇%에不過하며 金은 一四四、五〇四그람으로 一九四二年度의 五十分之一 (一九四六年 金生産은 九톤) 鉛은 三三三톤으로 一九四二年度의 六% 亞鉛은 三〇톤으로 一九四二年度의 二百分之一 等々이다 (一一八八페지 및 三一四〇페지)

以上과같이 全鑛業이 거의 全滅狀態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例外的으로 增産되는 鑛物이있으니 그것은 米國이 要求하는 重石과 黑鉛 이그것이다 重石은 一九四六年에 三八九톤을 生産하던것이 一九四七에는 約三倍 增産되어 一、一三三톤을 生産하였으며 그生産量全体를 米國으로 輸出하였고 土狀黑鉛은 一九四六年에는 生産하지 못하던것이 一九四七年에는 二、六〇〇톤을 生産하여 過去의 在庫品까지 合하여 一九四六、七兩年동안에 一五、七九四톤을 輸出하였으며 鱗狀黑鉛도 一九四六年에는 二〇四톤을 生産하였던것이 一九四七年에는 約七倍인 一、五九三톤을 生産하여 이것 亦是 在庫品까지合하여 一九四六、一九四七兩年間에 二、五六二톤을 輸出하고있다 (一一八八、八九페지 三一四〇페지)

南朝鮮農業에있어서도 우리는 같은現象을 發見한다 耕作面積과 穀物生産高는 年々이 減少되고있는것이니 一九三五年—一九三九年平均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六年의 耕作面積은 七九、一九四七年의 그것은 七一로 減少되었으며 穀物生産高는 一九四六年의 七一로 低下되었다 (一一三二三페지) 다시 夏穀生産을 例로들어보면 一九四二—一九四四年平均 八、六七四千石이었던것이 一九四六年에는 四、九六三千石 即 五七·三%로 一九四七年은 다시

三、七一四千石 即 四二・八%로 急激히 減收되였다(一—二四八페지) 이와같이 耕作面積과 生産高가 減下됨에도 不拘하고 米軍政當局은 何等의 對策도 講究하지않고 다만 米國으로부터 食糧을 輸入하기에만 汲々하고있는것이다 南朝鮮의 食糧「不足」을 補充하기爲하여 一九四六年五月부터 一九四八年七月까지 米國으로부터 輸入한 糧穀은 七七四、四二九톤(六百餘萬石) 八月一日現在 配給價格으로 計算하더라도 實로 一六、九六六百萬圓(이것을市場價格으로 換算한다면 千餘億圓에 達할것이다)의 巨額에達한다(一九四八・八・五 朝鮮中央日報) 그反面에 生産增加 乃至 維持에對한 對策은 全然 講究하지않는것이다 一例를 土地改良事業에 들어보면 解放後 一九四八年三月까지 實施한 土地改良은 全体로 一萬町步에 不過하며 解放前 日本帝國主義者들이 이미四、五割을 進行하였던 約十二萬町步는 米軍이進駐後 그大部分이 中止된것이다 그리고 解放後 三年間에 土地改良事業에 支出한 金額은 十八億圓에不過하다 그反面에 所謂 食糧統制費로서 二年間에支出한 金額은 五十八億이며 一九四八年四月까지 輸入한 食糧의 價格은 一二、七三五百萬圓에達한다 食糧增産을 爲하여 支出한 土地改良費는 食糧統制費의 三一% 食糧輸入額의 一四%밖에 되지않는것이다。 食糧增産을 爲한 施策은 實行하지않으며 또 이미 着手하였던것까지 中止하면서 그몇分之一의 費用만 支出하여 土地改良事業을하면 充分히 食糧問題를 解決하고도 남음이 있을 그런 巨額을 支出하여 朝鮮人民이 絶對 싫어하는 米國의 밀과 강냉이를 떠 맡기고 있는것이다。 한편 食糧이 不足된다고 떠들어대면서 生産된 糧穀은 그全部를 人民에게 供給하지않고 그相當한部分이 行方不明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發表한數字만을 가지고 計算하여도 明白한것이다 例를 米穀에 들어보자 南朝鮮米穀生産은 一九四六年度는 一二、〇五〇、二八八石 一九四七年度는 一四、一九九、八〇九石(三—二六페지)이라고 發表하였다 이것을 亦是 그들이 發表한 人口數 一九、三六九、二七〇名(一九四六年度)과 一九、六九八、五四七名(一九四七年度)으로 各々除하면 一九四六年度는 一人一日當 一・七合、一九四七年은 一・九七合에該當한다 이中에서 亦是 그들이 計算한 食糧以外의 消費量 即 種子用 四三六千石 搗精損失、五六七千石

自然減耗 二十六萬石 計 一、二六三千石(一—二四五페지)을 減한다하더라도 一九四六年은 一・五三合 一九四七年은 一・八合에 該當한다 그러나 實際配給量은 一九四七年六月까지는 大略 一合을 配給하였고 그後는 〇・七合으로 減少되었으며(一九四七・六・二八 光明日報) 一九四八年九月부터는 다시 〇・五合으로 低下되었다(一九四八・九・一 國際日報) 이米穀配給에있어서의 變動을 度外視하고 또 配給이 正常的으로 되지않는것도 不問에붙이고 平均〇・七合 配給을 繼續하였다고 假定하여 計算하면(人口는 二千萬으로 假定하고) 一年에 五、一一〇千石이면 充分하다 그렇다면 一九四六年은 六、九四〇千石 一九四七年은 九、〇八九千石이 各々 남아야할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食糧이 不足된다고 米國에서 小麥、小麥粉、大豆粉、砂糖等을 上記한바와같이 三年間에 六百餘萬石이나 輸入하여 米穀代身에 配給하고있다 그러면 一九四六、四七兩年間에 消費하고남는 一千六百萬石의 米穀은 무엇에 使用하였는가? 그것은 米國의 過剩食糧을 輸入하기爲하여 그大部分을 外國으로 密輸出하고 그一部는 謀利奸商輩의 倉庫속에 貯藏되어 暴利의源泉이되고 있다고밖에 볼수없으며 또그렇다고 確言할수있는것이다 「日本大阪朝日新聞의 朝鮮으로부터 糧穀約八〇〇萬石이 輸入되었다는報道」(「九・二一「國會」에서의 曹奉岩의答辯」)는 이것을雄辯으로 證明하여주는것이다。

以上과같이 生産을 破壞하여 商品市場의 地盤을 닦는한편 米國人들은 侵略的貿易政策을 推進한것이다 于先 對外貿易에關한 一切權限을 米軍政長官이 獨占掌握하고「軍政長官 又는 朝鮮軍政廳의 正式代理者로 軍政長官이 指定한 代行機關이」對外貿易을 할수있는「權限을 賦與한者 以外는 此를 禁止」(一九四六・一・三附 法令第三十九號、第一項) 하였다 이와 同時에 米國商品이 아무 支障없이 朝鮮으로 輸入될수있게하기爲하여「現行 輸入稅率을 減下할 目的」으로 一九四六年一〇月八日附 法令 第一六六號를 發布한것이다 이에依하여「課稅額은 輸入物品價格의 一割을 超過하지못하」게되었다(第二條) 이와같은 低率關稅로써 米國商品이 自由로 流入할수있도록 門戶를 開放한것이다 또 그細則에依하면 十五年前에 日帝가 그當時의 物價를 基準으로하여 制定한 法令을 그대로 適用하도록 되었을뿐아니라 日帝法令에도 七〇乃至一〇〇%의 稅率이있던것을 全部一律로

一〇%로 減下시킨것이다 이에依하여 몇가지商品의 一〇〇斤當 關稅를보면 機械類는 六圓七十五錢 織物 紙類는 一二錢 毛織物은 一一二圓一八錢 세멘트는 二〇錢으로되어있다 오늘날의 物價를 考慮한따면 이것은 免稅나 조금도 다를것이 없는것이다 (一九四七・一二・二八 獨立新聞參照)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行하여지는 南朝鮮의 對外貿易은 完全한 植民地的貿易이아닐수없는것이다。

于先 貿易額을 보면 所謂 民間貿易만에서 一九四六年은 輸入이 一六八、四〇六千圓 輸出이 四七、七三八千圓 輸入超過가 一二〇、六六八千圓이었으며 一九四七年은 輸入이 二、〇八八、一二五千圓 輸出이 一、一一一、〇八二千圓 輸入超過가 九七七、〇七三千圓이었다(三一一二페지) 一九四八年은 仁川港一港만 보더라도 一月부터 八月까지 八個月間에 輸入이 三、五〇九、一〇四千圓 輸出이 一、三一六、〇七六千圓으로 輸入超過가 實로 二、一九三、〇二八千圓이라는 巨額에 達하고 있다(東亞日報 一九四八・七・七 및九・四)

다음에 物品別 貿易額을 봄으로써 그 植民地的性格을 더욱 뚜렷이 알수있다 一九四七年度의 貿易內容을보면 輸入에있어서 完製品이 一、〇六四、〇八四千圓으로 全輸入額의 五一%이며 여기에 半製品까지를 合하면 六九%에 達하는것이다 그反面에 輸出에있어서는 完製品은 七七、九〇七千圓으로 全輸出額의 七%에 不過하며 나머지는 全部가 原料 或은 食料品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外國의 完製商品을 輸入하고 自己의 原料品을 輸出하는 典型的인 植民地貿易─外國의 商品市場과 原料供給地로서의 南朝鮮貿易의 特性을 볼수가있다。

다음에 所謂『軍政貿易』과『過政貿易』을 보면 上記한『民間貿易』은 問題도 되지않으리만치 그貿易額이 天文學的 數字라는것을 發見할것이다 勿論 이 貿易額에關하여는 그具体的數字를 發表하지않으므로 正確한 金額은 알道理가없지만 다만 때때로 또 部分的으로 發表되는 數字만을 주어모아보아도 다음과같은 놀라운 金額에 達하는것이다。

	輸　入	輸　出	入　超
軍政貿易	一九八八、八五〇、二四〇弗	―	一九八八、八五〇、二四〇弗
過政貿易	二一、五〇〇、〇〇〇弗	五、三九九、九〇九弗	一六、一〇〇、〇九一弗

		輸　入	輸　出	入　超
民間貿易	弗貨	四、五一三、〇六二弗	二、三一六、四六六弗	二、一九六、五九六弗
	圓貨	二、二五六、五三一千圓	一、一五八、二三三千圓	一、〇九八、二九八千圓
弗貨計		二二四、八六三、三〇二弗	七、七一六、三七五弗	二一七、一四六、九二七弗
圓貨로換算		一一二、四三一、六五一千圓	三、八五八、一八八千圓	一〇八、五七三、四六三千圓

(一一二七페지)

即、輸入超過가 勿驚 一、〇八五億七千萬圓이라는 天文學的數字이며 輸出은 輸入의 二九分之一도 못되는것이다。

이와같은 貿易은 世界 어느植民地에서도 찾아볼수없는 다만 米軍이 進駐하고있는 南朝鮮에서만 있을수있는 貿易이다 이와같은 輸入을 가지고있는 南朝鮮이 完全한 經濟的破滅을 가져오는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以上과같은 米帝國主義者들의 南朝鮮에對한 侵略的經濟政策은 必然的으로 人民들의 物質生活條件의 惡化、物價의 騰貴、賃金의低落、失業者의 洪水等의 結果를 招來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生産의 急激한 低下와아울러 米軍政의 紙幣濫發政策은(一九四八年九月四日現在 三百十二億 解放直後의 三・七倍) 惡性인푸레를 促進하고있다 서울市內 生活必需品小賣物價指數를 보면 一九三六年을 一〇〇으로하여 今年一月은 八五、七一七 二月은 八八、五二三으로되어있다 그反面에 賃金指數는 今年一月現在 一八、七一五에不過하다 이것을 物價指數로 除한 實質賃金率은 二一・八% 即一九三六年에比하여約五分之一로 低下된것이다 이實質賃金도 漸々 더 低下되고있는것이니 一九四六年一月에는 三一%一九四七年一月에는 二七・四%던것이 一九四八年一月에는 또다시 二一・八%로 低下된것이다。(民聲 一九四八第五號第三〇페지)

이와同時에 南朝鮮의 失業者數는 漸々늘어가고있는것이다 米軍政廳의 公式發表에 依하더라도 一九四六年十一月末現在 一百五萬이다 (一一六페지) 이數字自体가 極히 縮少된 數字이며 또 그後 工場 鑛山等이 더욱 閉鎖破壞되었음으로『一九四七年十二月現在는 約二五〇萬에達하며 (보로챠예브쓰끼─『南朝鮮紀行』─新時代誌第三十四號) 現在는 이것이 더욱

增加되었을것이다。

南朝鮮의 經濟形便은 以上에서 例擧한 몇個의 例로서도 充分히 알수있는바와같이 오늘날 完全한 經濟的破滅의 深淵에 빠져있는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工場、鑛山、企業所、土地 其他一切經濟의 管理權을 朝鮮人民에게 넘기는것이 아니다 이것을 自己들의 手中에 틀어쥐고 自己의 走狗 親日派 民族叛逆者 謀利輩들과 結託하여 自己들의 利益을爲하여 運營하고있으며 둘째로 經濟의 急速한 復興과 發達을 保障하는 民主改革은 實施하지 않고 反對로 도리어 反動的經濟秩序를 더욱强化하고있으며 셋째로 經濟를 復興 再建하여 朝鮮獨立의經濟的土台를 닦는것이아니라 이것을 萎縮破壞하여 自己들의 商品市場으로 만들며는 米帝國主義者들의 植民地的 侵略的 經濟政策의 必然的歸結인것이다。

三

米帝國主義者들의 朝鮮에對한政策은 朝鮮을―될수만있으면 全朝鮮을 그것이 不可能한때에는 적어도 南朝鮮만이라도 反쏘 反民主의 侵略的軍事基地로 만들고 經濟的植民地로 만들자는것이다 그동안 그手段과 方法에있어서는 數次 變更이 있었지만 그根本政策에있어서는 조금도 變함이 없었던것이다 모쓰크바三相會議決定은 이決定이 外國의 干涉을 받지않는 朝鮮의 完全한 自主獨立을 保障하는것이었기때문에 이것을 反對하였던것이며 米國이 마음대로 할수있는 現在의 南朝鮮單獨「政府」와같은 傀儡政府를 樹立하려는 野望이 粉碎되었기때문에 兩次에 걸친 쏘米共同委員會도 故意的으로 破綻시켰던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全朝鮮植民地化政策을 南朝鮮分割隷屬化政策으로 變更하는 同時에 이政策을 國際聯合의 看板을 내걸고 實行하기爲하여 朝鮮問題를 不法的으로 國聯에 上程하였으며 「國聯朝鮮委員團」이라는 傀儡團을 派遣하여 南朝鮮單獨「選擧」를 實施하고 南朝鮮傀儡政府를 造作한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南朝鮮分割侵略政策의 基礎工作을 完成하였으며 이제부터는 傀儡反動單獨「政府」를 「朝鮮政府」라고 내세우고 그「政府」와 「協定」을 締結하는 形式으로 「合法的」인 侵略政策을 마음대로 實施하려는것이다。

米帝國主義者들은 그들이 오늘날까지 實施한 南朝鮮에있어서의 軍事的 및 經濟的侵略政策을 「韓國政府」와의 「協定」이라는 名目으로서 「合法化」하고

完成하는 過程에 벌써 들어선것이다 即 지난 八月二十四日에 「調印」된 「韓米暫定的軍事協定」과 九月十一日에 「調印」된 「財政及財産移讓에 關한 協定」이그것이다。

이 協定의 內容을 簡單히 본다면 前者는 첫째는 「韓國全國防軍備（警察、統衛部、海岸警備隊）의 統轄權과 統帥權을 可及的 急速히 漸進的으로 移讓할것」과 둘째는 「協定期間中에는 米軍이 統衛部와 海岸警備隊의 訓鍊과 裝備에關하여 大韓民國政府에 援助를 繼續할것」과 셋째로 「大韓民國에서 撤退를 完遂하기까지 米軍駐屯中에 所用되는 地域과 機構를 使用할것」을 規定한것이다（一九四八・八・二六 京鄕新聞）이것은 一言而蔽之하면 從來 米軍이 가지고있던 權限을 그대로 繼續 維持할것을 「協定」으로承認하는것外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即 첫째는 「可及的急速히」云謂는 그들이 즐겨쓰는 表現으로서 그것이 半永久的期限을 表示하는것임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며 따라서 이條項은 軍事權을 無期限으로 米軍이가지고 있어야한다는것이며 둘째는 「協定期間中」云謂는 協定自体가 期限이없으므로 이것 亦是 無期限으로 軍隊의訓鍊과 裝備를 米軍이 擔當하겠다는것이며 셋째도 亦是 米軍이 언제 撤退할지 그 期限이없으므로 이것도 또한 無期限으로 「米軍이 所用되는 地域과 機構」 即 軍事基地를 使用한다는것이다 이것은 米帝國主義者들이 오늘날까지 實施한 軍事基地化政策그대로를 賣國「韓國政府」가 承認한것이다。

다음 所謂 「財政及財産移讓에關한協定」은 長文과 어마어마한 數字들을 羅列하였지만 그骨子는 極히 簡單한것이다。

첫째는 「在韓國米陸軍」이 撤退하기까지 「그使用에 全的으로 保留될 또는 管理되는 財産은 米國政府의 負擔없이 「韓國政府」가 全的으로 負擔한다는것이다（第一條）即 米陸軍駐屯費 每月約 「二千九百五十三萬八千三百九十一圓」을 「韓國政府」가 負擔할것이며 「土地約五億四千二百八十八萬八千三百四十平方呎와 建物約三千七萬五千十一平方呎를 無償으로 使用할뿐만아니라 그「改良及維持에要하는 一切費用을 「韓國政府」가 負擔」（第一條）한다는것이다。

둘째는 米軍政이 占有하고있던 「歸屬財産」（即日本人이 所有하였던敵産）은 米軍이 只今까지 處分使用한것은 그대로 承認하고 運輸遞信系統機關을 除

外하고는(이것은 米軍이 繼續 所有한다)『可能한限 可及的急速히 移讓』(第五條)한다는것이다 即 米軍政이 只今까지 自己마음대로 處分하고『敵産拂下』等으로 賣却하고 或은 破壞한 그敵産을 아무 군소리말고 그대로 承認하고 받는다는것이다。

셋째는 一九四六年에 還償치않아도 좋다고 欺瞞하면서 强制로 떠맡기고 또 그것으로 米國의 處分하기 困難한 商品을 米軍政이 마음대로 사들여온 强制借款 二千五百萬弗을 二十年期間으로 年二分三厘七毛五의 利子를 添付하여 返還한다는것이다(第五條)그뿐만아니라 七面鳥통조림 칸데等 有害無益한 商品을 사온것이 二千五百萬弗로 米國은 그 둘이『必要할 境遇에 取得할 財産』買入用으로 使用한다는것이다(第五條二項) 即 米國政府가 必要한 境遇에『鑛山權을 주어야한다고 主張한다면 條文上解釋으로는 그대로 주어야 되는것』이다(『國會議員』二十五名의 同協定修正要求聲明書 九月二十二日合同)

넷째는 米軍政이 만들어놓은 모든 法的秩序를『韓國政府가 今後廢止 或은 改正할때까지』어떠한것이든지『全的으로 繼續施行』해야된다는것이다(第一一條)

以上 그몇가지의 內容만으로도 이協定들의 本質을 充分히 알수있다 이協定은 그들이 떠드는 一行政權移讓』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米帝國主義者들의 南朝鮮植民地化計畫을『協定』의形式으로 그대로 합아들인데 不過한것이다 即 이것은『새끼로 拘束된解放에서 새로 明紬실로 목매는 結果를 招來』할것이며(民聯談)『過去 일찌기 類例를 보지못하던 特例』(前記二十五『國會議員』聲明書)의 侵略協定이라고 그들 陣營內部에서까지 反對聲이 높으며 이協定을 賣國一國會』에서 通過시키려하자 所謂『國會議員』까지도(李文源等二十五名)『이協定은 子孫萬代에 禍根이될것이라』고 反對하고 退場까지하였으며(八月十八日會議에서) 二十一日에는 이協定의 修正을 要求하는 聲明書까지 發表한것이다。

우리는 이『協定』에서 米帝國主義者들의 南朝鮮侵略計畫의 露骨的表現을 볼수있다 同時에 이『協定』은 그들의 計畫實踐의 第一步라는것도 똑똑히 알수있다 그들은 이런『協定』을 口實삼아 南朝鮮을 마음대로 軍事基地化 할것이며 마음대로 經濟的으로 侵略할것은 明若觀火한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最高人民會議에서 兩軍同時撤退를 要請한데對한 米國의 態度에서 이것이 더욱 明白히나타나고있다 쏘련은 이를 곧 接受하고 이미 撤去를 實施中이며 또 거의完了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米帝國主義者들은 아무回答도없을 뿐만아니라『可及的速히 實施할수있는 時期에 朝鮮으로부터 全占領軍을 撤退시키는것이……本政府의 始終一貫한 見解이다』(國務省談話 一九四八・九・二一 유・피通信)라고 例의 定句를 되풀이하고있을뿐이며 마샬은『國聯總會가 巴里에서 開催되기前에는 아무런方法도 講究할수없다』(一九四八・九・二一)유・피通信)고(亦是 例에依하여 國聯總會를 앞에 내세우고 朝鮮에서 撤退하지않으려는 意思를 明白히하고있다 또 賣國奴李承晩은『米國은 쏘련側과의 諒解나 合議下에 쏘련側術策에 끌려들어가지않을것을 確信한다』(一九四八・九・二一)合同通信)고 행여나 米軍이 撤退할까보아 쥐고매달리고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國聯朝鮮委員團』은 米國의 指示에依하여 그報告書中에서 米軍의『韓國에對한 軍事占領을 繼續되어야한다』하고 提議하고있으며(世界日報一九四八・一〇・三一)또 南朝鮮傀儡『政府』는 그公報處를通하여『米國은 道德上 責任心으로나 國際上 威信으로나 또 自体의 安全保障으로나 無條件하고 撤退할수는 없을것이다』(一九四八・一一・一八合同通信)라고 米軍의 繼續駐屯을 哀願하는 談話를 發表하였을뿐만아니라『連日 緊急閣議를 開催하고』이에關한 對策을 講究하기爲하여『밤늦게까지熱議』하고있으며 한편 亡國『國會』에서는 金俊淵等『議員』의 發議로써『一定한 期間 米軍의繼續駐屯을 要請하는 緊急提案을 準備』하고있다고한다(一九四八・一一・一九 高麗通信)

米帝國主義者들이 제아무리 南朝鮮에 駐屯하려하더라도 또 賣國奴 李承晩 金性洙 李範奭等이 제아무리 米軍을 붙든다하더라도 眞正한 自己의政府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를 樹立하고 그周圍에 굳게團結된 全朝鮮人民의 힘은 그들의 野望과 兇圖를 반드시 粉碎하고야말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는 이미 쏘베트同盟을 爲始하여 蒙古 체코슬로바키야、波蘭、루마니야、洪牙利 및 유고슬라비야等 民主主義諸國의 是認을 받았으며 世界民主隊列에 完全한 同等權있는 一員으로서 參加하게되었으며 世界의平和와 安全을爲한 反帝 反戰 反侵略鬪爭의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게

되었다。

南朝鮮에서의 米軍의 撤退는 朝鮮의統一民主獨立과 民族經濟復興의 絶對必須條件일뿐만아니라 世界의平和와 安全維持의 重大한 擔保의 하나로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國土의 完整과 民族의統一을保障하는 가장 切迫한 條件으로되는 兩軍同時撤去에對한 쏘련政府의 提議를 實踐하기爲하여 全力을 다하고」 있으며 「또 우리 朝鮮을 다시 植民地化하려는 帝國主義國家들앞에서 卑屈하는 民族叛逆者들을 反對하여 積極的인 鬪爭을 展開」하고있는 全朝鮮人民들은 金日成首相이 發表하신 中央政府 政綱을 높이받들고 米國軍도 南朝鮮에서 撤退할것을 强硬히 要求하고있으며 또 쏘聯人民을 先頭로하는 全世界 平和愛護人民들은 우리의 이鬪爭을 絶對支持 後援하고있는것이다. 自己祖國이 外國에 隷屬되는것을 願치않으며 自己나라의 統一과 民主獨立을 爭取하기爲하여 鐵石같이 團結된 三千萬朝鮮人民들의 熾烈한 鬪爭은 반드시 米軍을 撤退시키고야말것이며 또 米軍이 撤退할때까지 全力을 다하여 鬪爭하여야 할것이다。 (一九四八・一一・二二)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八〕

맑스주의당의조직적원칙

레닌의 저서「一보전진 二보퇴각」에 대하여

므·스 쩨 빠 노 브

레닌은 맑스主義黨의 思想的기초를 作成한後 즉시 로동계급의 혁명적조직체의 창건에 關한 과업을 제기하였다。레닌은 이 課業을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이 가장 重要하고 긴급한 과업중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一八九五年에 革命的맑스주의黨의 맹아인『페쩨르그라드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을 組織하였다。레닌의 체포투옥 류형은 맑스주의的黨創建에關한 그의 첫 事業을 중단시키였다。一九〇〇年 류형지에서 돌아온후 혁명적組織体의 結成事業을 계속하였다。레닌的『이쓰크라』는 맑스주의당 창건에 關한 계획을 作成하였으며 로씨야社會─民主團体들을 單一黨에 結合시킬것을 준비하였으며 로씨야社會民主勞動黨 第二次大會의 소집을 보장하였다。

로씨야 社會民主勞動黨第二次大會에서 黨강령과 규약을 접수하였으며 그리하여 統一的黨의 골격을 만들었다。이것은 勞動階級의 통일적 혁명적 조직체의 창건에있어서 거보를 내어드딘것이다。그러나 大會는 레닌이 제기한 제조직적 과업들을 實現하지못하였다。

大會는 조직적문제의 분야에있어서 레닌의 敵─멘쉐위끼들에게 우세를 주면서 동요되였다。그러나 大會의 마지막 시기에이르러서 비록 改正은되였으나 조직문제에 있어서 멘쉐위끼들의 기회주의를 폭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黨內에서 孤立시키지도못하였을뿐만아니라 黨앞에 이러한 問題를 제기하지도 못하였다。이것은 第二次黨大會後에 黨內에서 조직문제에 있어서의 투쟁을 더욱 强化시키였

던것이다。

멘쉐위끼들은 大會에서 만들어진 統一的黨의 골격을 분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黨을 조직적불통일선과 수공업적方式에로 退却시키었다。통일당창건에있어서 黨의 決定에依하여 前進할 대신에 멘쉐위끼들은 大會의 決定을 무시하고 以前의 組織的不統一과 수공업적방식에로 퇴각하면서 黨을 곤난한 처지에 끌어넣었다。멘쉐위끼들은 勞動階級을 指導的組織이없이 내버려두었다。

로써야에는 革命이 박두하였다。勞動階級을 지도적조직이 없이 남겨둔다는것은 그의 패배를 미리 말하여주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의 指導的組織으로 黨을 創建함이없이는 革命에서 勝利를 쟁취하지못할것이다。이러한黨의 組織的原則을 作成하며 협소한 그릎주의와 멘쉐위끼的 非組織性을 反對하여 黨性을 옹호하며 조직적문제에있어서 멘쉐위끼들의 기회주의를 폭로하는것이 當時에 提起된 첫 과업이었다 이 과업을 레닌은 『一步 前進 二步 退却』이란 그의 有名한 저서에서 解決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략사』는 레닌의 이 저서에對하여 다음과같이 평정하였다。

『이 저서의 意義는 두엇보다도 우선 그가 협소한 그릎主義를 反對하고 黨性을 固守하였으며 해당파를 反對하고 黨을 지켰으며 조직적문제에있어서 멘쉐위끼의 기회주의를 분쇄하고 볼쉐위끼黨의 조직적기초를 축서한데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이 저서의 의의가 다 해명되는것은아니다 그 歷史的의의는 이著書가운데서 레닌이 맑스主義史上에서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조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手中에 있는 主要한 무기로서의 黨에關한 學說을 창설한 거기에있는것으로 그 무기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爲한 鬪爭에서 勝利할수가없는것이다』(조선판 쏘련黨史八九페지)

『一보전진 二보퇴각』이란 저서를 레닌이 一九〇四年二月—五月에 서술하여 一九〇四年五月에 제네바에서 出版되었다 레닌은 第一版서문에 다음과같은 두가지의 中心的이며 基本的인問題를 自己의著書에서 대답하려는 目的을 가지었다고썼다。

第二次黨大會에서 볼쉐위끼와 멘쉐위끼의 두 部分으로 黨이 분렬된 政治的의의는 두엇인가? 組織問題에있어서 멘쉐위끼『이쓰크라』는 어떠한 원칙적 견해를가지었는가?

× × ×

로써야 社會民主勞動黨—第二次大會는 분렬로써 끝마치었다。물론 이것은 우연한 사실이아니다。분렬의 原因은 大會에 형형색색의 政治的 그루빠들이 참가하였음에 起因되었던것이다。大會에서 다수표는 『이쓰크라』支持者들에게있었는바 즉 그들이 五十一票中에서 三十三票를 얻었다。그러나 『이쓰크라』파 全体가 레닌을 支持한것은 아니다 레닌의 支持者들을 大會에서 확고한『이쓰크라』派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二十四票를 얻었다。마르또브 支持者들은 불확고한『이쓰크라』派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九票이었다 一部代表는『이쓰크라』와 그 反對者의 中間에서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와같은 사람이 大會에서 十票를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中間派이었다『이쓰크라』의 공공연한 反對者는 모두 八票(『경제주의』의 三票와 분드派의 五票)를 가지었다 이때에 만약『이쓰크라』派가 분렬한다면『이쓰크라』의 적이 優勢를 차지하였을것은 두말할것도없었다。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大會는 進行되었다。

로써야社會民主勞動黨 第二次大會의 重要한 任務는『이쓰크라』가 제안하고 作成한 원칙적 및 組織的 기초위에서 眞正한 黨을 創立하는데 있었다『이쓰크라의 강령과 方向은 반드시 당의 강령과 方向으로되어야하며 이쓰크라의 조직적계획은 반드시 黨의組織的규약에 고착되어야된다』라고 레닌이 말하였다。(레닌전집 제六권 一六四페지)이 重大한 課業에관한 問題를가지고 大會에서 가장 첨예한 루쟁이 展開되었다。이것은『이쓰크라』의 指導와『이쓰크라』의 전술과『이쓰크라』의 강령과『이쓰크라』의 원칙적 勝利를爲한 鬪爭이며 黨을 볼쉐위끼와 멘쉐위끼로 분렬에 이르게한 鬪爭이었다。

× × ×

大會의 重大한 事業으로서는 黨강령을 채택하는것이다。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강령초안은『이쓰크라』편집부에서 作成하였으며 大會의 一年前에 발표하였다。大會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이 강령을 反對하여 출현하였다。『大會에서 기회주의적분자의 反對를 환기시킨 中心問題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關한 問題였다』(조선어판 쏘련당사 七〇페지)

『경제주의자』아끼모브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비정의적 표현』이라 칭하고 그를 그가 표현한것처럼『프로레타리아트를 社會主義로써 결합시킨것이다』라는 공식으로 교체시킬것을 제의하였다。이 아끼모브의 公式은 자본주의가 社會主義로의 平和的으로 伸展한다는데關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的 公式의 이전이다。강령을 전적으로 채택하기위하여 거수할때에 中立한 代表는 아끼모브 한사람뿐이었다。아끼모브는 거수할때에 왜 中立하였는가에對하여 그는 특별성명으로써 大會에서 說明하였다。그는 두개의 원칙적 조항을 지적하였다。即 서구라파의 모형으로부터 退却이되기때문에 그가 그강령을 접수할수없다는것이다。그것은 첫째로 社會革命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關한 조항이며 둘째로는 빈궁화에對한 理論이다。

아끼모브는 우리의 강령에 빈궁화에關한 問題는『서구라파 社會主義的서적의 재저술과의 反對로서 解決되었다』고 聲明하였다。이 方面에서의 아끼모브의 聲明이 정당하다。眞實로 서구라파 수정파들의『재 저술』들은 빈궁화의 理論을 反對하는 부르조아的 론증으로써 충만되었다。빈궁화의 理論을 거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爲한 階級鬪爭의 政策을 反對하고 계급간의 타협과 자본주의를 平

和的으로 극복할수있다는 理論으로 넘어가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爲한 계급투쟁의 政策은 빈궁화에 關한 理論과 全般的 자본축적법칙과 떨어질수없는 관련을 가지었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사회는 두개의 對立的극으로 即 이中에하나는—社會의 一切의 부를 自己의手中에 장악하는 부르죠아와 다른하나는 점점 살수없게되며 실업과 착취와 압박과 천대로써 시달리는 프로레타리아트로 더욱 分化되는 사실과 관련되었다。大衆을 貧窮化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간의 階級鬪爭을 强化시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발전에 關한 黨강령의 명제는 社會主義革命과 그의 불피적조건인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關한 結論에 반드시 이르게한다。大衆의 빈궁화와 부르죠아 社會의 계모적급순첨에화를 거부하는 아끼모브의 수정주의的見解는 社會主義革命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不可能性에關한 結論에 이르렀다。

아끼모브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反對하여 당명칭을 가지고 論證하려하였다。黨은 自己의 명칭으로써 다만 社會主義만 爲하여 鬪爭할것이아니라 民主主義를 爲하여서도 鬪爭하여야된다고 聲明하였다。 아끼모브의 견해에依하면 民主主義라는것은 소수의 정권으로인정하는 독재와의 융합할수없는 多數의 政權이다。 아끼모브는 독재와 民主主義의 변증법적 상대적대립성을 과렬하였으며 독재와 民主主義를 孤立시키었으며 對立시키면서 問題의 階級的 맑스주의의 해석을 多數와 少數에 關한 부르죠아 自由主義的 론의로써 슬그머니 교체하였다。아끼모브도 다른 기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或은—或은』하는 公式에依하여 論議한다 即 或은 독재이면 그때에는 民主主義가 없을것이요 或은 民主主義면 그때에는 독재가 없을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보편적진리를 의곡하였다。독재는 支配階級을 위한 民主主義를 반드시 숙청하는것을 의미하지않으나 그러나 그는 압박階級을 위한 民主主義는 반드시 숙청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제한한다。부르죠아의 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全勞力者들에대한 民主主義는 숙청하거나 엄중하게 제한하지만 그러나 부르죠아에對한 民主主義의 숙청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부르죠아와 착취자들에對한 民主主義는 숙청하거나 엄중히 제한하지만 勞力者들에對한 民主主義의 숙청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더우기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는 權利와 自由를 형식적으로 선포하는것이아니라 勞力大衆이 그를 실천하기위한 物質的保障을 조성한다。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民主主義의 最高형태이다。

大會에서 아끼모브를 프로레타리아트독재와『和解』시키는 의무를 뜨로쯔끼가 부담하였다。그는 말하기를 아끼모브는 소수의 독재로써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공연히 겁내한다고하였다。왜냐하면 뜨로쯔끼의 見解로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關한 말은 프로레타리아트가 民族의 多數를 차지하여 그의 의식이 社會民主黨의 의식과 합등될때에만 있

을수있다는것이다。뜨로쯔끼는 아끼모브를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와『화해』시키는것을 달성하였다。

大會는 反『이쓰크라』派들의 試圖를 反對하고 革命的강령을 채택하였다。이關係에서 大會는 높은地位를 차지한다。

大會에서 組織的問題의 討議는 전혀 다른 形便에있었다。組織問題는 大會의 中心이었다。 레닌은 로써야 革命的社會民主主義者들의 외국련맹 第二次大會에서 全大會의 基本方向은 네개의 大모멘트에 귀착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조칙위원회와의 충돌 둘째 언어평등권에對한 討議 셋째 규약一條에對한 討議 넷째 黨中央선거시의鬪爭。

조직위원회와의 충돌은 大會의 初期에 即 세번째 會議에서 發生되었다。 조직위원회는 파리에 망명하여있는 社會民主主義者들의 적은 그루빠인 『鬪爭』그루빠를 大會에 초내하지않았다。 이 그루빠는 黨內에서 어떠한 영향이든지 없었으며 또確固한 見解도 가지지못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이 決定을 大會의 代表者자격심사委員會에서 승인하였다。 이後에 조직위원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大會에 참가한 그의 委員들이『鬪爭』의 결의권을 가진 代表들을 大會에 초대하자는 이전과는 正反對되는 決定을 채택하였다。 조직위원회委員中 한사람인 크라써교브(빠블로웨츠)는 조직위원회의 이 재決定을 反對하였다。 그러므로 조직위원회는 이 問題에있어서 크라써교브에게 參席을 금지한다는데 對한 決定을 채택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재決定은 大會의 多數에 적지않은 憤慨를 일으키었다。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 그를 지지찬동하였다 크라써교브는 조직위원회의 재決定의 비법성에關하여 론박하였다。크라써교브의 參席은 파란을 일으키었다。 에고로브는 크라써교브가 당규률을 위반하였다고 론죄하였다。黨규률을 크라써교브가 위반하였느냐 그렇지않으면 조직위원회가 위반하였는가 하는 問題에對하여 論爭이 벌어지었다。大會와 낡은 그루쇼크와 代表들의 권리에對한 問題가 쟁기었다。大會의 의장 쁠레하노브는 할수없이『대회는 黨의 최고관결이다』라고 장기지키었다。

이에對하여 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

『大會는 黨의 최고관결이다。 그러므로 黨生活의 어떠한 問題를 勿論하고 어떠한 代表든지 직접 大會에 上申 및 의견을 제출할수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그자가 黨의 규률과 규약을 위반한다』(레닌全集 第六卷 一七〇페지)

조직위원회와의 자이에 發生된 자건의 政治的의의는 무엇인가?

자건의 원칙적중대정은 組織問題에있어서 두개의 基本로선이 발로된것이다 即 이전 구두쇼크주의 로선과 창전되는 黨性의 路線이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

『이렇게되어 論爭의 問題는 되렘마에 빠지었다。即 구두쇼크주의냐 그렇지않으면 黨性이냐? 大會에서 각종위원

회와 小組들의 想像해번 權利와 규약으로써 代表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만 말로만아니라 실지에서 大會를 앞두고 진실한 黨의 責任的기관들을 創設하기 前에 各級 下部組織들과 이전 그루빠들을 完全히 해산하든지하는것이다。벌써 여기에서 讀者들이 黨을 실지적으로 창건하려는 目的을가진 大會始初에 (第三次會議) 생긴 이 론쟁이 어떠한 원칙的重大性을 가지였는가를 볼것이다。이 론쟁에서 이전 크루쇼크와 創建되는黨(『南勞』와같은) 구루빠간에의 所謂 論爭이 集中된것이다』。(레닌全集 第六卷 一七〇페지)

大會는 조직위원회의 새決定을 거부하였다。여기에서 靑少한 아직 견고하여지지못한 黨性이 이전 크루쇼크주의를 勝利하였다。

大會의 十七次會議에서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과업 및 결사』의 무제한的 自由의 要求에關한 강령의 政治的 部門 제五항을 토의할때에 분드派리 따르는『言語』를 첨부하자고 제의하였다。言語의 無제한的自由……이러한 要求는 회극的性質을 가진것만침 그 의견을 조롱하고 거부하였다。그렇기때문에 분드派들은『언론의 自由』대신에『언어의 평등권』의 要求를 제의하였다。

大會에서 누구든지 勿論 언어의 평등권 即 어떠한 民族이든지 모국어를 利用하는 권리를 反對하지아니하였다。『이쓰크라』파는 다만 이 권리를 강령에 기입하는것을 反對하였다。왜 그러하였는가하면 강령에 민족평등권의 要求를 쓴것만침 各民族의 모국어 리용권 即『언어평등권』이 그 自体에 포함되었기때문이다。이外에 민족적불평등을 言語의 分野에 전치하는것은 옳지못한것이다。끝으로『이쓰크라』파는 강령을세목으로서 복잡하게할 必要가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더우기 이러한 세목은 가장 광범하고 完全한 公式으로서 벌써 강령에 표시되였던것이다。강령에 言語平等權에關한 要求의 記入을 反對하는것은 가장 正當한理由임에도 不拘하고『이쓰크라』反對者와 동요分子들은 그것을 강요하였다。그리하여 論爭은 격화되었다。

언어평등권으로부터 생긴 事件의 政治的의의는 무엇인가?

『이쓰크라』파의 唯一이없다는것이 폭로되였으며 그리고 이 事情은 即『「이쓰크라」파를 배반하는사람의 數가많지못하다할찌라도 反『이쓰크라』方面의 勝利를 보장하여 주는것이다 「이쓰크라」파의 總票中에서(이쓰크라는 모두 三十三票이었다)八票가 떨어졌다는것은 反「이쓰크라」派와 동요분자들의련합에 우세를주었다。이러한 事實은 大會에서 규약 제一條를 채택할때와 선거시에 반복되었다』。(레닌全集 第六卷 一八一페지)

『이쓰크라』다수로부터 不確固한『이쓰크라』部分이 분리되어나간것은 反『이쓰크라』方向의 勝利를 보장하여주었으며 때문에 大會에서『열광的』鬪爭이 환기되였다。

『大會의全期間에『이쓰크라』多數로부터 얼마되지않은 部分이 떨어져나간 세개의 가장 큰 자변이있었다。即 언어평등권、규약第一條、선거가 곧 그것이다 이 세가지자변지에격렬한 鬪爭이벌어졌으며 결국이 투쟁은 당내에 오늘과같은공황을 끌어왔다』라고 레닌이 썼다。(레닌全集 第六卷 一七九—一八〇페지)

大會의 第十三次會議에서 당규약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大會는 조직문제를 상세하게 硏究하였다。

레닌的—『이쓰크라』에서 作成한 중심 조직적자상은 中央집권주의思想이다『이쓰크라』는 이 思想을 黨組織의 기초로 만들려고 기도하였다。即 이 思想이 조직문제의 모든 세부브을 해결하는 方法을 原則的으로 규정하며 即 이 思想이 唯一한『原則으로써 반드시 全규약에 지종일관하여야된다。

部分的 또는 臨時的 性質을 가진『이쓰크라』의 다른 組織的 思想은 黨의 사상적기관인 政治的新聞의 特別한 役割에 關한 思想이다。

『이쓰크라』의 조직계획의 두개의 基本的思想은 레닌의 여러저서에서 특별히 『무엇으로부터始作할까?』『무엇을할까?』란 그의 저서에서 론술하였다 이 思想을 레닌이『우리의조직적과업에關하여』동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밀히 해석하였다。

『이쓰크라』파는 中央집권주의思想이 大會에서 反『이쓰크라』파의 反對를 환기시킬것을 예측하였다 事實 그렇게되었으며 또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런데『이쓰크라』派 자체가운데에서도 中央집권주의의 사상을 반대하는者들이 있었다。규약第一條에對하여 마르또브와 其他 不確固한『이쓰크라』파들이 反對하여 出現하였으며 특별히 大會後에 조직문제에 있어서 中央집권주의의 사상을 反對하여 鬪爭을 일으켰다。그들은 규약第一條에 關한 레닌의 定義를 反對하였다 레닌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即『黨의강령을 承認하며 물질상으로 黨을 支持하며 黨의 어느 한組織의 成員이되는者는 누구든지 다 黨員이 될수있다는것이다』

레닌은 규약第一條 당원자격에관한 규정에 세개의 특징을 지적하였다。即 黨의 강령을 승인하며 黨을 物質的으로 援助하며 어느 한黨團体에 直接 參加하는者가 黨員으로 인정될수있는것이다。

마르또브의 정의는 다음과같았다。即『黨강령을 승인하며 物質上으로 黨을 支持하며 黨의 어느한組織의 지도下에서 상시적으로 黨에 直接 協力하는者는 누구나 자회민주로동당의 黨員으로 인정된다』는것이다。

마르또브는 規約第一條의黨員자격에關한 규정에 세개의 특징을 지적하였다。即 黨의강령을 승인하는것이며 물질상으로 黨을 支持하는것이며 당의 어느한 조직의 지도下에서 상시的으로 直接 그를 協力하는것이다。당원자격에 關

한 첫째 둘째 特徵은 레닌의것이나 마르또브의것이 一致한다。다만 셋째특징에서만 차이가있다。레닌의것은 黨의 어느한조직에 成員이 되는것이며 다르또브의것은 黨의 어느한 조직의 指導下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그를 協力하는것이다。

외형상 차이는 그리크지아니하다。大會의 한 代表는 레닌과 마르또브의 정의間의 特別한 차이를 볼수없다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레닌의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것같고 마르또브의 말을들으면 그것이 옳은것같기도하다』

당규약 제一조에關한 외형상이 크지아니한 차이는 조직規律 및 中央집권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두 견해에 섰으며 어떻게 黨을 創建하여야되겠는가하는 問題에 두가지의 다른 대답을 준것이다。

마르또브의 支持者들은 그의 정의가 黨員이 되기를 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黨門을 널리 開放한것이기때문에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마르또브와 그의 지지者들을 반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課業은 우리黨의 견고性 인내성과 순결성을 옹호하는것이다。우리는 반드시 黨員의 명의와·의의를 높이 높이 더욱 높이어야된다— 때문에 나는 마르또브의 정의를 反對한다』(레닌全集 第六卷 三三페지)

규약 第一條에관한 레닌的 정의는 黨을 로동계급의 조직적부대로 組織의 体系로 인식시킬것을 예정한것이다。이러한 조직적부대와 체계가없이는 정권을爲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勝利할수없는것이다。

규약 第一條에關한 마르또브의 定義는 당을 전혀 다르게 인식시키려는것을 豫定한것이다。마르또브는 黨을 분산적이며 組織上 어떠한 무정형한것으로 究明하고 그 成員은 自己마음대로 黨에 入黨할것을 용허하였다。마르또브의 정의는 不確實한 非프로레타리아트分子에게 黨의 門戶를 널리 開放한것이다。마르또브의 支持者들은 투쟁적조직으로 될수없는 雜多한黨을 願하였던것이다。

레닌과 레닌主義者들은 大會에서 一元的이며 鬪爭的이며 明確하게 組織化되었으며 唯一한 의지를가진 黨을 爲하여 鬪爭하였다。

大會는 기권一票、二十二票 對 二十八票의 多數는 규약第一條를 마르또브의 정의대로 채택하였다。이와같이 大會는 마르또브의 便에 렵각하면서 中央집권제의 思想으로부터 퇴각하였다。

大會의 第二十七次회의에서 분드派들이 탈퇴하였다。그들은 黨內에있어서의 특수한 지위를 要求하였다。即 로써야 자회민주로동당내에있어서 분드의 련방적 加入에關한 그들의 要求를 거부하자 분드派들은 中央집권주의를 反對하여 大會에서 탈퇴하였다。

大會의 二十八次會議에서 두자람의『경제주의者』아끼모브

와 마르띠노브도 大會에서 탈퇴하였다 그들도 역시 中央집권주의를 反對하여 탈퇴하였다、黨규약은 國外의 당사업을 집중화시키었다 即 國外에있는 社會—민주주의자들은 國外로써야 革命的 社會民主主義련맹에 반드시 加入하여야된다(규약十三條)이리하여 아끼모브와 마르띠노브가 지도하던 在外『경제주의者들』의 단체를 해산시키였다。

七名의 기회주의자가 大會를 탈퇴한것은 大會의 勢力關係를 레닌파에 유리하게 변경하였다 중앙위원회에는 레닌의 지지者들이 選擧되였다 레닌의 提案에依하여『이쓰크라』편집부—는 레닌 쁠레하노브 마르또브가 被選되였다 마르또브는 자기찬도자들로 성립되었던『이쓰크라』구편집부원 六名全部를『이쓰크라』편집위원으로 選擧하기를 大會에 要求하였으나 大會는 이 제안을 否決하였다。

당중앙기관문제에대한 투표에의해서 大會는 마르또브支持者의 敗北와 레닌支持者의 勝利를確定하였다 이때부터 大會에서 選擧때에 多數票를얻은 레닌支持者들을 볼쉐위끼라고 부르게되었으며 小數票를얻은 레닌反對者들을 멘쉐위끼라고 부르게되었다。

이와같이 대회에서 진행된 투쟁은 당을 볼쉐위끼와 멘쉐위끼의 두 부분으로 분렬시켰다 그래서 볼쉐위끼는 혁명적이며 멘쉐위끼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기회주의적 우익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즉 대회사업의 분석으로부터의 결론을 레닌은『일보전진 아보퇴각』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진술하였다。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 이후 멘쉐위끼들은 대회의 결정을 파괴시키며 黨中央部를 탈취하려고 全力을 다하였다 멘쉐위끼는 黨을 속이고 마르또브 뜨로쯔끼 악셀로드가 先頭로되어 그들의 반당적 분파조직을 비밀로 창립하고 마르또브가 쓴바와같이『레닌主義를反對하는 폭동을 일으켰다』쁠레하노브가 변절한 結果에 멘쉐위끼들은『이쓰크라』편집부를 奪取하였으며 그리고 두명의부패한 볼쉐위끼—크씬과 노쓰꼬브가 변절한 結果에 中央위원회에 다수를 멘쉐위끼들이 차지하였다 멘쉐위끼들의 분렬행위는 당을 어두운 공황에 빠지게하였다 그렇기때문에『一步前進 二步退却』이란 레닌의 저서에『우리黨內에 공황』이라는 小題目이 서술되었다。

멘쉐위끼는『경제주의자』들과 분드派와 合同해서『이쓰크라』紙上에서 黨性과 레닌主義를 反對해서 공격의 진군을 開始하였다 그리하여 멘쉐위끼들은 조직적방자(放肆)黨규률의 파괴 인테리겐챠개인주의의 찬미 무정부주의적 무규률성의 시인에關한 무제한한 宣傳을 始作하였다。

레닌은 멘쉐위끼『이쓰크라』의 原則的진지를 조직적문제에 있어서 기회주의라고 규정하였다。

조직적문제에있어서 멘쉐위끼的 기회주의에對한 레닌의 비판을 그의 基本原則으로 即『프로레타리아트는 政權을爲한 鬪爭에있어서 組織外에는 아무런무기도 가지지못하였다』(레닌

全集 第六卷 三二八頁)란 원칙으로부터 나가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組織에對한 어떠한 파소평가든지 그는 부르조아를 反對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鬪爭에서 그의 진지를 약하게 하는것이다。

떼닌은 조직문제에있어서 가회주의와 배개와 특징을 지적하였다 即 지론드주와 추미주의 귀족적무정부주의 自治主義이다。

멘쉐위끼들은 떼닌을 야꼬빈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歷史的 비유의 政治的의미는 다음과 같다 偉大한 불란서혁명당시에 야꼬빈파들은 左익이었으며 지론드주의자들은 革命의 우익이었었다 국제사회민주주의에있어서도 야꼬빈적 左익과 지론드右익으로 분렬되었다 기회주의자들은 벌써 오래前부터 左익들을 야꼬빈주의자며 부랑끼주의자며 또는 음모자라고 비난하였다 기회주의자들과 이러한 手法을 멘쉐위끼적『이쓰크라』가 떼닌에對하여 적용하였다。

멘쉐위끼적『이쓰크라』는 사회민주운동의『프로레타리아적 혁명적경향』과『인떼리적 기회주의』의 경향間의 鬪爭에關하여 쨌다 멘쉐위끼적『이쓰크라』는 이問題에關하여 중부하기를 좋아하였으며『경제주의자』와『정치가』들間의 鬪爭에關하여 쨌다 그러나 第二次 로써야 사회민주로동당대회에서 벌어졌던 鬪爭에對하여서는 회피하였다 이것도 역시 기회주의자들의 手法이다。

강령은 전술보다 중대하며 전술은 조직보다 더 중대하다는것이 멘쉐위끼『이쓰크라』의 목적이다。 물론 유일한 강령이없으며 유일한 전술을 작정한이없이는 유일한 조직이 있을수없을것만 자명이다。 이것은 초보적진리이다 그러나 당의 통일을 위하여 강령과 전술만이 원만한가 원마치못한가? 강령을 접수하며 유일한 전술작정이 당의 조직을 의미하는가 아니하는가? 달리말한다면 강령을 접수하고 유일한 전술작서만이 당창건을위한 전부인가?

강령과 전술문제에있어서 통일이 물론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당의 통일과 당사업의 중앙집권화들을 위하여서는 불충분하다 당의 통일과 당사업의 중앙집권화들위하여서는 또한 유일한 조직이 필요한것이다。

멘쉐위끼적『이쓰크라』는 통일적 조직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해당(解黨) 사업을 변명하기위하여 조직보다 강령과 전술이 더 중대하다는것을 선전하였다。

멘쉐위끼적『이쓰크라』는 떼닌이 당을 중앙위원회를 선두로한 즉 지배인을둔 대공장처럼 표장한다고 그를 비난하였다。

이와같은 비난은 부르죠아 인떼리들의 심리를 표시하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 조직에 대하여서는 실천적으로서나 리론적으로서 무식하기짝이없다고 떼닌이 론박하였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제조소들은 프로레타리아트를 련합하였으

며 규률과 그의 조직을 배워주었으며 그를 전체 로력자와 피착취대중의 선두에 내세웠다『제조소』학교를 나온 프로레타리아트는 규률과 조직을 겁내지않는다 그러나 소부르죠아 인떼리들은 규률과 조직을 죽음보다 더 겁낸다。 떼닌은 규률과 조직을 죽음보다 더 겁내며 조직적의의를 리해하지못하는 소부르죠아적사상을 귀족적 무정부주의라고 정하였다。

마르또브는 당은 규약이없이도 존재할수있다고 하였으며 떼닌을 당규약을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마르또브는 제二차당대회전에 당은 규약이 없이도 존재하였다고 빙자하였다 이에서 마르또브의 귀족적 무정부주의와 추미주의가 명백히 나타난다。

멘쉐위끼적『이쓰크라』는 중앙집권제를 반대하고 자치주의를 옹호하였다 이것이 조직문제에 있어서의 기회주의자들의 독점이다 중앙집권제는 전당(全黨)과 일체 지방조직과 전체당원들이 복종하는 위신있는 당중앙을 요구하는것이다 자치주의들 지방조직들의『권리』와 단독적으로 당중앙을 반대할 권리를 고수하였다。

× × ×

『전련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에는 떼닌이 자기의 저서『一보전진 二보퇴각』에서 발전시킨 맑스주의당의 조직적 기초를 형성한 여섯가지의 기본적원칙을 지적하였다。

(一) 맑스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전위 부대이다

사회생활에대한 지식, 사회생활 발전법칙에대한 지식, 계급투쟁법칙에대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또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을 인도하고 그 투쟁을 능히 지도할수있는 로동계급의 전위적부대이며 맑스주의적 부대인 그것이다。

로동계급에게 정치적당이 필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여러층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로동계급은 세개의 기본층으로써 구성되었다 첫째로 아직 소부르죠아적견해가 그냥 남아있는 즉 파산된 중간층으로부터 나온 로동계급의 소부르죠아적 요소이다 그들은 소부르죠아급진주의의 두정부주의와 및 반(半)무정부주의의 자장의 구현자이며 그리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로동운동에서『좌경』기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당 대렬에서『좌경』적 경향을 산생하는 기초로된다 둘째로 부르죠아화한 로동계급의 상층 즉 귀족로동자들인바 그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부르죠아적사상의 구현자이며 그리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로동운동에있어서 수정주의와 및 우경기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당 대렬에 있어서는 우경을 산생하는 기초로된다 셋째로 벌써 오래전에 비프로레타리아트 주민과의 관련을 끊었으며 소부르죠아적 심리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의 밥상머리의 찌고머기에 유혹되지않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 핵심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기본 핵심은 로동운동에서 맑스주의와 두쟁적 혁명당을 위한 견홍(堅强)한 지반이다。 제二국

제당의 낡은 당보다 다른 재형(型)의 당을 레닌과 쓰딸린이 창건하였다。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이다 때문에 당과 계급간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물론 이 한계는 조건과 운동에달리였다 당은 당원의 수효에의하여 본다면 계급보다 적다 레닌이 자기의 저서『一보전진 二보퇴각』에 발전시킨 이 문제를 쓰딸린동지는『프레로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註— 당출판사판 쓰딸린전집 제一권에 수록되어있음—編者)이란 자기의 저서에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반대하는것은 기회주의다 마르또브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서 파업참가자와 시위참가자들을 당에 인입시킬데대하여 말하면서 당과 계급간의 한계를 없새버리였으며 당을 계급속에서 와해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마르또브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당대회에서『누구든지 당의 어느한 조직의 지도하에서 상시적으로 당에 직접 협력하는자는 누구나 다 당원으로 선포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로써야 로동운동의 력사에서 멘쉐위끼인 악셀로드가 자기의 제의로써 가장 공공연하게 당과 계급의 한계를 없새려하였으며 당을 계급에 와해시키려고 시도하였기때문에『악셀로드주의』라는 특수한 명칭을 받았다。

一九○七년 악셀로드는 당시에 존재하여 있던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대신에 광범한『로동자대회』를 소집함으로써 두정형적(無定形的)이며 광범한 비당적『당』을 창조하려고 제의하였다 이와같이『악셀로드주의자』들은 당과 계급간의 한계와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을 숙청하려고 시도하였다。

『악셀로드주의』를 레닌과 쓰딸린이 강경하게 반대한 결과에 제五차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론돈대회는 광범한『로동자대회』에관한 사상을 론죄하였으며 광범한『로동자대회』소집에관한 조직 및 선전사업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一보전진 二보퇴각』에 다음과같이 썼다。

『우리당은 계급 당이다 그러므로 거의 전계급(그리고 전쟁이나 국내전쟁 시기에서는 완전히 전계급)이 우리당의 지도밑에서 행동하며 될수있는대로 밀접하게 우리당에 결합되지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언제든지 한번은 거의 전계급이 혹은 전계급이 자기의 전위대 자기의 사회민주당이 가지고있는 의식성과 적극성의 수준까지 상승할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마닐로브주의(註 고골리의『죽은혼』중의 인물 마닐로브의 이름에서 나온말인데 의지와 실행력이없는 감상적 몽상가의 표현—역자)이며『추종주의』일것이다 자본주의 밑에서는 로동조합조직(아주 유치한 아직 채 다 발전되지못한 층의 의식에 가장 리해되기쉬운 조직)까지도 로동계급의 거의 전부나

혹은 전부를 포괄(包括)하지못한다는데 대해서 현명한 사회민주주의자는 어느 한사람도 의문을 가져 본적이없었다 전위부대와 그것에 인솔되는 전(全)대중간의 상위를 망각하며 점점 광범해가는 층을 이 전위적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전위부대의 부단(不斷)한 의무를 망각하는것은 다만 자기를 속이며 우리의 임무의 거대성앞에서 눈을 감으며 이 임무를 협소하게 만들려는것을 의미하는것밖에 안될것이다』。(조선노당사 八○페지)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당을위한 레닌과 쓰딸린의 루쟁은 처음부터 국제적 의의를 가지었다。 제二국제당의 수령들은 레닌을 반대하고 멘쉐위끼를 지지하였다。 왜냐하면 멘쉐위끼들은 제二국제당의 낡은당들의 조직적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레닌과 쓰딸린은 제二국제당의 당들보다 다른 원칙위에서 다르게 재형(型)의 당을 창건하였던 까닭이다。

낡은형의 당 즉 제二국제당의 사회민주당들은 서구라파에서 대중적조직으로 발생되였다。 그러나 낡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이행(移行)하는데 따라서 낡은 형의 당들은 기회주의적당으로 변생하는 행정이 진행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당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죠아의 리해를 결합하는 당으로 변하였다。

쓰딸린은 一九二八년十一월 전련맹 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진술한 연설에서『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죠아의 리해의『련합』당인 낡은형의 당에대해서 규정하였다。 낡은형의 당들중에서 모범적당은 一九一四년전쟁전까지 존재한 독일사회민주당이다。

낡은형(型)의 당들의 정치적 구조는 어떠하였던가?

그는 세가지의 정치적구조를 가지었다。 즉 좌익 우익 중앙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우익은(베른슈타인 폴리마를 및 기타)부르죠아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진지에 선것이아니라 전형적 소부르죠아의 진지(陣地)인 계급적 평화정책의 진지에 섰다 그러므로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를 표현하고 옹호한것이아니라 소부르죠아계급의 리해를 옹호하며 표현하였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우익의 사상은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루쟁을 진행하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로력대중을 궐기시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상인것이아니라 로동계급대렬에 부르죠아의 견해를 주입시키는 자유주의적 소부르죠아의 사상이다。 베른슈타인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위한 계급투쟁에관한 맑스주의적 리론에 계급적 평화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으로 성장발전할수있다는 수정주의적 리론을 대립시키었다。

독일사회민주당 좌익(로자·룩셈부르그 칼·립크네트 및 기타)은 일반적으로 부르죠아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진지에 섰다。 그러므로 그들은 프로레타

리아트계급의 리해를 표현하였으며 옹호하였다 그러나 좌익들이 언제나 항상 철두철미하게 프로레타리아트 계급의 견해를 옹호한것은 아니다 로자·룩셈부르그가 쏘부르죠아 진지에떨어진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레닌은 로자·룩셈부르그의 정치적로선을 시정하기위하여 그와 투쟁하였다 그러나 독일사회민주당 좌익은 자기의 사상으로보아 근본적으로는 로동 운동에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적이였으며 혁명적이였다。

좌익과 우익이 한당에 소속되였다。 이들이 서로 투쟁하였는가? 투쟁이 없을수없었다 왜그러냐하면 대립적처지로부터 계급적 리해가 서로 충돌되였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두엇으로써 끝마치였는가? 외형상으로는 무엇으로든지 끝마치지않았다고 말할수있다 왜 그러냐하면 당내의 투쟁과 그의 결과가 『중앙파』의 방해 여하에 달려었기 때문이다。

『중앙파』 혹은 중앙주의는 공간적(空間的) 관념이아니라 정치적 관념이였다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전형적 『중앙파』의 대표적인물은 카우쯔끼였다 중앙주의는 당의 좌익과 우익의 투쟁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좌익과 우익의 화목의 방법으로써 해결하였다 카우쯔끼는 한당내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화목을 기도하였다 한당내에서 각이(各異)한 계급적 리해를 타협시킨것이 중앙주의의 정치적 『공헌』이다

중앙주의가 어떻게 한당내에서 (물론 유일당은 아니였다) 좌익과 우익을 타협시키였는가? 어째서 좌익이 한당내에 우익과 수정파와 함께 남아있었는가? 좌익이 어째서 그들과 분리하지않았는가? 어째서 로자·룩셈부르그가 베른슈타인을 사회민주당대렬에서 출당시키라는 빨떼하노브의 요구를 다만 정신적으로만 지지하였는가?

당우익에 대한 중앙파의 로선은 다음과 같다。 중앙파는 공식적으로 좌익의 견해를 지지하였으며 우익의 견해를 론박하였다 여러경우에있어서 당대회는 좌익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의 전략과 전술의 여러가지 주요한 문제에 있어서 중앙주의가 좌익과함께 대회에서 우익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앙파가 점점 기회주의로 변하면서 자주 우익파함께 좌익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는 근본적으로 一九一四년까지 『말로써 맑스주의를 지인』하는것이 중앙파의 특징으로 남아있었다 이 특징이 당내에 프로레타리아트 계급적 리해의 대표자들인 좌익을 보지할수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좌익이 사회민주당내에 남아있게된것은 당이 그들의 견해를 채택하였으며 우익의 견해를 반대하였기때문이다。

그러면 이런경우에있어서 왜 우익이 당에서 나가지않았는가? 당은 그들의 견해를 거부하였으며 그들의 결정을 당대회에서 법적으로 채택하지않았으며 그들의 저서를 당은 론박하지않았는가? 그러면 중앙파는 무엇으로써 어떻게 당내에 우익을 보존하였는가?

우익이 당내에 남아있게된것은 당이 그들에게 자유활동을 부여하였으며 더우기 중앙파들어 좌익의 결정대로 실천한것이아니라 우익의 요구대로 실천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것이 중앙파의 정책이다 그렇기때문에 레닌과 쓰딸린은 좌익과 우익을 타협시키며 이들을 한당내에 보존하는 카우쯔끼의 리론을 중앙주의라고 칭하였다 중앙주의는 맑스주의를 말로서는 인정하나 실지에서 그를 변절하는것이다。

(二) 맑스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이다

제二차 당대회에서 벌어진 당규약 제一조에관한 투쟁의 본질이 이에 있는것이다 당규약 제一조에관한 레닌적 정의는 당을 로동계급의 조직적 부대로 조직의 체계로 구명하였으나 당규약 제一조에 관한 마르또브의 정의는 당을 분산적이며 조직상으로 무정형한 당을 가지려고하였다 이리하여 마르또브는 당과 계급 조직분자와 비조직분자간의 한계를 없재려고하였다 쓰딸린이 자기의 저서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에서 지적한바와같이 마르또브는 『당은 단체가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은 비조직적단체』 라고한다 (이것이 소위 『중앙집권주의』다) 로동계급의 조직적부대로서의 당창건을 위한 레닌파 쓰딸린의 투쟁은 처음부터 국제적 의의를 가지였다 볼쉐위끼들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일뿐만아니라 조직적부대로되는 새형(型)의 당을 창건하였다 멘쉐위끼들은 로써야에서 서구라파의 낡은당의 모형대로 당을 창건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의 규약에는 당원이되는 조건으로서 다만 두가지를 자적하였다 당강령시인과 그를 물질상으로 방조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마르또브를 지지하고 레닌을 반대할것은 당연한일이다。

一九〇二년에 레닌은 당건설의 기초는 반드시 『공장소조』가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하면 『운동의 전력량은 대공장 로동자들의 조직에 있기때문이다』 제二국제당의당들 부분적으로 독일사회민주당은 초급당조직을 공장과 제조소에 조직한것이아니라 국회선거구에 조직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당을 성벽과 비교하였다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마르또브의 기회주의를 폭로하면서 마르또브에게 있어서 당은 성벽인것이아니라 동정자들이 마음대로 들어갈수있는 연회다 그렇기때문에 마르또브의 정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문을 널리 열어준것이라고 했다。

막심·끄리끼는 자기의 작품 『클림 삼긴의 생애』에서 멘쉐위끼와 볼쉐위끼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규정하였다 『멘쉐위끼들은 맑스대로 말하고 볼쉐위끼들은 맑스대로 실천하려고 시작한다』 아주 훌륭하게 말하였다。

철학가들이 오늘까지 세계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를 변혁시키여야한다 세계를 변혁시키는 방법은 즉 자본주의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변혁하는 방법은 정권을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투쟁이다 라고 맑스가 말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흩어져 혼자서 투쟁할수있는가? 물론 그럴수없다 이와반대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합하고 조직된다음에 전투로 나아가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투쟁이든지 성과가 있을수없다 당원들은 다만 굳게 단결된 조직에단합된때라야만이 투쟁할수있으며 당의 주장을 실천할수있는것이 명백하다 이와동시에 당원들은 당에 더욱 튼튼하게 단결할수록 그들이 더욱 훌륭하게 투쟁할것이며 당의 강령과 전술과 조직적견해를 완전히 실천할수있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에있어서 조직외에는 다른 아무런 무기도 없다』(레닌) 그러니까 이 무기를 끝까지 리용하여야된다 볼쉐위즘은 조직의 무기를 현명하게 광범하게 리용하였다。

고대의 현인(賢人) 알키메더스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나에게 기점(基点)을 다고 그러면 나는 지구를 정복할것이다』 현대의 위대한 영재(英才) 레닌은『무엇을 할까?』란 자기의 저서에서 다음과같이 썼다『우리에게 혁명자들의 조직을다고 그러면 우리는 로씨야를 정복할것이다』 알키메더스는 지구를 돌려놓기위한 기점을 얻지못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위대한 혁명자들의 조직을 창조하였으며 그리하여 로씨야를 돌려놓았다。

(三) 맑스주의당은 로동계급 제조직중의 최고 형태이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무엇을 할까?』에서 맑스주의당은 로동운동에 사회주의를 결합한것이라는 근본적원칙을 현명하게 규정하였다。

당은 리론과 실천의 통일 즉 맑스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실천적 운동과의 통일을 권화(權化) 시킨다 당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혁명적리론으로써 무장하여가지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일체의 투쟁의 형태와 조직을 지도한다。

레닌과 쓰딸린이 창조한 새형의당과 중앙파들에게 지도권이 부여된 낡은형의 당과의 사이에 차이는 이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현저하다 새형(型)의 당은 혁명적 리론과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실천과의 통일을 권화(權化)시키며 낡은형의 당들은 리론과 실천을 분리시키는것이 특징이며 맑스주의를 말로써만 시인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그를 배반하는것이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략사』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

『당은 선진리론과 계급투쟁의 법칙에 관한 지식과 혁명운동의 경험으로 무장된 계급중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 로동계급의 모든 다른 조직들을 지도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또 그것을 지도할 의무가있다 당의 지도적 역할을 경시하여 저하시키려고하는 멘쉐위끼의 시도는 당의 지도를 받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기타 제조직을 약화시키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약화와 무장해제를 초래한다 왜 그러냐하면「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획득을위한 투쟁에있어서 조직외에는, 다른 아무런 무기도 없는때문이다」』(조선문당사 八四페지)

당은 무엇보다도 계급의 정치적 지모자이며 그의 정치적투쟁의 지도자이다 어떠한 계급투쟁이든지 다 정치적투쟁인것만큼 어떠한 정치적 투쟁이든지 다 결국에 있어서는 정권을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정치적투쟁의 주요목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낡은형의 당들이 정치적투쟁에관한 뜨레드·유니온적 및 중앙주의적견해를 선전할때에 맑스와 엥겔쓰 후에 레닌과 쓰딸린은 정치적투쟁의 주요목적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원칙을 작성하였다。

낡은형의 당내의 기회주의자들도 정치적 투쟁의 리해를 국회투쟁에로 국한하였다 ·국회내에서의 의석(議席)을 위한 투쟁과 국회내에서의 투쟁을 낡은 형의 당들이 정치적투쟁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낡은형의 당들은 정치적 투쟁은 국회투쟁에만 국한하였다。

이와같이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로되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였으며 그러나 로씨야에서 멘쉐위끼들은 국회선거와 국회투쟁에만 적용한 당창건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四) 맑스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와 로동계급의 수백만대중과의 련계(聯繫)의 체현이다

당과 로동계급간에는 한계가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당이 반드시 계급으로부터 분리되어야하며 고립되어야한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반대로 당은 반드시 계급과의 밀접한 련계가있어야하며 비당원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에서 생존하여야하며 발전 성장하여야하며 이 련계를 몇배로 강화시키어야하며 그리하여 자기계급의 수천만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되는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당으로되자면 계급의 지지를 받아야된다』라고 레닌이 말하였다 계급과 떨어지며 계급과의 련계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약화시킨다면 당은 대중의 신뢰를 반드시 잃어버릴것이며 그렇게되면 당은 파멸될것이다 당의 력량은 수천만 대중과의 밀접한 유기적 련계에 있는것이다。

(五) 맑스주의적당은 반드시 단일한규약 단일한 당규률 당대회 및 대회와 대회간에는 당중앙위원회를 선두로한 단일한 지도기관을 가지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여 개개의 조직이 중앙기관에 복종하며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제의 원칙위에서 조직 되어야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이는 당이 정당하게 직능을 수행할수 없으며 대중을 계획적으로 지도할수없으며 계급지도에대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수도 없는것이다。

경찰—전제제도의 조건하에서 당이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는것만큼 할수없이 자기사업에서 엄격한 비밀적 성질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되였다 이것은 당의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즉 그 시기에 당을 하부로부터 선거에 기초하여 건설할수없게되였다 그러나 레닌는 이것은 림시적 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당의 비밀적성질은 짜리제를 전멸한후에는 없어질것이며 그때에는 당은 공공연한 합법적인것으로 되며 또 당의 조직은 민주주의적 선거제의 원칙에의해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의해서 창건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六) 맑스주의적당이 실천적활동에 있어서 만약 그대렬의 통일을 보지하려고한다면 당은 지도자이나 보통당원이나를 물론하고 전당원에게 동등으로 의무적인 유일한 프로레타리아 규률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규률을 지킬 의무가 없는 『선발자』와 규률에 복종할 의무가있는 『비선발자』로 당내가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구분』은 당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것이며 어러한 현상은 당규률을 파괴하는 『선발자』들은 군대가없는 장군으로 변하게할것이다 제二차당대회후 멘쉐위끼들이 이렇게되었다 즉 그들이 당중앙을 강점하고 당규률을 파괴한 결과에 그들은 당이없이 남아있었다 당는 해당자(解黨者)들을 따라가지않고 레닌을 따라갔다。

『우리에게 진정한 당이 형성되어감에 따라 의식적로동자는 프로레타리아 대군의 전자의 심리와 두정부주의적 지연자를 곧잘 쓰는 부르조아 인테리계차의 심리를 식별하는것을 배워야하며 그리고 또 보통당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상부의 자람들에게도 당원으로서의 의무의 리행을 요구하는것을 배워야한다』』(조선문 당자八八페지)라고 레닌이 썼다。

레닌은 『一보전진 二보퇴각』 이란 자기의 저서를 짜리 전제정권과 국제자본가들의 정권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고두자로 또는 조직자로 당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명한

말로써 끝마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이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못하였다 부르죠아 세계에있어서 무정부주의적 경쟁의 지배로 말미암아 분산되며 자본을위한 강제로동으로 억압되며 늘 극도의 빈궁 야만 타락의『구렁이』로 전락되며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맑스주의 월칙에선 사상적결합이 수천만의 로동자를 로동계급의 군내로 융합시키는 조직의 물질적 통일로써 굳어지는데서만 깨뜨릴수없는 힘으로될수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될것이다 이 굳대앞에는 로씨야의 전제제도의 로쇠한 권리도 국제자본의 부패하면서있는 권력도 견디어낼수 없는것이다』

레닌의 저서 『一보전진 二보퇴각』이 세상에 출판된지 四○여년이 지났다 이기간에 레닌의 조직적원칙이 실생활에서 권화되였다 三차에 걸친 혁명의 불길속에서 그는 검열되였으며 강화되였으며 발전되였다 레닌의 사상이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더욱 엄중한 검열을 치르었다 레닌과 쓰딸린당의 정치적 및 조직적사업은 히틀러독일을 격파하기위하여 쏘베트국가의 일체 력량과 물자의 동원을 보장하였다 여기에서 조직의 무기는 완전두결하게 활용되었다。

레닌—쓰딸린당은 자회주의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갔다 그는 전선과 총후를 조직하였다 총후에서 당에 조직적사업은 적의공격을 중지하며 그다음에는 그를 격퇴시키며 마지막으로 그를 진멸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군수품을 계속 공급하는 사업을 보장하였다。

전선에서 당의 조직사업은 붉은군대의 고상한 전투적 품질을 보장하였으며 볼쉐위끼의 위대한 독성 즉 용감성 영웅성 투쟁에서의 강인성 쏘베트조국의 적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함께 투쟁할 준비성을 투사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교양하였다。

당은 쏘베트국가의 전체조직들의 사업을 전쟁 일색으로 개조하였다 레닌과 쓰딸린당의 지도밑에서 쏘베트 직업동맹 공청회 기타 로력자들의 조직들은 자기사업을 전선 방조에로 개조하였다。

레닌—쓰딸린당은 전쟁시기에 수천만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더욱 단결시키었다 볼쉐위끼당 력자에있어서 당이 곤경에빠지였을때에 한두번만 로동계급의 새로운 원조를받지아니하였다 공민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러하였으며 레닌이 서거하였을때에 그러하였다 레닌—쓰딸린당에대한 쏘베트인민들의 신뢰는 조국전쟁시기에 특별한 힘으로써 나타났다 전인민들은 자기의 웬쑤— 히틀러리즘과 투쟁하기위하여 당의 주위에 더욱 단결되였었다。

전쟁에서 당의 유일과 강철같은 규률 중앙집권주의가 위대한력량으로 되였다 전쟁시기에 레닌—쓰딸린당은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투쟁의 고무자이였으며 조직자이였다 볼쉐위끼당의 조직적원칙은 평화시기와 또는 전쟁시기에 자기의 력량과 생활성을 보이였다。

一九四八년도 「근로자」 내용

호수	페지	제목	필자
2	2	북조선로동당 평남순천군당 제二차당대표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김일성
3	2	남조선반동적단독정부 선거를 반대하여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김일성
4	2	북조선로동당제二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사업결산보고	김일성
5	2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에서 진술한보고 북조선 정치정세	김일성
5	27	〃 남조선 정치정세	박헌영
5	47	전조선동포에게 고함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7	2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하여	김일성
8	2	八•一五해방 三주년 보고	김일성
9	1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앞두고 평남강동군승호선거구 선거자들앞에서 진술한 김일성장군의연설	김일성
9	1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에 관하여	김두봉
10	1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대하여	허가이
10	46	마기현물세징수사업과 一九四九년도 농산물 증산준비에대한 당단체의과업	김책
10	1	쏘련군철거를 응낙하는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위원장 느•스웨르니크의서한	
12	1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三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김일성
12	13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에서의 북조선민주건설의성과와 그에있어서의 위대한쏘련의 원조에대한보고	김두봉
10	2	느•스웨르니크에게 보내는 김두봉위원장의 서한	
10	4	쓰딸린대원수에게 보내는 김일성수상의 서한	
		당 생 활	
1	2	간부들의 사상적 정치적 수준을 제고하자	권두론
1	10	당사업 령도방법에있어서 몇가지문제	김창만

호수	페지	제목	필자
3	16	결점에대하여 두자비하며 당적요구를 강화하자	박팔양
4	48	중앙위원회 사업결산 보고에 관한 북조선로동당 제二차 전당대회결정서	
4	57	북조선로동당 규약	
6	12	당교양사업에있어서 자습체계를 고상한 질적수준에 제고시키자	박창옥
7	36	신입당원 교양에 대하여	황규진
8	35	북조선로동당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	김열
10	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대한 결정서	
11	64	당세포의 조직지도 수준을 제고하자	차영락
12	25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四차회의 결정서	
		리론 및 선전재료	
1	84	신민주주의의 사회적경제적기초에 관하여	아•데온디에브
3	24	과학적공산주의의 불후의 저작	김철산
3	32	맑스주의의유물론에 대하여	장하일
3	109	쏘련은 약소민족의 옹호자이다	김민수
5	54	맑스주의 사상은 무적의 힘	우민
5	65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하여	이•무지머노브
6	2	사상투쟁에 있어서의 당면과업	권두론
6	44	과학발전에 있어서의 비판과 자아 비판의 의의	브•므•께드로브
6	92	맑스주의발생은 철학에 있어서의 혁명적전환이다	브•스베뜰로브 뜨•오이제르만
6	114	반동과 가톨릭교회	에•뫄르가
7	46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있어서의 륜리학의제문제	그•가크
8	53	력사에서 개인과 군중의 역할	김두명
9	31	계급과 계급투쟁에대한 맑스주의 리론	쁘•페도쎄예브
9	60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교양에관한 제문제	태성수

호수	페지	제 목	필 자
9	105	따윈의진화론과 쏘련식물재배에서의 그의발전(상)	브•아•껠예르
10	7	쏘련군대는 해방군대이다	권 두 론
11	79	제국주의반동의 무기로서의 민족주의	유•후란제브
11	97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의 쏘베트국가의역활	쓰•찌따렌꼬
11	115	十월혁명은 쏘련에서	
		민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신 염
11	124	따윈의진화론과 쏘련식물 재배에서의 그의발전(하)	브•아•껠예르
12	28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하였는가	김 막 심
12	44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체계와 그 경제법칙들의 특질	느•살 런
12	57	사회주의적 계획화와 가치법칙	고•오스뜨로윗자노브
		국 내 문 제	
1	23	조선인민은 이러한 헌법을 요구한다	최 용 달
4	63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리 전
6	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근본원칙	김 택 영
7	71	민주주의 로동규률의 강화에 대하여	김 민 도
7	80	물가저하는 북조선경제건설의 필연적결과	김 찬
	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실시와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대하여	채 규 형
11	1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과 조선해방	권 두 언
11	72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수준 개선 향상 대책에 관하여	한 창 남
12	80	독립채산제 문제와 유일관리제	김 찬
12	94	남조선을 분활예속화하려는 미국의군사적경제적정책	석 국
		국 제 문 제	
1	48	미국침략정책과 소위『유• 엔조선위원회』	석 국

호수	페지	제 목	필 자
3	43	미침략정책을 반대하는 극동인민의 투쟁	석 국
3	53	일본에대한 미국팽창주의자들의 정책	신 염
3	89	식민지체계의 위기의 첨예화	에•쥬꼬브
4	75	국제정책에 있어서의 두가지방향의 투쟁에관하여	드•모닌
4	96	민주주의중국의 군사적성과	구 우 진
5	95	루므니아인민주주의의 위기	므•미전
5	110	현계단에있어서의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	강 세 민
7	95	쏘미관계	신 엽
8	67	사회주의와 민주력량의 장성	엘•비라노브
8	89	미국에서 박두한 선거와 진보적력량과 반동세력과의 투쟁	르•아력쎄예브
9	82	영미의 구라파분활정책	브•레온제브
		당 사 연 구 자 료	
1	62	『쏘련공산당(볼쉐위끼)략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상적무기이다	기 석 복
1	74	볼쉐위끼당은 개혁자들의 당이다	쓸레뽀브
3	121	크림전쟁	기 석 복
4	113	레닌적『이쓰크라』신문과 로씨야에서 혁명적 맑스주의당 창건	김 승 화
6	131	로씨야에서의 인민파	기 석 복
7	109	『무엇을할까?』에 대하여 (上)	아•구레예비츠
8	114	『무엇을할까?』에 대하여 (下)	아•구레예비츠
9	116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	박 정 호
9	122	一九〇五년,——九〇七년 첫로씨야혁명과 그 력사적의의	김 승 화
10	59	맑쓰—레닌주의의 기본지식에대한 백과사전 —볼쉐위끼당략사출판 一〇주년에 제하여—	기 석 복
11	7	『쏘련공산당(볼쉐위끼)략사』는 볼쉐위즘의 위력있는 사상적무기이다	

一九四八년一二월一五일 인쇄
一九四八년一二월二〇일 발행

「근로자」제一二호
〔정가 四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용
인 쇄 인 최 만 엽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K—8831

호수	폐지	제 목	필 자
11	25	볼쉐위끼당의 력사적경험의 국제적의의에 대하여	에• 볼드자로브
12	111	맑스주의당의 조직적원칙(〃一보전진 二보퇴각〃에 대하여)	므• 스쩨바노브
		외국 공산당들의 생활에서	
2	19	一九四七년九월말 파란에서 진행된 수개국공산당회의에서진술한 쏘련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활동에대한 통신적보고	그• 말렌꼬브
2	42	유고슬라비아제인민의 독립과 인민정권과 경제부흥 및 경제의 사회주의적재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에드와드칼델
2	68	파란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에 관하여	브라지쓰라브• 고물까
2	89	불가리아로동당(공산주의자)의 사업에 대하여	베• 첼벤꼬흐
2	111	체호슬로바끼야해방시로부터의 체호슬로바끼야 공산당사업에 관하여	엘슬란쓰끼
2	129	국가독립을위한 투쟁과 미국팽창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불란서공산당	자크듀클로
2	149	국가민주주의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루마니아 공산당	게• 게올기우—데스
7	26	수개국공산당보도국 회의에 관한 콤뮤니케	
10	73	찌또도당의 민족주의는 유고슬라비아를 어데로 끌고 가는가?	수개국 공산당보도국
10	80	파란로동당 열성자회의에서 진술한 베루트의보고	베 루 트
10	100	파란로동당 열성자회의에서 진술한 고물까의연설	고 물 까
10	106	파란로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의결정	파란로동당 중앙위원회

113